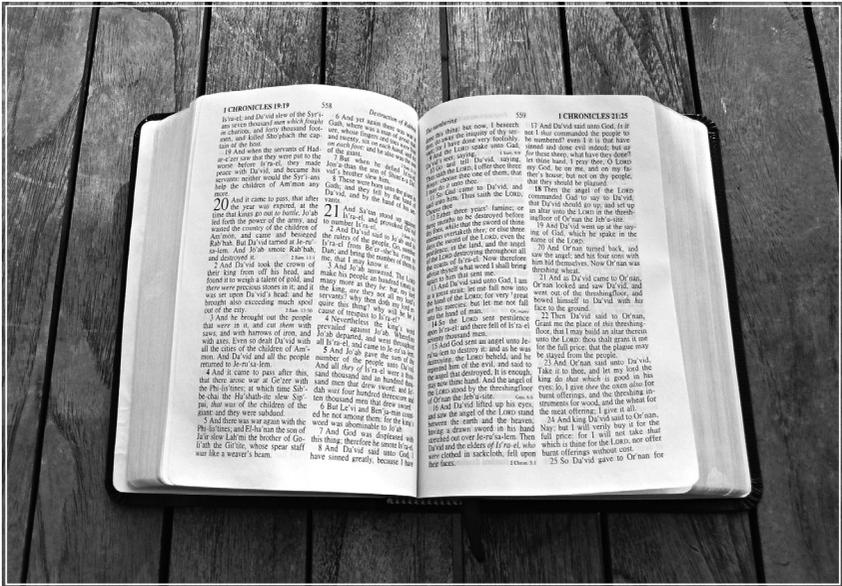


로마서 강해

Romans

로마서 강해

Romans



James W. Knox 원저

이우진 편역



도서출판
진리의 성경

Romans

James W. Knox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2015 by The Scripture of Truth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로마서 강해

원 저 자 | James W. Knox

편 역 자 | 이우진

펴 낸 이 | 이우진

디자인·편집 | 김화영

펴 낸 곳 |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초판발행 | 2015. 2. 28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45-4 지하

전 화 | 010-2322-1611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bbckjb>

(이 책의 PDF 파일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ISBN 97911-86022-05-4

■ 정가 15,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CONTENTS

| | |
|--|-----|
| 번역자 서문 | 10 |
| 제 1강 서언(1:1-16) | 13 |
| 제 2강 인간이 죄인인 이유(1:17-21) | 34 |
| 제 3강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1:22-32) | 56 |
| 제 4강 변명할 수 없는 이유(2:1-11) | 77 |
| 제 5강 말씀을 아는 자들에 대한 징죄(2:12-29) | 98 |
| 제 6강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심판(3:1-19) | 112 |
| 제 7강 율법의 목적(3:19-20) | 131 |
| 제 8장 하나님의 의(3:21-24) | 148 |
| 제 9강 의롭게 됨(3:21-28) | 168 |
| 제10강 구속(3:21-28) | 190 |
| 제11강 화해 헌물, 죄들의 사면(3:23-31) | 205 |
| 제12강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4:1-8) | 223 |
| 제13강 아브라함의 믿음(4:9-5:2) | 240 |
| 제14강 하나님과의 관계(5장) | 260 |
| 제15강 죄로부터 해방(6장) | 278 |
| 제16강 율법으로부터 자유(7장) | 300 |

| | |
|------------------------------------|-----|
| 제17강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8:28) | 319 |
| 제18강 생명의 성령의 법(8장) | 340 |
| 제19강 개인과 민족(9장) | 365 |
| 제20강 로마서 보충 설명 | 387 |
| 제21강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10장) | 406 |
| 제22강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답변(11장) | 427 |
| 제23장 합당한 섬김(12:1-2) | 448 |
| 제24장 영적 성장을 위해(12장) | 467 |
| 제25장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의 권력(13:1-5) | 486 |
| 제26장 그리스도인의 간증(13:1-14) | 501 |
| 제27강 균형 잡힌 삶(14장) | 519 |
| 제28강 강한 그리스도인(15장) | 537 |
| 제29강 하나님을 모욕 함(15:1-3) | 555 |
| 제30강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16장) | 568 |
| 부록1: 가장 중요한 질문 | 585 |
| 부록2: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 598 |

But I will shew thee that
which is noted in the scripture of truth...
(Daniel 10:21a)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
(다니엘서 10:21a)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 Christ Jesus Publications.

번역자 서문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딤후 2:4).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특히 로마서를 성경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과 복음에 관한 진리, 구원받은 사람의 두 본성에 관한 진리, 이스라엘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세상 정부와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로마서는 이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딜랜드 시에 있는 성경침례교회와 부속 신학원에서 목회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임스 닉스 목사가 로마서를 30번에 걸쳐 강해한 것을 역어서 한국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주석이 아니라 강해 설교를 엮은 것이며 번역자는 원저자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고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모두 번역자의 실력이 부족한 탓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자신이 대하는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큰 유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더욱 정확히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 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성경을 전부 암기하고 이해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요 5:39)

저자와 역자와 독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5년 2월

이우진 목사

제1강 서언

1장 1절-16절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강해할 때마다 지금 이 책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들곤 합니다. 특히 로마서를 강해할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 66권 중 어느 한 권만 특별하게 위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66권 모두 동일하게 위대합니다. 66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23절까지는 인간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부터 5장까지는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략 30번에 걸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룰 것입니다. 따라서 진도가 다소 빠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그분의 아들의 복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어떤 특별한 종파나 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침례교만의 복음도 아니고 장로교나 감리교나 천주교만의 복음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것들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어떤 단체에 가입했기 때문도 아니고 특별한 교회에 다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특정한 교리를 알고 있거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을 받아” 저는 성령님께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을 인도해주셨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라는 말에 앞서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이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도 종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부분을 보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딤후 1:12)

순서를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바울을 먼저 신실한 자로 여기고 그 다음에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온전히 헌신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바울은 헌신할 대상을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고 나서도 자신의 첫째 역할을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서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어야 합니다. 종이 아니면 사도인 자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의 마음 자세와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1절의 뒷부분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별(성별)과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별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별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영화를 보러 가지 않지만 모든 시각장애인이 다 성

별된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별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도 단정한 옷차림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성별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죄악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성별이 고작 그게 다라면 당신은 성별 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별이란 무엇인가를 향해 성별 되어야만 합니다. 성별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별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것이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단순히 잘못된 일만 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별(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당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죄를 짓고자 해서 우리 교회에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죄를 짓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피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별이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

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구별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만의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는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로 구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만 떠나면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 우주를 떠돌아 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이 세상으로부터만 구별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별(성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과는 구별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분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만 구별된 교회는 광야와 같아집니다. 죄는 없을지 몰라도 공허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어야 인생의 의미가 생기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별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배우는데 해야 할 것은 배우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많이 배우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아니지만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멈춘 손으로 하나님의 섬겨야 합니다. 죄를 멈춘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

야 의미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신약성경에 나온 복음은 구약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으로 인함이니 우리 열두 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나이까?”(행 26:6-8) 바울은 자신이 조상들이 소망한 것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침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교단이나 지역교회의 회원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영접기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공식도 아닙니다. 단순히 정형화된 어떤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답시고 어떤 공식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교단 신조나 공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은 모두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알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름부음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에 당신도 들어갑니까? 바울과 믿는 자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주님도 되십니까?

계속해서 3절의 뒷부분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태에 있는 몸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지만 육체가 아닌 부분은 영원 전부터 꼭 존재해 계셨습니다. 요한 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이브의 가족 옷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셨으며 미가 5장 2절에 나오는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만 마리아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신 이유는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여기서서 3절과 대조를 이루며 “**거룩함의 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

으로 오셨지만 그 외의 부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육체를 제외한 부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을 계셨을 때에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누구도 스스로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한쪽으로만 열리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전에는 누구도 죽음의 문을 열고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죽었습니다. 엘리사의 뼈를 만져서 살아난 사람도 다시 죽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전도서에 의하면 스스로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을 내어 놓거나 다시 취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대환난 때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못했건 한번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죽음으로부터 다시 돌아오실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인간 이상의 분이심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서 특정한 구절들을 몇 개 뽑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구절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 주셨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저는 이러한 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특정한 구절 몇 개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묻히시고 성경대로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러한 말은 무의미합니다. 이러한 말이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준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중요한 분이고 핵심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복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전도지에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전도지를 읽다가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전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은 전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아니 누구를 전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을 얼마나 많이 전하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떤 공식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식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어디에 가입해라, 어디에 열심히 다니라는 말은 듣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무엇을 하고, 그 무엇을 믿는다 해도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영어 킹제임스성경으로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도 계속해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 어디를 가든 믿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3장까지 나오는 복음과 6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같은 원리로 돌아갑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과거 어느 시점에 당신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은혜로 당신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과 동일한 원리가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작용했습니다. 당신은 특정한 죄를 버리기 원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은혜 가운데 당신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과 성장은 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죄에 대해 승리하기 위해 18주짜리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단 한 번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단 한 번 믿음을 행사해서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넘치도록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분을 시인하는 것은 성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내성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성적인 성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 넘치도록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린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기만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성적인 성격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증인이 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부여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당신은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내성적인 성격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과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중 무엇이 더 큰 은혜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구원받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면 증인이 되기에도 충분한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라 불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이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은혜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6-7절)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주하는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특히 내가 싫어하는 형제나 자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저 형제, 저 자매를 사랑하시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십

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대해 약간만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해 조금 만 더 자세히 알게 되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혐오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것은 엄청난 신비이고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sain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성도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많이 한 특별한 사람만이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자,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피로 저를 씻어주셨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를 성도로 만들지 못한다면 무엇이 저를 성도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능력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업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능력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똑똑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자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자녀보다 그것을 더 잘하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은 이 세상 그 어떤 아이들보다 당신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녀보다 더 나은 아이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자녀와 바꾸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해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사랑할만한 어떤 점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이가 태어난 날 아이를 처음 봤습니다. 본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밤새 똥기저귀를 만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 받을 만한 일은 못됩니다. 당신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마음이 그렇게 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을 때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신이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도 영적인 똥기저귀만을 만들어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사랑에 빠진 이유는 당신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당신이 미워하는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도 그대로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8절)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울 시대에 로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영적으로 어리거나 육신적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역교회를 섬기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영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인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이 있고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잘 해주고 비슷한 생활 수준이나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이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분열이 없을 것입니다.

잠시 로마서 5:5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

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도 주관하셔서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제는 사랑하면서 다른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제에 대해서는 염려하면서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제는 같은 관심사를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다른 형제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육신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저는 기록된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당시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사람이 그렇게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3천명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당시에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살전 1:8)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믿는 사람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이 현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9절)

저는 예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잡아 달라고 종종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만 하다 보니 저는 점점 사람들에게 대해 비판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자신의 자녀들을 비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로 인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형제 자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형제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용납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비판하고 바로잡고자 하기만 한다면 단 한 사람도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한 것들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나오지만 응답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 달라고 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없애달라는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10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기 원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까? 당신은 형제 자매들을 보려면 지역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들을 보고 싶어십니까? 바울은 형제 자매들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11절) 바울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단지 의무감에서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으면 합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까?

구절의 나머지 부분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바울은 단지 세상적인 이야기나 나누려고 형제 자매들과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것을 주고 받기 위해 형제 자매들과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12절)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곳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는 곳과 환경과 받은 교육과 출신지는 다 달라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대해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모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함께 만나게 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공통된 믿음만 가졌을 뿐 아니라 공통된 곳으로

가서 공통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빛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14-15절) 잠시 로마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빛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롬 13:8)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은 경제적인 채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당신이 감사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빛을 진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복음의 빛을 진 것입니다. 당신은 이웃 모두에게 복음의 빛을 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백 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면 잘못된 일인 것처럼 복음의 빛을 저 놓고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16절)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따로 있고, 그리스인을 위한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을 위한 복음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혹은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은 값없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구원에 있어서 당신이 할 일은 그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죄를 씻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마귀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주셨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온갖 것을 자랑합니다. 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

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절, 우리는 부름 받고 구별되었습니다. 2절, 복음은 구약성경에 약속된 것입니다. 5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7절,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성도입니다. 9절,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1절,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12절,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16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세요.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서 로마서의 서론을 살펴봤습니다. 서론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선하게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2강 인간이 죄인인 이유

1장 17절-21절

로마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점은, 인간은 어둠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모든 문제들이 그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성경이 오류가 없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저희 시대까지 보존해주시고 저희가 손에 들 수 있도록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18절에 있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의 권위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빛도 없고 이해력도 없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손에 진리를 잡고 있고, 머릿속에 진리를 알고 있고, 마음속으로 진리를 잡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교과서나 대학교나 뉴스에서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창조기사에 대해 비웃으며 비아냥거립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다만 그들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뉴스 미디어에서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미디어에서는 성경 기록을 믿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이거나 좀 이상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독교를 싫어한다고 말할 때 그는 기독교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믿지 않을 뿐입니다.

성경은 아직 진리를 모르는 자들, 진리를 찾고 있는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믿지 않고 불의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유신론자로 태어납니다.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무신론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진화론 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진화론자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진화론자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과 생각과 혼에 내장되어 있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인하고 버려야만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미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흙이나 바람이나 불이나 물이나 나무나 우상이나 형상이나 인간의 뒤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도둑질을 하고서는 숨어야 한다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심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잘못을 하고서는 숨습니

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불의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십계명의 기록 목적이나 부모가 징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진리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두셨습니다. 사제들이나, 랍비들이나, 점쟁이들이나, 무속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면에 내장된 진리를 무시하고 거절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장된 진리로부터 돌아서도록 누군가 당신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리에서부터 돌아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마음속에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기에는 별들이 너무 많으며 또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별들이 우연히 창조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새나 짐승이나 인간이나 식물이나 나무를 보면,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거나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식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창조주의 계시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조주의 계시는 인간이 창조주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창조주를 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만일 인간보다 크고, 우연보다 크고, 빅뱅보다 큰 분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연히, 사고로 존재하게 된 것이라면, 당신은 짐승처럼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분명히 보이며, 보일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음악에 대해 무지한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문학적 소양을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타고 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의 능력과 영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 혹은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신론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자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온 세상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면 깊숙한 곳에서 깨달아 아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어딘가에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화론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유신론자로 태어나서 교육을 통해 진화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의하면 그분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원한 권능과 신격까지도 알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분이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전에 계셨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인간은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셋째, 우리는 그분의 권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태양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대기의 순환보다 크신 분입니다. 인간의 군대보다 크신 분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분은 그것보다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유명한 목사와 얘기를 나누려면 줄을 서야 하지만 하나님과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부양하느라 인생을 다 바쳐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새와 짐승과 식물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원이 달려서 공급하지 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넷째, 우리는 그분의 신격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과 그들의 왕국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파라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지만 그러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그러한 분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발락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지만 그러한 분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살던 사람들이 미개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인들이 더 미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지파와 족속과 민족들은 인간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만 그런 분의 존재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더 많은 경찰과 교도소와 상담센터와 정신병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더 많은 유괴범들과 강간범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진리를 거부할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 누구와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런 마을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장에서는 그런 사회의 종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창조가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의 기반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은 진화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면 인간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인간이 우연히 생긴 존재라면 아무에게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시 19:1-5)

해가 매일 떠오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이시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

일 밤 별들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별들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질서와 아름다움과 조화를 중요시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해가 질 때마다 죽음이 선포되는 것이며 다시 해가 뜰 때마다 부활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소경이 되고자 하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창조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무엇이든 간에 태양과 달과 별보다 크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거나 발전시킨 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인간이 생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성을 만들고, 큰 터널을 파고, 긴 다리를 만들고, 높은 건물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이 당신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작은 존재다. 약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밤낮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신론자가 흔치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살인자의 수도 적었습니다. 동성연애자들도 적었습니다. 유괴범들도 적었습니다. 파탄 난 가정도 적었습니다. 무신론이 상식이 되어버리자 살인과 동성연애와 유괴와 가정파탄이 일반적인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진리를 거부하자 죄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져버렸 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 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효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 내시고 자신의 크 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하므로 하 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사 40:26) 보이는 것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분 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보 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인간과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세 상에 그 무엇도 우연히 생긴 것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 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격노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 에서 멸망하리라, 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 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 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 람을 내시는도다.”(렘 10:10-13)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 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

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시 8:1-4)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은 크시고 인간은 작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깡통 하나를 쏘아 올리느라 수천억 원을 낭비하면서 인간은 위대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무신론적 우주프로그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주일 학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물들로부터 분리시키면 인간을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인간은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인간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인간은 수없이 많은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정체성을 잃고 자신들의 근원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유신론자로 태어난 인간이 완전히 이교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하고 달(혹은 아리조나)에서 돌덩이 하나 가져와 놓고는 대단한 진보를 이룬 것처럼 우쭐거립니다. 성경을 믿으면 쓸데없이 낭비하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수천 만년 전에 원숭이들이 남자가 되었고 동시에, 정확히 같은 때에 또 다른 원숭이들인 여자가 되었다고 믿는 데에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로마서 1:20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

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변명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 (1) “하나님은 왜 전쟁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약 4:1).
- (2) “하나님께서 왜 아기들이 죽게 하시는가?” 어쩌면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 (3) “정글에 사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정글에 사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교도가 누구인지 단 한 사람이라도 이름을 대 보세요. 정글에 살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염려가 된다면 의문만 제기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핑계만 대지 말고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 주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고 양심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이는 것들, 즉 창조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 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잠시 멈추고 17절로 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3장도 보겠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요 3:19-21)

우리는 오늘 이교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다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롬 1:17). 빛에서 빛으로 나아갑니다(요 3:21). 어둠에서 어둠으로 나아갑니다(요 3:19-20).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당신이 이 지식에 반응해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보상해 주셔서 더 많은 진리와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더 많은 진리와 빛과 생명을 또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보다 많은 진리와 빛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빛에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빛을 주시고 계속 빛에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는데 그 빛을 미워하고 계속 어둠에 거하기를 원하면 결국 더 이상 빛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계속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나 가족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이 어둠 속에 있는 이유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점에 가면 누구나 쉽게 성경을 구입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나오고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구원받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닌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진리이고 정글에서도 진리입니다. 도시에서도 진리이고 시골에서도 진리입니다. 누군가에게 빛이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빛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이유는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찾을 수 있는 곳에 계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에 당신이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진리에 믿음으로 반응하자 하나님께서는 좀 더 많은 진리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또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는 좀 더 많은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빛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빛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진리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거부하자 어둠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생겨나게 된 배경입니다.

다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다시는 혼동하지 않도록 제가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시 50:23)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이제 구절의 뒷부분도 보겠습니다.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신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의 마음에 자신의 존재가 저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창조물들을 보고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더 큰 진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0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누군가의 마음에도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그저 종교일 뿐이며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에 매이기 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리와 의와 거룩함보다는 간음과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빛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분께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왜 대학생들이 짐승처럼 음행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그들이 짐승에게서부터 나온 존재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전에는 추수를 하면 그것은 누군가 자신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수확을 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누군가 선물을 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사라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오늘날은 어느 시대보다 더 큰 풍요를 누리며 사는 시대이지만 감사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불평과 불만만 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충분히 필요를 공급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전 시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더 불평하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불평과 불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같은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만족과 축복과 생명과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누구도 이러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버리면 이러한 것들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결국 불만과 불평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게 됩니다. 항상 불평만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주위 환경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vain)해지고” 허망해졌다는 것은 비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고 어두워집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정확히 같아지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도 그렇고 어둠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이며 결과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감사하지 않은 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빛을 거부함으로 인해 결국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구원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그저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무시하거나 거절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자원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기어 다니는 것들을 믿는 자들을 그것들과 같게 만드십니다.

하박국 1장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 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그들은 낚시로 그들 모두를 끌어올리고 자기들의 그물로 그들을 잡

으며 자기들의 끄는 그물로 그들을 모으고 그런 까닭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들의 끄는 그물에게 분향하나니 이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기 때문이니이다.”(합 1:14-16)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들이 사용하는 도구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인간이나 그물이나 냉장고나 프라이팬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자기 자신이나 알지 못하는 대상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44장을 보겠습니다.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그들의 증인이로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누가 신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 곧 아무것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기술자들 곧 그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서 있게 하라.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대장장이는 부집게로 숯 가운데서 일하고 쇠망치로 그것의 모양을 내며 자기 팔의 힘으로 그것을 가공하나 참으로 배가 고프면 그의 힘도 없어지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그가 활기를 잃는도다. 목수는 자기 자를 펴서 재고 줄로 그것을 표시하며 대패로 그것을 꼭 맞게 다듬고 양각기로 그것을 표시하며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고 또 자기를 위해 백향목을 베며 편백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여 그것들을 자기를 위해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강하게 하느니라. 그가 물푸레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느니라. 그러면 그 나무는 사람을 위한 뿔감이 되리니 사람이 그 나무를 취하여

자기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참으로 거기에 불을 붙여 빵을 굽기도 하는도다. 참으로 그가 신을 만들어 그것에게 경배하기도 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얹드리기도 하는도다. 또 그가 그것의 일부를 불에 태우며 그것의 일부로 고기를 삶아 먹고 고기를 굽기도 하여 자기 배를 불리며 참으로 그가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것의 나머지로 신 곧 자기의 새긴 형상을 만드느니라. 그가 거기에 얹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내 신이니 나를 건지소서,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닫으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닫으사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으므로 이르기를, 내가 그것의 일부를 불로 태우고 또 그것의 숲 위에서 참으로 빵을 굽기도 하며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그것의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리요? 내가 나무줄기에 얹드리리요? 하는 자가 없나니 그는 재를 먹으며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으므로 자기 혼을 건져 내지도 못하고 또 이르기를,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사 44:9-20)

본문에 나온 두 가지 그림을 보십시오. 인간이 있습니다. 나무를 해와서 뿔감으로 쓰고 남은 것으로는 신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신이 만든 신을 섬깁니다. 이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와서 일부로는 고기를 구워먹고 나머지로 신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이 하는 짓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놓고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무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다른 신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신으

로 인해 더욱 어리석어지고 마음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안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다.”(전 7:29)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른 곳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타락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만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놓아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법을 보았기에 나를 떠나 멀리 가고 허무한 것을 따라 걸으며 허무한 자가 되었느냐?”(렘 2:5)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들이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과 은혜와 의와 생명과 구원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든 거짓 신과 종교를 붙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무슨 잘못을 하셨기에 사람들이 떠나는지 묻고 계십니다. 만일 독자 중에 하나님을 떠난 분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그 분으로부터 멀어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같은 것을 묻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허무한 것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당신 각자의 허무한 생각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 자신의 허무한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핑계를 댑니다. 교회를 다니고 싶었지만 위선적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다닐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 인해, 꼴 보기 싫은 형제 자매들로 인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떤 교회도 다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른 형제 자매들, 비록 그들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로 인해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계 보고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회계 보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은 회계 보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상가들은 회계 보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은 따르지만 인생에 대한 회계 보고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포함하여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되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자기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그분의 법규와 그분께서 자기 조상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과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증언하신 그분의 증언을 거부하고 허무한 것을 따라가서 허무하게 되며 또 자기들 주변에 있던 이교도들을 따라갔는데 이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저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셨더라. 또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들 곧 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며 또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왕하 17:14-16)

인간은 종교를 가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경배를 드리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만족을 충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거나 고안한 신은 허무함만 줄 뿐입니다. 돈이나 스포츠나 과학이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종교를 섬겨서도 혼의 갈증을 풀어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자유겠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당신의 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 존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히 11:6)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동일합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오직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제3강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1장 22절-32절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17-21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게다가 보이는 것들, 즉 그분의 창조물들은 보이지 않는 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절은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1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인간은 허망한 것들을 상상하게 되고 마음은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며 진리라는 전제하에 로마서를 공부할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진화론입니다. 마귀는 진화론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공략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들과 살인자들과 강도들과 유괴범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회에 살게 된 것입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빛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진리와 빛을 비춰주십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특정한 부족에 대해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여러 마을 중에 어떤 특정한 마을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특정한 곳에서 직업을 얻게 되는 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많은 진리를 찾고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진리를 주시고 빛을 찾는 이들에게 더 많은 빛을 비춰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빛을 거부하는 자들은 더 이상 어떤 진리와 빛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2-32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거부한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빛을 거부한 결과 인간은 더럽고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서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바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무런 가능성 없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거부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비참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즉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삶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근본주의 교회건, 보수적인 교회건, 은사주의 교회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인간을 드높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인본주의라는 것은 원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관인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높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인간과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그걸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는 강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목사를 높이고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르치고 목사를 섬기게 만드는 것은 회중을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진리와 은혜를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인간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인간의 선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능력에 대해 얘기함으로써 인해 인간은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중심에 설 때 퇴보하게 됩니다. 성경은 시편 14편과 53편에서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 전체가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기도 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 즉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심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섬길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고 섬기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섬기려는 대상은 다른 신일 수도 있고, 다른 인간일 수도 있고, 짐승이나 물질이나 심지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크기만 다를 뿐 모두 우상숭배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이나 돌 같은 것들을 믿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오래된 돌(화석)을 믿습니다. 미개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개구리를 섬기고 문명화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개구리들이 사는 환경을 숭배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헌신해서 섬기는 대상이 있다면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물질이든, 돈이든, 섬기

는 것이 있다면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내면에 존재하는 공백을 채우기 위해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섬기는 대상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거주하는 곳이 정글이냐 도시냐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숲 속을 뛰어다니느냐 대학교 강의실에 앉아있느냐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창을 가지고 다니느냐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느냐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 섬기는 것은 외형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의 형상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한쪽에서는 우주선을 보내고 한쪽에서는 땅 속을 파고 있을 뿐, 본질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자신들이 거부한 하나님을 대체할만한 것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다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진화”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어둠이라고 부르십니다. 23절은 진화론에 대한 성경적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진화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퇴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퇴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버리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일 뿐입니다. 당신은 퇴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50년 전에는 지금처럼 험벗은 것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사

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50년 전에는 지금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진화하는 게 아니라 퇴화하고 있습니다.

퇴화의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처음에는 인간처럼 행동하다가 그 다음에는 새처럼 행동하고, 그 다음에는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그 다음에는 기어 다니는 것들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 모든 것들보다 못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퇴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시편 135편을 보겠습니다.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숨도 없나니”(시 135:15-17)

하나님께서서는 우상들이 눈멀었으며 귀먹었고 말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십니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18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단순히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당신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거나 신뢰하면, 당신은 눈멀었으며 귀먹었고 말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화론과 인본주의에 영향을 받을수록, 성경적 관점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

상승배자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상승배자들을 경고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분이 상하는 것보다 인간의 기분이 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만일 둘 중 한쪽의 마음이 상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상승배하는 자들은 소경입니다. 상승배하는 자들은 귀머거리입니다. 상승배하는 자들은 병어리입니다. 상승배하는 자들은 송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승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상승배하는 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상이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두 세 사람의 증언으로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의 내면에 있던 증인이 깨어나게 됩니다. 당신이 복음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던 진리, 즉 참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 그들이 여기에서 행하는 사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보라, 하시기에 내가 들어가 보니, 보라, 온갖 형태의 기어 다니는 것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우상이 벽의 사방에 그려져 있고”(겔 8:9-10)

이것은 마치 현대의 박물관이나 극장이나 TV 화면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높여야 할 분을 높이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경배하며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처럼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가 바로 짐승과 같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경배하기 때문에 짐승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따라가는 것, 추구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과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것들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짐승을 따라 가다 보면 약육강식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희생과 사랑과 은혜와 친절과 진리와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기준과 목표는 매우 저속합니다. 도덕적 기준을 잃어버린 채 물질과 육신적인 쾌락만을 쫓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그러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사 40:18)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양을 새겨 만들거나 그림으로 그릴 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새긴 형상을 녹이며 금세공업자는 그것을 펴서 금을 입히고 은 목걸이를 부어 만드는도다. 너무 가난해서 봉헌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아니할 나무를 택하나니 곧 자기를 위하여 숨씨 좋은 기술자를 구해 새긴 형상 즉 움직이지 못할 형상을 예비하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를

이 세워질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통치자들을 없애시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나니 참으로 그들은 심기지도 못하고 참으로 그들은 뿌려지지도 못하며 참으로 그들의 줄기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리로다. 또 그분께서 그들 위에 바람을 부시면 그들이 마를 것이요, 회오리바람이 지푸라기를 제거하듯 그들을 제거하리로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효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 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19-26절)

창조물이 아닌 창조자를 봐야 합니다. 로마서 1장과 이사야서 40장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왜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원하는 것일까요? 별들은 인간을 지켜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인간을 심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나무나 물에게 회개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심판할 창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자가 없으면 아무도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자가 존재한다면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 마음도 전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귀먹고 눈멀고 말할 수 없는 죽은 우상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돌이나 나

무나 금속으로 만든 형상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인간이 마음대로 옮길 수 있고 상자에 집어넣을 수도 있으며 불로 태우거나 던져버리거나 원하는 어떤 짓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욱되게 하셨으니”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라고 하고 26절에서는 “이런 까닭에” 라고 합니다.

원인(까닭)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존 칼빈의 철학이 아닌 성경 교리를 따르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원인과 결과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 예정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에 대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원인입니다. 결과란 무엇입니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내주사(버리사, Wherefore God also gave them up)” 여기서 핵심 단어는 “께서도(also)” 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는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나가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네가 원하지 않으면 네 인생에 관여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는 성

경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읽지 말거라. 고치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거라. 변개시키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원인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었거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카이사르를 원합니다. 바라바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아니라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요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카스트로나 부시나 클린턴이나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사람들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불치병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전쟁이나 살인이나 강간이나 유괴나 아동학대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자기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믿는 것, 즉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주먹이든 자신의 신념이든, 그것을 원망해야 합니다.

다시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24-25절)

구원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에게 사실인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기를 원할 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로마서 5, 6, 7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도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죄를 짓고자 한다면 결국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하기보다 인생을 망쳐버리려고 한다면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지옥에 가고 싶다고 하면 지옥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육신적이 되고 싶고, 세속적인 되고 싶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물러 서시어 당신이 모든 것을 망치도록 두실 것입니다.

인간은 부정함을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부정함에 내 버려 두셨습니다. 인간은 짐승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50년 전에는 문란한 삶을 사는 여자는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숙한 삶을 사는 여자가 이상한 취급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진화”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몸은 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는(우리의 혼은)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사는 것은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몸을 욕되

게 하는 것은 집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문란한 삶을 사는 것은 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문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문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각자의 기준대로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욕되게 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를 음행과 간음과 더러움에서 지켜줍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 일 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26-27절)

죄는 누구에게도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재미있어 보이고 흥미 있어 보이는지와 상관없이 언젠가는 곧 지루해질 것입니다. 더 큰 자극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 죄를 지었더니 만족되더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더 큰 자극에 목말라합니다. 죄는 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타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동성연애는 진화가 아닌 퇴화입니다. 짐승도 동성연애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종족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서는 이 세상을 인간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 두 명의 남자나 두 명의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동성연애가 만연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무너져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동성연애가 사회를 무너뜨린다는 게 아니라 무너진 사회의 증거가 바로 동성연애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성경은 동성연애를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상관없이 성경은 동성연애를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동성연애를 할 수밖에 없도록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동성연애자로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곧 바르게, 정상적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생각과 마음과 인생에서 하나님을 거부해 버리면 결국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기에다 흉한 짓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체기관을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도 공략하려고 합니다. 1970년대 후반에 디즈니에서는 일년 중 어느 한 날을 정해서 플로리다에 사는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디즈니월드에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에는 동성연애자들의 날을 지정해서 디즈니월드 내에서 퍼레이드를 하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날과 동성연애자들의 날이 같은 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마귀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서는 얼마나 신사적인 분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자들을 억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원할 때에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며, 당신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만 성령님께서서는 당신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다닐 필요도 없고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바르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신사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젠가 이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연애만이 특별히 사악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 여러 가지 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는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지옥에 던져지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만일 이 중에 하나의 죄라도 지은 적이 있다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목록에 있는 어떤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다른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버림받은 상태로 내어두신다

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게 됩니다.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30-31절)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꼭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TV나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에 열거된 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범하는 것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짓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며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죄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그분 앞에서 언젠가 자신이 회계 보고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 전에는 죄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서는 사회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생의 결과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29절부터 언급하고 있는 죄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음행은 혼인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 중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1%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들도 더 이상 음행을 죄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더 이상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TV와 잡지와 인터넷에서도 더 이상 이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기만 하면 된

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지 않아도 책임질 수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는 우리 사회의 특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탐욕은 모든 광고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광고하는 물건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탐욕과 정욕을 자극하는 게 바로 광고의 목적입니다. 자신들이 광고하는 것을 구매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속입니다. 악의와 시기는 인간 관계를 망쳐버리는 것들입니다. 교회를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논쟁도 죄입니다. 하지만 TV에서는 논쟁을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여흥의 소재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 싸움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을 보고 재미를 느낍니다. 이것은 과거에 사람들이 원형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거부한 인간들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상태로 타락한 것입니다.

요즘은 자신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과거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비교적 예의 바르게 거부했습니다. 요즘처럼 화를 내거나 조롱하거나 욕을 하지는 않았습다. 하지만 요즘은 자신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드러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애정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것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보다 연예인을 더 사랑합니다. 할아버지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합니다.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고 부

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고, 애정과 긍휼이 없는 이러한 모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이 언젠가 심판 받게 될 것이라는 지식과 확신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죽음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회계 보고를 할 필요도 없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무의식 상태에서도 끝까지 생명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히 9:27).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에 관해 하나님께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도록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고, 부러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빛과 진리를 거부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로 TV와 잡지와 인터넷과 영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왜 가십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을 보는지 아십니까? 쓰레기 같은 프

로그래에 나오는 사람처럼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회와 환경과 돈이 없어서 죄를 짓지 못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제공되면 자신도 유명인들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지금도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잘났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구원은 돈이나 환경이나 사회나 국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돈이 많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저보다 가난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나쁜 환경에 살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비취주시는 빛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빛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하지만 어둠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부하고 그 빛으로부터 돌아서면 완전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오늘날 참된 회심이 거의 사라져 버린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복음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한 사실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가 알려주겠습니까? TV나 잡지가 알려주겠습니까? 누군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구원자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몸을 내버려두십니다. 26절에서는 혼을 내버려두십니다. 28절에서는 영을 내버려두십니다. 몸으로 지은 죄는 혼과 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디에 가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누구를 사귀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한 일, 몸이 경험한 것을 통해 혼과 영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 주신 것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살인자나 강도나 도둑이나 유괴범이나 강

간범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부자나 권력자나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그 누구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파티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4강 변명할 수 없는 이유

2장 1절-11절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하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네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가 네 강박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

로 값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노와 진노로 값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롬 2:1-1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출판사나 편집자가 넣은 부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부록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장(chapter)이나 절(verse)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장이나 절의 구분으로 인해 우리가 성경을 더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인용하고 암송할 수 있습니다. 장과 절의 구분으로 인해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유익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로마서 2장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2장 1-11절까지의 내용을 잘못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단 앞에 2장이라는 표시가 있음으로 인해 1장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앞에 나온 말과 뒤에 나올 말을 논리적으로 이어

주는 연결고리입니다. 3절에서도 “그런 일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일들을 말하는 걸까요? 2장에서 말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1장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2장 1-11절을 1장 18-32절과 분리하면 성경의 문맥과 상관없는 사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맥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18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장 19절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2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들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회계 보고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교육을 통해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러한 내적 지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재적 진리를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대면하게 되고 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서는 인간이 변명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1장에서 언급했던 진리를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방식입니다. 좋은 글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교사들은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

다. 반복은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혼이 걸린 문제와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성령님께서서는 지금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모든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대상입니다. 흑인, 백인, 황인, 모두 포함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논쟁하려 듭니다. “정글에 있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혼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들먹이며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성경이 정글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계시를 그들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거부하는 자들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난 후 죄를 짓고 그 죄의 길로 걸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해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도둑질이든, 음행이든, 간음이든, 험담이든, 비방이든, 거짓말이든, 계속 동일한 죄를 반복하다 보면 양심이 완전히 무뎌지게 되지만, 처음에는 그러한 짓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진리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결국 인간은 양심의 가책까지도 완전히 무시하고 본격적인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와 양심의 가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당신은 죄의 길에 첫발을 내 디딘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완고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주님께서 특별한 진리를 계시해 주시면, 마음과 양심이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인간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으며,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하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네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먼저 저 자신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악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같은 죄를 짓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

다고 정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 바르게 판단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 판단하고 나서 정글에 사는 사람에 대해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하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네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같은 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장에 나온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롬 1:29) 재판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죄를 재판하면서 사실은 자신도 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단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짓을 합니다. 자신도 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신문이나 뉴스에서 같은 죄를 짓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지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일들”도 1장에 열거된 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목록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짓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3가지 죄를 범한다면, 혹은 10가지 죄 중에 2가지만 범한다면, 그렇다면 목록에 있는 다른 죄를 지은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를 하지 않았다 해도 간음을 하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죄를 지으면 죄인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신에 대해 먼저 판단하고 나서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밀림에 살든, 정글에 살든,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 천년 전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 누군가 그것을 마셨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항상 자신보다 더 많은,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자기는 그들에 비하면 그저 작은 죄를 지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변명거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자신은 믿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물으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 받았느냐고 물으면 구원받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자기 친척 중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완전 도둑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변명이 될 수 없을까요? 로마서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목록에 나온 죄 중에 다른 사람들이 범한 것은 처벌하고 자신이 범한 것은 용서해 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난을 하는 것 자체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안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당신 자신은 어쩌냐고 묻는 게 바로 로마서 2장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자신을 먼저 판단하는 사람은 없

으며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 여자가 그런 짓을 한 게 정말 사실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그것을 변명거리로 삼습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대해 험담을 하면서 자신들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죄를 지어놓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자신만은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같은 죄를 지은 두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 사람은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지만 자신은 용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걸려도 나는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마약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모든 마약쟁이들은 걸려도 자신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주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모든 음주운전자들은 걸려도 자신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도둑놈들이 다 잡혀도 자신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생각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니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은 로마서 1장의 연결 선상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지켜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다는 경찰이나 법원은 속이기 쉽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행동이 바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아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숨기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죄를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심지어 퍼레이드(게이 퍼레이드)를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죄를 부끄러워했지만 나중에는 토크쇼에 나와서 자랑하는 단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 경고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미리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며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인간의 마음은 둘 중 한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견하는 걸 원치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영적 성장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선하시고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즉각 처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사고도 나지 않고 경찰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속이는 마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봐,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야.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잖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관대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지금 당장 처벌하지 않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위협해서 회개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다. 하나님은 네가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분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참아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긍휼이 많으시고 친절하신 분이기에 때문이다.”

당신은 지옥에 가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복음에 반응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대신 죽어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사실도 알려주십니다. 당신을 회개하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당신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거절했다가 다시 받아들인 분들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유일하게 진실한 친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까? 왜 나는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까?” 탕자가 왜 집으로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집이 돼지우리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옥보다 하늘나라가 낫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네가 네 강박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쏟아 올리는도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다(revelation of the righteous judgment)는 것은 그것이 계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자신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구원받을 기회도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받도록 창조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에 대한 계시를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거부한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계시를 주십니다. 죄가 파괴적이고 고통을 주고 죽음을 초래하고 혼을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죄에 대해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죄에 대해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 2:1-2)

예수님은 저의 변호인이십니다. 그분의 상처와 피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위해 부르짖으며 저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 자신의 구멍 난 손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저의 것입니다. 저는 그를 구속했고, 그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었으며, 저의 피로 그의 죄를 모두 덮어 주었고, 그의 죄로 인해 제가 죽었습니다. 저로 인해 이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입을 열어 단 한 마디도 저의 죄에 대해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에 대해 변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더러운 겔레와 같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인 이사야는 하나님을 직접 봤을 때 자신에게 화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이 큰 흰 왕좌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계 20:11-12)

그날에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곳도 없고, 앉아서 쉴 곳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없이 고통당해야 합니다.

이제 질문에 답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주제를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책자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원칙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요 1:5) 로마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빛과 진리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 빛과 진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빛을 비춰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진

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도 계속 더 큰 빛과 진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복음이 없는 아마존 정글에 1979년이 되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곳에 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비취주신 빛을 받아들이고 더 큰 빛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진리를 주시기 위해 선교사들에게 특정한 지역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이 멸망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멸망하도록 두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선행을 통해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거부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찢어버린 전도지를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핑계를 대며 교회에 나오기 싫다고 할 때 당신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기 싫다고 하는 복음 설교를 당신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한 성경을 당신은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당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부할 때 당신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과 진리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빛과 진리에 반드시 반응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을 다시 잘 보세요.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더니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을 찾았더니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셨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광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얻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른 것입니다.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은 나무나 돌로 만든 신을 참된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시자가 죽은 종교를 참된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지 아니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훔쳤습니다. 집에서 훔친 플레이어를 작동해 보니 설교가 나왔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아서 다시 플레이어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갔고 지금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도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우편물 중에 미국에서 온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몰래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열어 보니 카세트가 있었습니다. 팝송일 거라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 보니 설교였습니다. 그는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카세트를 다시 포장해서 원래의 수령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도 도둑이었지만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둑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인 적은 없습니까?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화를 낸 적은 없습니까? 게으름을 피운 적은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했습니다. 진리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책 안에 모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죄를 받는 이유는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병 고침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빈 무덤을 보

고도 그분을 거부했기 때문에 징죄를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이 배운 적이 타국어로 설교하는 것을 듣고도 거부했기 때문에 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자신들의 죄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징죄 받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성경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정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창세전부터 지옥에 가기로 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누군가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진리를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모두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지만 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마음속으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즐겁게 듣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보자마자 욕하며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적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인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국가나 도시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속한 사회나 문화나 종교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진리와 빛을 거부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지금 이 곳에 있는지 아십니까? 진리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빛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인가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렇게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빠서 복음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TV에서 드라마를 볼 시간은 있습니다. 사실은 바쁜 게 아니라 복음이 싫은 것입니다. 할 일이 많아서 복음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냐고 물으면 개인적인 것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사실 아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와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진리와 빛이 전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보다 불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닌 불의에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예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9-11절)

성경은 악을 행하는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행위는 구원자께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사람과 읽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과 쫓아내 버리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 중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선한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선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취주시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 빛도 받을 수 없습니다. 빛을 거부한 자들이 가게 될 곳은 바깥 어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관대하신 분입니다. 다만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구원하는 일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갑니다. 빛을 원한 사람은 빛으로 충만한 곳에 가고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원한 사람은 어둠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지만 자신의 죄 가운데 죽고자 하는 사람은 그대로 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서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친절하시고 긍휼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선교사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곳에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독일로, 어떤 사람은 스리랑카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걸까요? 왜 꼭 그 지역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곳에 누군가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누군가 당신에게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해준 것일까요? 왜 다른 동료도 많은데 하필 당신을 교회로 초대한 것일까요? 당신은 왜 전도지를 그냥 찢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저는 전도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찢고 심지어 그 위에 침을 뱉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와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 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러 교회에 가지 않고 술집으로 가는 것일까요?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빛을 거부하며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어린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가 죄를 멈추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죄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막아서는 양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죄를 한 번 거절한 사람은 쉽게 두 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죄에게 한 번 패배한 사람은 쉽게 두 번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경고하고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빛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진리와 빛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

다. 그리고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어떻게 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어떻게 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5강 말씀을 아는 자들에 대한 정죄

2장 12절-29절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문맥은 1장 18절부터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롬 1:18-20)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지식은 바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가 계시며 모든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배운 둘째 진리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 경고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이미 마음속에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를 정죄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도 같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죄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죄는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입은 상처는 나에게 전혀 고통을 주지 않고 오직 내가 입은 상처만 나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죄에는 관대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지만 2장에서 절반 이상은 로마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당신은 당신이 가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판단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심판 받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율법을 받은 적이 없거나 율법 아래 있어본 적이 없다면, 율법을 읽어본 적이 없거나,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과 진리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13절부터 15절까지는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12절에 대한 보충설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대로 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14-15절)

십계명을 들어보지 못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에 살던 어떤 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대언자도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법을 만듭니다. 절도와 살인에 관한 법이나 결혼이나 혼인 관계에 관한 법을 만듭니다. 그들은 어디서 이런 것을 알게 되어 자신들의 법으로 만든 것일까요? 그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에 기록해 두신 내적 계시에 의해 이러한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의 양심에 주어진 계시를 통해 창조자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이루어지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 당신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이루어지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것, 당신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 알고 있는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본 것을 심판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 혼자 생각한 것, 아무도 모르는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도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뒤에 감추어진, 오직 당신만 알고 있던 의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긴 바로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준으로 저를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를 기준으로 당신을 심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행을 많이 한 10%의 사람들은 용서해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위 50%에 들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심판하겠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심판하겠다고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순종적이지 않다면, 당신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부족함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모든 종교가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하메드를 기준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석가모니를 기준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교황이나 사제나 랍비나 목사를 기준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의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거룩한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기준을 제시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받은 빛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주신 진리와 빛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100%가 아니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에게 직접 말씀 하셨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을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분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인이나 러시아 인이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은 이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유대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니느웨 사람을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게 아니라 유대인인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네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21-23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고만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를 알고 그 한 가지에 순종하는 게 오백 개를 알고 하나만 순종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에 관해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개인적인 교제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누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해도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고 자랑하는 진리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독립침례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성경을 알고 있다고, 킹제임스성경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만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성경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실행 없는 정보는 정죄만 더 키울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구절과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심판만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진리를 알려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서는 심판 날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당신은 그날에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것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심판 날에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많은 빛을 받았지만 그 빛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빛을 받았지만 그 빛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영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모독이라는 것은 욕이 아니라 존경 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자 이방인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묻습니

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너희처럼 의롭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만일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 같은 분이려면, 하나님은 그냥 못되먹은 본인저 같은데 말이야.” 이게 바로 2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을 존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밝히고 여자나 밝히는 부정직한 목사가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런 목사로 인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지 않을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까요?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식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이 마음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더욱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니스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것은 정말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요나의 인생을 지켜보았다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바빌론인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빌론인들이 북왕국을 점령하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과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들의 음악을 똑같이 사용하고, 자신들의 도덕적 기준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입는 옷보다 더 선정적인 옷을 입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똑같은 삶을 방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엉터리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저들은 진짜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음과 음행과 거짓말과 도둑질과 속임수를 반대하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탐욕과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할

까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었을까요? 바빌론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한 가지를 타협할 때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한 가지 핑계 거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네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받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의지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지로 받은 것도 아닌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하는 문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지 않고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외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외형을 갖췄어도 내면으로부터 거기에 맞는 게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

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킹제임스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킹제임스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제가 킹제임스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바른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변개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른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언제인가요? 성경은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시 19:1). 당신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본 게 언제입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글에 사는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낮과 밤과 별들과 하늘과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인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28-29절)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면 “주님께서는 잘 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마 25:21).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세요.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지만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지 말고 삶에 적용해보세요.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기록된 법에 따라 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삶에 적용

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받은 말씀대로 살았는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들은 당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밀림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받은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시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재능이건 지식이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세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6강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심판

3장 1절-19절

오늘은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은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인간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양심과 마음과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까지도 계시해 주셨는데 인간이 의도적으로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많은 빛을 받은 유대인이나 적은 빛을 받은 이방인이나 모두 자신이 받은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나?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많은 빛을 받았음에도 그것들을 모두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적은 빛을 받은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나은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1절의 질문에 대해 2절이 답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그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거할 땅을 약속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민족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나은 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나은 점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나은 점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무엇을 공격할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학생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을 빛이 아닌 어둠으로 인도하는 자들의 가장 큰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구약성경에서 유대인들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게, 왕국이나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소유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이 세상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의 마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고 깨끗하게 씻겼으며 기쁜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무시하든 상관없이 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불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모두 예레미야의 말대로 끌려갔습니다. 노아는 큰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십일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룯은 소돔과 고모라에 불덩이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불에 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성경을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

다. 오히려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믿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입니다.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4절은 3절에 나온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기초로 삼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개인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기준이 될 수 없고 당신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과거에 살았거나 지금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게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무엇인가를 말했거나 말하고 있거나 말하게 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당신의 머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의 말이 다르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단 헌법이 다르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옳으십니다. 기독교 교단 중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탄생을 거부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탄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 것입니다. 만일 어떤 종교가 지옥과 심판이 거짓이라고 주

장하고 성경에는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며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부모님이나 가장 친한 친구나 당신 자신이 그것을 부인한다 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문제는 그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러한 믿음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 소년은 좋은 교회에 다녔고 담배, 마약, 로큰롤을 금지하는 좋은 신학교에 가서 사역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 소년이 목사가 되기 위해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졸업할 때쯤에는 그러한 믿음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주셨을 때에는 완벽했지만 현재는 원본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완벽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소년은 4년 동안 4천만원을 들여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적인 신학교보다 자유주의 신학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교는 최소한 자신들이 믿는 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보수주의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뒤

로는 그러한 말씀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합니다. 결국 보수주의자나 자유주의자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인데 한쪽(자유주의자)은 드러내 놓고 말하고 다른 쪽(보수주의자)은 슬며시 말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실을 부모들이나 교회의 성도들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사실을 집이나 교회에서는 말하지 말라고 신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학교는 학생들의 성경에 대한 믿음을 망쳐버리고, 그 결과 교회도 성경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대학에서 만든 홈 스쿨 자료에 대해 광고하면서 자신들은 킹제임스성경을 믿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던 동일한 사람이 대학원 토론 수업을 인도하는 다른 비디오 테이프에서는 킹제임스성경은 무오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모순적인 주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아예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일반 대학교에 자녀가 진학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버릴 수 있는 것처럼 신학교에 진학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심지어 킹제임스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광고할 때는 킹제임스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리스어 수업에서는 킹제임스성경을 공격하는 그리스어 사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킹제임스성경이 완벽하다는 학생들의 믿음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 부패한 그리스어 사전을 사용하면 결국 킹제임스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짓는 죄의 정의를 바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황이건 신부건 사제건 목사건 랍비건 신학자이건 상관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다른 것이 상충되면 항상 성경을 붙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옳다고 하셨다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고 하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모두 그것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게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배울 때 처음으로 암송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한다면 나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옳지 않은 거라고 배웠습니다. 항상 성경을 믿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배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방법이나 교리나 이론을 도입하려고 할 때 항상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 봐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의 최종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당신이 결혼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절도나 동성연애에 대해 무엇이라 생각하든, 당신의 의견이 제 의견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제 의견이 당신의

것보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교단에서는 무엇을 믿을지 투표를 합니다. 그들이 왜 무엇을 믿을지 투표를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투표결과가 어떻든, 다수가 무엇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옳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생각을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따를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끊임없는 논쟁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곳에서는 모든 논쟁이 끝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행위가 없이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엡 2:8-9).” 이러면 모든 논쟁은 끝납니다.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최종권위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든 자유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르면 항상 성경이 옳다고 믿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경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잠언 30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잠 30:5) 순수하다는 것은 어떠한 오류나 불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간의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읽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약간의 독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95%가 옳다 해도 5%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 95%는 아내의 손을 잡고 다니지만 5%는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다니겠다고 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내에게 100% 신실하지 않다면 그것은 전혀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100%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 30:6)

로마서 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배운 적이 없다면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보통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 누구도 예수님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기록된 문서가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고 싶지만 성경은 믿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성경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으면서 성경은 믿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 12:47-48)

잠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심판 날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논쟁을 벌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며 주님과 논쟁을 하려고 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석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쪽에 아들 하나님께서 앉아계십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죽어주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지옥에 가야만 하는 사람이 간구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성경 기록이 모두 거짓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심판의 기준을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이 아닌 기록된 말씀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감정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미워서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재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법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감정대로 재판을 합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모두 이런 식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내키는 대로 결정합니다. 교회나 성경을 선택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이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반대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로서 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의 임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이게 목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구원받고 나서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감정대로 심판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면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고 다른 사람은 상급을 받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대로 심판 받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면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할 일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당신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 어다. 이것은 기록된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는지 자동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심판 날에는 하나님이 옳았다는 게, 성경이 옳았다는 게 드러날 것입니다.

과학 교과서는 매년 바뀌야 하지만 성경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 교과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새로 나오는 과학 교과서입니다. 심리학 교과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새로 나오는 심리학 교과서입니다. 모든 교과서가 그렇습니다.

이천 년이나 된 책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3천 5백년 전에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병든 사람의 몸을 만지면 만진 사람의 손에도 병균이 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나 상처나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면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186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이러한 사실이 기록된 성경을 알았더라면 더 빠른 과학적 진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2천 7백년 전에 기록된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공중에 달아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지구가 거북이의 등 위에 놓여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공중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3천년 전에 기록된 전도서 1장에서는 대기의 순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구가 둥글다든지,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단지 빛을 반사하고 있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기 적어도 이삼 천년 전에 성경에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과학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다르면 항상 성경을 붙드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과학책은 언젠가 성경에 맞추어 개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나?”(5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 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6-8절)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질문을 기록하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가지 논쟁은 이것입니다. 첫째, 만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고 인간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전혀 제공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러한 의문은 정당했을 것입니다. 만일 전적으로 공짜로 나누어주시는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라 인간이 불의한 것이 됩니다.

둘째 문제는, 성경대로 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큰 교회가 되었다면 결과가 너무 좋은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로마서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 놓고 결과가 좋다는 이유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방법이 좋지 않으면 결과도 결코 좋을 수 없습니

다. 방법이 좋지 않은데도 결과가 좋아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에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온 날이 심판날이 아닙니다. 많은 헌금이 들어온 날이 심판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누가 자신을 사랑했는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누가 성경대로 살았는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성경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그 날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좋은 건물에서 모이느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 앞에 서서 심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가?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을 최종권위로 삼는 사람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저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만일 당신도 성경을 최종권위로 붙들고 있다면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저도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모든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록된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10절)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두 이 말씀에 동의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

내나 남편이나 친구, 혹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의롭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지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도 의로운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인생도 성경과 비교하면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서 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11절)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의 간증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간증은 이런 식입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 채 살다가 예수님을 찾았고 그분께 나아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장 동료들 보내주셔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무엇을 깨닫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길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신

이 그분을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 계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은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 당신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며 부르고 계셨습니다. 전도지를 보내주시고, 전도책자를 보내주시고, 복음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며 당신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놓고는 그분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주님을 찾기는 했지만 그것은 마치 다섯 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와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아이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커튼 뒤에 숨어서 “나 여기 숨었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정말 숨으려고 했다면 아이가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누가 누구를 찾아왔습니다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들 가운데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온 세상 사람들의 선행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거대한 선행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선행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무덤을 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나옵니다. 저주와 욕설

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결국 영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그 거짓말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속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독사의 독”).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므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14-16절) 사람들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수십 개의 국가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꼭 국가간의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의 끝은 구급차와 병원 침대를 거쳐 무덤입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이러한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신문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다. 모두 누군가의 불행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꿈과 소망이 파멸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뿐입니다. 과학이나 할리우드는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상처를 싸매주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17절) 종교가 있지만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평화를 달라고 폭력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18-19절)

여기서 본문을 끊기에는 오늘 성경공부가 해피엔딩이 아니라서 유감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을 보세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성경과 논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성경이 당신을 죄인이라고 하면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지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목적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므로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유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처음 세 장은 오늘날 목사들이 더 이상 설교하려고 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성경교사들도 더 이상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장을 알지 못하면 복음에 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구원받은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난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끔찍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죄를 지은 인간이 이 세상을 끔찍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인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죄가 충만해진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권위로 받아들인 인생은 즉시 최악의 인생에서 최선의 인생으로 변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제7강 율법의 목적

3장 19절-20절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19절과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 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 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처녀 탄생을 통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죄 없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부분에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혹은 국가에서는 죄가 아닌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 종교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히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지만 아무도 그분 앞에서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그분을 신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용서와 죄사함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은 존재라고 항변해야 합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거나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용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a man)” 단수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간에게는 아직 의롭게 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된다(justified)”는 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따라서 누가 그렇게 선언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제나 랍비나 이맘이나 목사가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하늘나라에 들여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의롭다고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믿어야만 합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서 그분을 믿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약 2:19). 지옥에 갇혀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도 그분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하늘나라나 지옥 어디에서도 의심하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절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늘나라에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자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저와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믿고 그 종교들이 가르치는 모든 행위를 한다 해도 그것으로 하늘나라에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구원방법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화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걸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제가 거할 집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선한 사람인 줄 아나 봐.”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선한 사람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거나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의 행위나 삶에 대한 도덕적 평가나 자부심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얻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위해 어떠한 행위도 한 게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선행을 하거나 악행을 그만두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죄를 짓지 않고 살아봐야겠다고 다짐해도 소용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죄값을 치러주어야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법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행 13:38)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그만둬야 하지만 사도들은 죄를 그만둬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들의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종교나 교단이나 교회를 통해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도 보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행 13:39)

성경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의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당신도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곳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코란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직접 기록하셔서 모하메드에게 전해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침례교회들이 교회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교회 헌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 어느 종교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하신 말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전수해 주신 종교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종교가 인간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없었다면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바로 “그 길(the way)”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the way)이요 진리(the truth)요 생명(the life)이니 나를 통하여 가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 14:6)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유대교를 통해 하늘나라로 올라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와 십계명을 통해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십계명이 율법의 전체는 아닙니다. 십계명은 단지 인간이 자신

의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예를 들어 제시한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면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막 12:30). 하지만 아무도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도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하나만 지키면 모든 계명을 지킨 것과 같은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둘째 계명도 주셨습니다.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31절).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모든 사람이 이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둘째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합니다. 저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저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반대하는 저를 사랑하는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면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웃을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할 뿐입니다. 저의 모든 행위는 제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를 구원할 수 있는 누군가를 믿어야 했으며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출 20:13). 하지만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의 한 조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단 한 시간만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 인생을 통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다니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나쁜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단체에 속했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히 7:11) 18절도 보겠습니다.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18-19절)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

신 제사장 제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단도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막도 하나였고 성전도 하나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이 고안하거나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제사장도 하나님께 반역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두 아들도 이상한 불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첫 번째 제사장도 섬기는 일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실패한 인간 제사장을 통해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아야겠다고 믿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구약시대에 드리던 희생물로는 어떠한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희생물에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첫 번째 인간 제사장(아론)도 실패했습니다. 제사장을 믿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드리는 제사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에도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분의 참된 제사장만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실패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서는 구약성경의 제사에 관해 말씀하

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히 9:9)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희생물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함으로 인해 그러한 행위로는 인간의 죄를 결코 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매년 희생물을 드려야만 했습니까? 유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시인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은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희생을 하셨고 삼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의 죄가 모두 용서되었으며, 더 이상은 어떤 희생제물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 10:1) 율법은 매년 희생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매년 반복해서 동일한 것을 해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2-4절)

성경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황소와 염소의 피를 희생물로 드려도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은 대상이 황소와 염소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짐승의 피로는 죄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당신에게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저를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죄를 지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누가 당신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누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의 중간에 서서 화해시켜야 하겠습니까? 양쪽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존재가 중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5절) “나”라는 표현과 “한 몸”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한 몸”이 있기 전에 “나”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인간의 몸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미리 존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

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7-10절)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는데, 왜 예수님께서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서는 반복해서 십자가 위에 오르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우리는 매년 어린양을 잡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는 매년 희생물을 드리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단 한 번의 희생이 모든 시대의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선행이 아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경건이나 도덕이 아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종교가 아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느 무엇도 당신의 양심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만족을 얻으려고 유흥가로 갑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된 기쁨은 찾지 못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나옵니다. 돈만 쓰고 옷만 헝클어졌을 뿐입니다. 다시 다른 술집으로 향하지만 역시 참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일주일 후에 정확히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참된 기쁨은 얻지 못합니다. 헤어스타일과 옷을 바꿔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참된 기쁨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합니다.

다른 측면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옷을 잘 차려 입고 교회에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무엇을 하라고 설교합니다. 꾸준하고 부지런하게 교회생활을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라고 합니다. 선행을 하라. 헌금을 하라. 십일조를 하라. 헌금을 하라. 선행을 하라. 헌금을 하라. 특별 헌금을 하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하지만 누가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 답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겨놓고도 아직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교회와 목사에게 갖다 바치고도 마음의 평안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에는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당신이 행한 선행이나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입니다. 종교는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의도 결코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도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 2:20-21)

하나님께서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일 누군가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가 불치의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그 친구를 고칠 수 있는 완벽한 치료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 약으로 친구를 고쳐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친구가 당신을 믿지 못해서 당신의 약을 거부한다면 얼마나 안타가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데 단지 믿지 않으므로 값없이 주시는 죄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를 먹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가운 일이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든 선행을 하는 것이든,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로는 이미 지은 죄를 없앨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것을 지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는 매우 쉬운 길이 있는데,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과 율법은 서로 모순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갈 3:21)

만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율법 조문이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 대속은 헛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단 하나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몇 가지 명령을 받았었는지 아십니까? 아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백만 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단 하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한 가지를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22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은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누구든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이 두 가지를 믿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매우 사랑하셔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인간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막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이러한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행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값비싼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헌금할 돈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실은 믿을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스스로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이러한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으면 구원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1800년대 말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세계종교 회의가 열렸을 때,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종교가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자랑했습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한 복음주의자가 자기가 발언할 차례가 되자 셰익스피어를 인용하며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이 손을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모인 종교지도자들 중 단 한 사람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지도자가 일어나서 무엇 무엇을 하면 된다고 하자,

그 복음전도자는 다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손은 깨끗해집니까?”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교는 죄의 완전한 용서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는지 알만큼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계속 용서받은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행 16:31). 그래서 성경은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행 4:12). 이게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문제를 푸는 단순한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8강 하나님의 의

3장 21절-24절

본문은 로마서 3장입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3장 20절까지는 인간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왜 죄인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매우 아름다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전과 후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다시 로마서 3:19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3장 18절까지의 요약입니다. 20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것은 3장 19절까지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성경과 누군가 다른 주장을 한다면 항상 성경을 붙드는 게 안전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모든 인간은 19절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20절에서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어떤 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의보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늘나라를 눈 감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밖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인간이 어떤 행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선행이나 업적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업적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나 세례나 종교나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

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진리를 특정한 사람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인간 정부가 서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을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단 한번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믿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린양의 피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봤기 때문입니까? 여리고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지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구약시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히 11장).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이상한 불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과 관련되어서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세대는 자신들이 그것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

지 않았기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율법 시대에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야만 한다는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도 그러한 사실을 증언하기는 했지만 아무도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떻게 지옥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낙원으로 갔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은 강도는 지옥이 아닌 낙원에 어떻게 갈 수 있었습니까?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낙원에 간 것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지옥이 아닌 낙원으로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낙원으로 갔습니다(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님에 주의-역주). 십자가 대속 이전에 니고테모도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대속 이전에 침례자 요한도 세상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서서는 병든 사람들에게 “아들아, 네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걸까요? 율법에 의하면 그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의 질병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병들고 연약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증거였습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도 믿음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

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사 53:5) 이것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든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제도를 주신 이유가 정말 그것을 통해 구원받으라는 의도에서였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도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벨과 그의 헌물이 받아들여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성도들이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신약시대에도 신약성경을 보고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 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벧전 1:9-12)

대언자들이 기록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

니다. 그들이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늘나라에 갈 만큼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죄를 위한 어떤 희생물도 없습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다윗은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살인교사죄입니다. 이 죄를 위한 어떠한 희생물도 없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사형에 해당하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대언자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죄를 위한 희생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 주소서.” (시 51:1) 다윗은 주님의 율법에 따라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자(사랑과 친절)하심에 따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해도 자신의 죄를 지워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주님의 긍휼에 따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2-3절)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4절) 교회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율법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로마서 3:4 말씀입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솔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 주소서. 오 하나님이며,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오 하나님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이며,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5-15절)

이제 다음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16절) 신약성경이 단 한 줄도 기록되기 수백 년 전에 이 사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계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을 때, 죽은 동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진리는 신약성경의 어디에 나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17절)

십자가 대속 이전에,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까?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긍휼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구약시대에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죄인이라

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온다면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이다.”(18절)

당신은 시편 51편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하나님께 전혀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저도 의롭지 못하고 제가 드리는 헌물도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과 친절과 긍휼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면,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은혜로 저를 씻어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희생물을 가지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의로운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물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 사람이 희생물을 가지고 나아와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비로써 그 경배가 받아들여지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해 의롭게 되지도 않은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나아와서 경배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예물과 경배도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에 기록된 복음이며, 구약성도들이 구원받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에 기록된 신약성경을 기준으로 신약 교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신약 교리 중에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서 인용한 것도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시편 32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시 32:1-5)

이것은 시편 51편과 정확히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단도 없고 희생물도 없는데 죄 사함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없고 희생 제물도 없고 율법도 없고 십계명도 없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께서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리니 참으로 큰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이다.”(6절) 이것은 로마서 10장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통해 구원받는다신 신약 성경의 구원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리의 기본 구조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구원(죄 사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구약시대에도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시대에도 주님의 사랑과 친절과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어 진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사는 누구건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양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4천년간 이 세상에서 인간이 실패하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 “이제 어찌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을까요? 그러자 천사장이 와서 “어린양을 통한 대속이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이런 식으로 급조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어린양을 통한 대속은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나, 가인과 아벨이나,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유월절 밤에 일어났던 일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던 바로 그 일에 대한 모형과 상징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최종희생물이 되신다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한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산에서 십계명의 둘째 원본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원본의 내용을 아직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대언자로 믿는다고 합니다. 다만 바르게 번역된 부분에 한해서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결국 성경이 바르게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교 졸업생들이 하는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젠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이며,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정확히 보존하시고 번역하실 수 있는가입니다.

모세는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34장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 판 두 개를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 판 두 개를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 올라가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출 34:4-6)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는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먼저 율법의 저자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이 긍휼이 많고 은혜롭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번째로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율법을 손에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율법에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출 20:3).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무엇을 봤습니까? 백성들이 다른 신을 따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율법에는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출 20:4).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봤습니까? 새겨 만든 형상을 봤습니다. 율법에는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출 20:14).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봤습니까? 사람들이 다른 신을 따르며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을 봤습니다. 율법에는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출 20:16). 그런데 아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출 32:3-4, 24).

모세는 십계명을 받은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모세가 돌판을 깨드리기 전에 이미 깨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듣기도 전에 이미 십계명을 깬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너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시 율법을 주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 나는 긍휼이 많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너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래 참으시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바로 그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34:7을 보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와 불법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죽어서 바로 하늘나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죄를 용서받기는 했지만 아직 깨끗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짓값을 치러주기 전에는 인간의 범죄기록을 지워버리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르가 죽었을 때,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었을 때도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로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로 인간의 죄를 씻어주셨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하시고 자신의 피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자 비로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4:8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후로는 낙원은 더 이상 지하세계에 있지 않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언자들이 무엇이라고 증언했습니까? 출애굽기는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시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구약성도들은 이미 용서받은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즉각적인 깨끗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입니다(요일 1:7). 이점은 구약 성도들과 다르지만 어떠한 행위도 없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모두 거짓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받기 전에는 우리의 의는 모두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나서 그분께 예물이든 희생물이든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옳아야 당신의 예물도 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시고 나서 그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나서야 그의 예물도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네, 하지만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나서 나중에 그의 행위도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창 15:6). 그리고 나서 22장에서 그의 행위도 의롭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가 의롭게 되고 나서 그의 헌물도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후에 그의 헌물도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의 헌물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성경도 신약성경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몸을 살아있는 헌물로 드려야 합니다. 찬양의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은 전부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자체는 의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했다면 그 행위는 의로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성경은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를 믿으려면 “모든 자”를 “선택된 모든 자”라고 성경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명기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자”의 의미는 “모든 자”입니다. 그리스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산스크리트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중국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나 한국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에게 미치고(unto all)”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한다(upon all)”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을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미치다, unto).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는 자 위에만 임합니다(임하다, upon).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지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딤후 4:1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도 당신의 구원자셨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아직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의롭게 되기 전에도 당신의 의였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을 통한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한 가지 선택지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오직 그분을 믿는 사람뿐입니다.

만일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그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죄 가운데 죽는다면, 죄를 제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그 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그곳에 갈 수 있게 해 주는 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원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동일하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인과 미국인이 서로 다른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시골 사람과 도시 사람이 서로 다른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두 동일하게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를 짓고, 동일한 음욕을 품고, 동일한 정욕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탐욕을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거짓말을 하고, 동일하게 욕을 합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회개하면 동일하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절의 앞과 뒤가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서는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한 좋은 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다름니

다. 성경의 기준은 자신보다 나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중에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불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계속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계속 쌓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횟수만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분의 의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값없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말이 아닌가요? 저는 이 단어가 정말 좋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구매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값없이 의롭게 해 주십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받고 나서도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어야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구원도 공짜고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공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구원을 유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기준이 다릅니

다.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잃어버리는지도 기준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은 자신들이며 그들의 최종권위도 성경이 아닌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값없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토를 달거나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만끽하고 복을 누리면 됩니다.

24절에 나온 단어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의롭게 됨”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당신은 기독교 방송에서 구원과 관련된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인가요? 칭의, 구속, 화목, 대속, 입양, 전가 등의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인가요?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에게 무엇을 해 주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말들은 설교단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값싼 자신들의 행위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선행을 해 놓고는 흠족해하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룬 구원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원을 싸구려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가격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싸구려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나 세례나 십일조나 선행이나 교회 회원이 되는 것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행위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행위로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거나 믿지 않고 사제나 목사의 말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거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위협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26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 안에는 그분이 있습니까?

제9강 의롭게 됨

3장 21절-28절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21-28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높여지시고 저희는 그 분 앞에서 낮아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네 번에 걸쳐 하나님의 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차별이 없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순간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매순간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롭게 됨(justified)”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4절 의롭게 됨(justified), 26절 의롭게 됨(be just)과 의롭게 만드는 이(justifier), 30절 의롭게 하심(justify). 문맥은 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기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값도 치르게 하지 않고 당신을 용서해 주신

다면, 하나님도 당신과 똑같이 불의한 하나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려면 모든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을 인간만큼이나 의롭지 않고 악한 존재로 만들뿐입니다. 만일 죄에 대한 값이 치러지지 않고 죄에 대한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불의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롭게 만드시면서 동시에 자신도 계속 의로운 상태로 있을 방법을 고안하신 것입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죄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저는 아담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아담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죄는 루시퍼를 통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죄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입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는 단 한 번도 술에 취한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한 번도 마약을 복용한 적도 없습니다. 더러운 영화를 본 적도 없습니다. 아내를 속이고 바람을 피운 적도 없습니다. 아내를 때린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당신은 마귀와 정확히 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당신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당신은 마귀와 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

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성경은 생명의 길이 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좁기는 하지만 전 인류가 그 길로 갈 수는 있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 좁지만 원하는 사람은 모두 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구원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요 10:9).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는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이고 문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자만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통과할 수 있고 담배를 피우면서도 통과할 수 있고 마약을 하고 더러운 영화를 보면서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막는 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가 죄인이라고 해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결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그의 종교생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선행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그 말을 참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건드리면 분노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복음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회개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 전에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의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들을 믿는 것을 그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 깨달은 사람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을 높이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마귀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할로윈 파티 복장을 생각합니다. 음란한 파티를 벌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동성범죄자를 생각합니다. 이런 게 마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마귀는 단 한 번도 그러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저질렀던 죄는, 자신이 하나님의 왕좌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매우 타락했습니다. 어지간한 범죄로는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뉴스가 아닙니다. 누가 몇 사람을 죽였다는 것도 놀라운 뉴스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서 태백로 보냈다는 정도가 되어야 좀 놀라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배격한 사회는 혼돈 가운데 있게 됩니다. 경찰과 교도소와 판사와 구조대와 병원과 학교가 있지만 혼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저버렸

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자, 이제 칭의(justification), 즉 의롭게 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 없이 죄인을 용서해 준다면 결코 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과 하박국 1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10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롬 3:10)**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이란 자신의 의와 동등한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의를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려면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박국 1장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합 1:13)**

정죄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

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0-21)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당신을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유대교보다 더 나은 종교를 만들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사이 좋게 잘 살게 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대로 모든 죄를 완벽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처벌이 없이는 완전한 깨끗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지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짊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면에서 당신과 저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몇 시간 달린 것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이 치러질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분이 영원한 분이려면 가능합니다. 만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아버지께서, 옛날부터 계셨던 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담당해 주셨다면, 온 세상의 죄값은 치러진 것입니다. 처벌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판결은 집행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의로운 방법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신 일도 의로웠고 방법도 의로웠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제 선택할 일만 남았습니다.

음식을 구매했습니다. 음식값은 만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만원을 계산대에 맡겨놨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그 돈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계산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면 결국 음식을 구매하지 못하고 굶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정에 달린 문제입니다. 계산대에 돈을 남겨둔 사람은 우리가 배불리 먹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호의를 무시하거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거부합니다. 자신의 죄값을 왜 다른 사람이 치러주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값은 자신이 치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은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누군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자만심과 교만과 자기 의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 있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만과 교만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보다 자신이 스스로 이루는 구원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은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의가 되게 하기 원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갈 3:13)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명의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해 주시지만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저주가 되시고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대도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죄가 되어 당신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면, 하나님은 의롭게 일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모든 죄는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지은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롭게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롭게 된 것입니다(롬 3:26).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의와 우리의 죄를 바꾸셨습니다. 가치 있는 것과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걸레 같은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폐해입니다. 종교는 덧과 같습니다.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는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구원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눅 18:9)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지 분명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봐봐,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자신은 저런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며 마귀가 죄를 지을 때 그의 마음을 지배하던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이 바로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10절)

“두 사람이…성전에 올라갔는데” 두 사람이 성전에 갔습니다. 이걸 좋은

일입니다. 술집에 간 것도 아니고 도박장에 간 것도 아니고 나이트클럽에 간 것도 아니고 성전에 갔습니다.

“기도하러” 두 사람은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그냥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 친구를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이성친구를 만들려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는 앞잡이 같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वाद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11절)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The Pharisee stood and prayed thus with himself)”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하나님, 그래도 여기서 제가 가장 낫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취하는 자들” 이 사람은 착취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간음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더욱이 이 세리वाद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당신은 지금 이 장면

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께 감사할 만한 일이 많습니다. 저는 김 형제보다 낫고, 박 형제보다도 낫고, 정 형제보다도 낫습니다. 저는 모든 형제들보다 낫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형제를 떠올리면서 그래도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마다 두 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12절) 금식하고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는 이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어,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13-14절)

당신은 자신이 감히 받을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의를 받기에 합당치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던 구원받지 못했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마귀가 처음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30) 33절도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God’s elect)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고소당할 일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고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당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God’s elect)”는 누구입니까? 이사야서 42장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사 42:1-4).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거나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서 하늘 나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종교는 왜 거짓입니까? 종교가 거짓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롭게 됨을 가르치지 않고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업적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종교는 잘못된 종교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갈 5:4)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의

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엡 2:8-9).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놓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3:5-7)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거나 악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이 아니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롬 5:9) 18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갈라디아서 2장도 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갈 2:16)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고전 6:11)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다시 로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롬 3:26)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 채 1초가 되지 않아 즉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갈 3:24)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나?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롬 9:31-32)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휼을 구해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롬 10:2-4)

잠시 십자가의 거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게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거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거나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그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인데 연설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TV를 통해 제 연설을 듣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우리는 모두 종교를 가져야 한다고 하면 걸려 넘어질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행을 해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해도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믿어야 한다고 해도 거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나 성당이나 회당이나 회관이나 모스크에 가야 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라고 해도 부인

하는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약을 없애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늘나라에 갈 만큼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면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무 형틀 위에 누군가 매달려 있는 것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오직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가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형교회를 하려는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된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영터리로 복음을 전하다가도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성경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5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을 종종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는 사람은 무엇을 전하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방언 집회를 하든, 신유 집회를 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가 대속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분만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한다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누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자체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귀나 즐겁게 해 주고, 자만심을 갖게 해 주고, 자신들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한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한 것이며 마귀의 일을 한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선행도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님도 믿고 율법의 행위도 행해야 구원해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어떠한 행위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5분 후에 죽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교인들은 절대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선행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분 후에 죽게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

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서 부활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분을 지금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전한 것은 채 5분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죽기 5분전이라도 이것을 진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사형을 당할 만큼 악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잠시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선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는 십자가에 달린 다른 강도에게 자신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눅 23:41).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 어떤 일을 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의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낙원에 갈 수 있었

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바꾸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저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도는 구원받고 나서 죽었습니다. 군인들이 그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이 강도를 보면 신약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 아무런 행위도 없이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강도는 믿자마자 즉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는 군인들에 의해 다리가 부러졌고 죽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함께 하려 함이니라.”(고전 1:29-31)

사람이 언제 상처를 입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호응을 해 주지 않을 때 상처를 입습니다. 만일 제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저에게 상처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저를 비난해도 저는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못생겼고, 성격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죄인이고, 죽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말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갔을 것이기 때문에 저건 저에게 욕이 아닌 사실을 말한 것일 뿐입니다.

사람이 언제 상처를 받을까요? 자신이 무엇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쁜 소식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희망도 없는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자만과 교만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렘 9:23-24)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육체의 힘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힘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재물을 가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자랑하려면 이것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사랑과 친절이 넘치는 주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시는데 자신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자랑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자랑하고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친절, 그리고 정의와 심판, 그리고 주님의 의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전해주십

시오.

사람들은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죽어갑니다. 실제로 죽기 전에는 어디로 갈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고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에 충분한 행위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 육신을 떠나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지옥에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신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의롭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의 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제10강 구속

3장 21절-28절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롬 3:21-22)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의를 준비해두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

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23-28절)

우리는 앞선 강의에서 의롭게 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며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목사들과 성도들이 의롭게 됨, 구속, 화목, 대속, 죄사함, 믿음 등에 관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친다면 대부분의 교파와 교단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속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구속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속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구매했다” 혹은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저를 사셨습니다. 저를 구매하신 것입니다. 저에게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값을 치르시고 저를 구매하신 것입니다.

구속은 대신 값을 치러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죄로 인해 빛진 자였습니다. 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빛을 값어치 없이 얻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저의 죄값을 대신 치러준 것입니다. 구속은 상충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무엇인가로 상충한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거나 죄를 없앨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구속은 값을 치르므로 노예로 사로잡혀 있거나 결박당해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희망을 갖는 이유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속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죄값을 모두 치르고 제가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자유롭게 해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구속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도록 모든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구속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났다는 게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가기 전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죄들로부터 완전

히 자유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제가 죄를 전혀 짓기 전의 상태로 되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속입니다.

탕자가 있습니다. 그는 돼지 우리에 살고 있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인생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사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죄를 지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합니다. 그는 돼지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돼지우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 다. 돼지우리에서 사는 것이 괜찮은 척하지도 않았습니 다. 그는 즉시 돼지우리를 나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는 “아버지,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아버지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용서해 주기는 하겠지만 집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 다. 아버지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적이 없던 것처럼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새 옷을 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속입니다. 저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며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1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

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
이라.”(요일 3:1)

이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거나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회복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상처를 받은 적이 없던 것처럼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종교도 이러한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계속해서 덕을 쌓고 선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제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뿐 아니라 마치 단 한 번도 하늘나라를 벗어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기록은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인간 앞에서는 죄를 지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속입니다. 구속이란 마귀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 안으로 옮겨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무엇인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구속은 희생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수님의 완벽한 인생을 통해 구속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무엇인가를 통해 구속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통해 구속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신을 구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와도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과 설교하신 모든 것, 예언하신 모든 것,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당신을 구속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속은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속은 희생제사입니다. 구속은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본을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릴 때 흘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구속이 피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피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로마서 3:24에서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필요한 피는 인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8-19)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인간의 혼을 산 것입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의 죽음에 대한 값을 치러준 것입니다. 구속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 대한 기록을 모두 삭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

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와 죄의 현존으로부터 구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장로들 중의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獅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께서 계시더라. 그분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분께서 나아오사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매 네 짐승과 스물네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계 5:5-10)

주님의 구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만을 해결해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왕들의 왕이라는 것은 왕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 왕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짓값을 완전히 치를 수 있는 만족할 만한 것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

어졌습니다. 구속을 위한 값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힘으로 죄를 제거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 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골 1:13-14) 변개된 성경들에서는 “그분의 피를 통해” 라는 표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구속에 대해 증언하면서 구속의 대가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구속에서 구속의 핵심 요소를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삭제시켜 버린 것에 대해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피를 뺀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속의 대가이자 전제조건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구속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값을 치르지 않고는 구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과 죄들의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옵니다.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딤후 2:11-13)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해 줍니다. 바르게 살아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살아야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바르게 삽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확실하니 이제 마귀처럼 살아도 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

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값을 치르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구속의 값은 누구에게 치른 것인가?”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죄값을 치른 것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의 논점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구속은 무엇인가의 값을 치르고 되찾아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저를 되찾아 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아이를 납치해갔다면 아이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그 납치해 간 존재에게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을까요? 디도서 2:14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소유하고 있던 게 무엇이었습니다? 바로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모든 불법, 바로 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값을 치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귀에게 값을 치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구속 받았다면 당신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자발적으로 죄의 통제하에 자신을 복종시켰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구속 받았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가 강제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죄에게 자신을 복종시켰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모두 스스로 죄에게 자신을 복종시켰기 때문입니다. 죄는 스스로 내어주기 전에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절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구속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당신을 끌고 다녔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당신이 동의하기 전에는 결코 죄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죄의 지배를 배격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동의하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에게 팔린 노예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원하면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도 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죄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구속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죄로부터 다시 사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다시 사오신 게 다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갈 3:13)

율법을 단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율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모두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어긴 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제가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모든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네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함 긍휼로 네게 관을 씌우시며”(시 103: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생명(인생)이 멸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아니라 죄의 통제 아래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세상에서 죄악에 빠져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기쁨이 넘치는 곳에 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죄로부터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이 구속 받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 버린 인생을 산 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구속 받은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만 가는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인생도 멸망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현재에 관한 것이고 두 가지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자기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시 34:22)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당신은 현재 혼의 구속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과 로마서 8장도 보겠습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는 순간 구속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구속 받게 될까요? 먼저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 4:30) 로마서 8장도 보겠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롬 8:2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혼을 구속하신 것처럼 몸도 구속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 당신의 썩을 몸을 변화시켜 이 옛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혼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로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건강한 몸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육신이 완벽해지거나 육신의 질병이 모두 치유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과 이 세상에서의 질병의 치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몸의 구속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몸은 계속해서 연약함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몸의 구속이 일어나게 되는 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의사나 간호사나 병원이나 구급차나 장례식과는 관계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미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1장과 2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칠 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팔십사 년쯤 되니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그때에 그녀가 나아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눅 2:36-38)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이방인들의 통치로부터 구속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같은 진리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 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이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하시니라.”(눅 21:24-28)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들의 권세와 통치로부터 구속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구원도 개인적인 혼의 구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구속은 예수님의 피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았습니까? 그분의 피가 당신의 죄값을 모두 치렀습니까? 당신의 죄값은 모두 치러졌습니까? 당신은 그분의 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그분의 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죄와 죄의 권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 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히 9:11-12)

우리는 영원한 구속을 얻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까? 우리가 받은 구속은 결코 끝나지 않는 구속입니다. 영원한 구속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구속 받았습니다. 저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았습니다. 당신은 값을 치르고 사신바 되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었다면 당신도 구속 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이 받은 구속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있다면 당신은 넘치는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구속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11강 화해 헌물, 죄들의 사면

3장 23절-31절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롬 3:23-3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를 진리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절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화해 헌물(propiti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죄들의 사면(remission of sins)**”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 시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25절에서는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 헌물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저의 과거의 죄들을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둘째, 26절에서는 “**이 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다(To declare, I say, at this time his righteousness:)**”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 헌물은 저의 현재의 상태에 유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26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화해 헌물과 죄들의 사면을 얻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과거의 죄를 사면 받고 현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과거의 죄를 사면 받을 수 없고 현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도 없습니

다.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분의 피를 통해 얻을 유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화해 헌물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대상에게 호의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교리로 가르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해 헌물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전하지 않고서는 화해 헌물에 대해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사악한 자들에게 분노하시기 때문에 화해 헌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화해 헌물에 대한 설교도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낙원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막연히 죽으면 좋은 곳에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하

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 복음전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를 믿으며 살아가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는가’입니다. 아들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믿어야만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종교나 부처나 모하메드나 공자나 교황이나 침례교회나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제가 현재형(hath)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해 헌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문제를 믿는 순간 모두 단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 화해 헌물을 받아들인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절의 부분도 앞에서는 믿는 사람의 현재 상태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의 현재 상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중요한 것처럼 뒤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뒷부분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인본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줍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에 대해 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길거리를 지나다니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모두 현재 지옥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지옥에 대한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옥에 대해 설교해야 합니다. 제가 지옥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게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런 감정 없이 지옥에 대해 설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친척 중에도 지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지옥은 저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저와 가까웠던 사람, 저희 친척들 중에도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즐거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의 현재 상태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술을 단 한번도 마신 적이 없다 해도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남편에게 잘하고 부인에게 잘 하며 살아도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건을 훔친 적이 없어도, 간음한 적이 없어도, 마약을 사용한 적이 없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도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거나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불 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정죄입니다. 죄를 하나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고통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죄라도 그것이 제거되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으면 영원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영원한 죄를 영원히 처벌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은 채로 죽은 사람은 영원히 믿지 않아 저주를 받은 상태로 있게 됩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데 지옥에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는데 지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지옥에서는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계속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영원히 있게 됩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사탄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을 보면, 사탄은 천년간 지옥에 있다 잠시 놓임을 받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바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은 지옥에서 천년간 불에 탔지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형벌로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옥은 사람을 바로 잡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바로 잡기 위해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해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벌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날 지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면 잔인한 말을 하는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면서도 전혀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인본주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높이고 사랑하고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인 인간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성경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 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신 예수님이시니라.”(살전 1:10)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삼으셨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였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속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를 진노로부터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신을 우리를 위해 드리셨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있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보시고 그 위에 자신의 진노를 쏟아 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죄를 지은 인간과 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서시어 인간을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부여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는 예수님으로 인해 충족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 2:1-2)

저는 존 칼빈이 왜 이 구절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는지 의아합니다. 어쩌면 발견하고도 믿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왜 이 구절을 보고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은 이 구절을 기록된 그

대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라는 구절을 “온 세상에서 선택된 자들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라고 읽습니다. 왜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기록된 그대로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은 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15-17절)

요한일서 2장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상이 선택된 자들을 의미한다면, 성경은 선택된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됩니다. 세상은 사라져 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상이 선택된 자들이라면 선택된 자들이 사라져 버리는 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화해 헌물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16도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아들 하나님을 화해 헌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화해 헌물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해 헌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위에 있습니다. 그런

데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서 대속하지 않은 사람들 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가 선택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께 죄의 원인을 둡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의 원인을 둡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도 화해 헌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모든 곳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화해 헌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화해 헌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 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존경하는 사람이 아닌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본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그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늘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지옥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짓지만 지옥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는 이유는 죄를 지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죄를 많이 짓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 나쁜 죄를 많이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지옥에 가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궁극적인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요일 4:8-10)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화해 헌물로 인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독자 중에 자동차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면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농부가 있다면 농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음악가가 있다면 음악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당신의 죄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화해 헌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부드럽게 전한다 해도 사람들은 거부하고 화를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스스로 하늘나라에 갈 능력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그 누구도 이런 걸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런 걸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내용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 흔히 말하는 준비된 혼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죄들의 사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면이라는 말은 용서라

는 의미입니다. 사면은 죄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사면(remission)은 용서(forgiveness)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범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화해 헌물을 받아들였을 때, 저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제 머리 위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저는 더 이상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들의 사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행 10:43)

예수님을 믿어야 죄들의 사면, 즉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믿지 않고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거래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분의 아들을 향한 저의 믿음을 드리면 그분은 저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도 영원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한번 용서받은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히 9:22) 당신은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들을 사면 받을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0장도 보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히 10:4) 피 흘림이 있어야 죄에 대한 용서가 있지만 구약성경에서

요구하는 짐승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같은 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히 10:18) 짐승 제사를 통한 헌물은 저의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 드리는 헌물을 통해 다시는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0절도 보겠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히 10:10) 14절도 보겠습니다. “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19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이 누구인지를 놓고 밤새 토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히브리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번 희생물을 드리셨는데, 그 희생이 믿는 사람을 영원히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로마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요한일서, 갈라디아서와 정확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구절들은 제가 저의 힘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모두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제 위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께서는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다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8도 보겠습니다.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도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도행전 10:43을 놔두고 2:38만 인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이 구절의 문제는 신학적인 게 아니라 문법적인 것입니다. 원어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for” 라는 단어의 해석에 있습니다. “for”는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무엇으로 인해” 라고 원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for”에는 “because of”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문법적으로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죄들의 사면을 얻은 것으로 인해 각 사람이 침례를 받으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보면 후자가 바른 번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베드로의 설교에 반박하거나 조롱하거나 돌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0:43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들의 사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면 침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니사?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롬 3:29-30)

성경은 유대인들(할례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이방인들(무할례자들)은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미암아(by)”와 “통해(through)”의 차이를 확실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화해 헌물도 동일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누군가는 “말미암아”와 “통해”의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들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롬 1:16)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동일하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다만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그 다음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화해 헌물로 인해 하늘나라에 갑니다. 죄들의 사면과 구속과 칭의를 통해 하늘나라에 갑니다. 침례나 선행이나 회개를 통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희생을 통해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 피가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빼내어 은혜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사도행전 2:38을 이유로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행전 2:38을 제외한 성경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됨, 구속, 화해 헌물, 죄들의 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안다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결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의미가 확실하지 않은 구절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의미가 확실한 다른 구절들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 구절을 뒤집어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들을 가지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구절을 해석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38만으로 그 구절의 의미를 알 수 없다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관련 구절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단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행위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히 11:6)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엡 2:8). 침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38을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를 통해 주시는 조명으로 비춰봐야 합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롬 11:6)

문제는 단순합니다. 만일 은혜에 행위가 더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행위가 들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와 행위를 섞을 수는 없습니다. 점이 없는 것에 단 하나라도 점이 생기면 더 이상 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은혜고 일부는 행위일 수 없습니다.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입니다.

성경은 구속이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도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 헌물도 은혜로 준비된 것입니다. 죄들의 사면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구절을 발견하면, 그 구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38을 다루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이단 교리가 나오는 방법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구절을 성경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행위를 믿는 종교적인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입니다.

저를 믿느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제 행위를 믿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믿겠습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2강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4장 1절-8절

오늘은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만일 설교자가 로마서 4장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목회보다는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하고 누구나 알기 쉽게 기록되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

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롬 4:1-8)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경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는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자랑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추종자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칭송하고 떠받칩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이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가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며 뿌듯해 하게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인해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다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빛에 걸려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채 1초가 지나지 않아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들에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떠받들어주던 사람들이 심판석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던 사람들이 심판을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판석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 베드로가 천국 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 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일입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은 자신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선행을 많이 하며 살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에 달려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자랑할 한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큰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잘난 사람이라 해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인상을 줄 수도 없고 인정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무어라 말하느냐?”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슬

림들, 진화론자들, 불교신자들, 개신교인들, 심지어 평범한 침례교인들도 성경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아닙니다. 사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랍비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이 다른 것과 상충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게 바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성경으로 변화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종교가 있고 교회에 다니고 무엇을 한다 해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믿든 무엇을 믿든 진실하게만 믿으면 모두 결국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그렇게 믿다가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결국 큰 흰 왕좌 심판석에서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석에 하나님께서 앉아계실 뿐 아니라 모든 심판이 성경을 근거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문제는 투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배심원이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한 것들 중에 하나님을 믿은 것만이 유일하게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성경적 평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 저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 한번도 우상숭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제 120년 간의 생애 동안 단 한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주님, 제 인생 기록을 한 번 보십시오. 저는 단 한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습니다. 강탈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것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별들을 보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 기억한다.” “저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하십니까? 저에게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저의 자손들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하십니까?” “그래 기억한다.” “그때 제가 주님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그래 기억한다.”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다. 너는 내가 한 말을 믿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너는 하늘나라로 들어 올 수 있다.”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선행들은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악한 일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것

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가 하늘나라로 가기에 충분한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영광스러운 진리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이 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을 통해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악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구원이 선한 행위에 대한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선한 행위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실 때 그것은 은혜가 아닌 빛을 값은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당신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선행을 해 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빛을 졌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정말 자신이 빛을 졌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기에 충

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괴롭힌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으며,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적도 없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욕한 적도 없기 때문에 자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래도 선한 사람 축에 들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겠거니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누구보다 나은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는 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몇 가지 선행을 해 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빛을 졌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만일 선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몇 가지 선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기부금을 내야 합니까? 어느 정도 나쁜 일까지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담배를 하루에 세 갑씩 피우다가 이제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구원을 빚지신 것입니다.” “저는 술을 하루에 두 병씩 마시다가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빚진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위의 규모와 명칭만 다를 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하늘나라를 싸구

려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 중에 구원받을 만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지 않은 행위 중에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을 거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행 중에 자신들이 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이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거니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하지 못한 수백만 가지의 선행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선행을 해 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을 빚졌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또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쟁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란 죄를 지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죄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서, 자신은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하지 않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치 않다(ungodly)”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같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같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경건치 않은 사람입니까? 항상, 어디

서나 하나님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경건치 않은 사람이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의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하나님과 같았고, 그분의 성품도 하나님과 같았고, 그분의 행위도 하나님과 같았고, 그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다는 사실로 인해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요 5:18).

예수님은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지 않은 자들(ungodly)”, 즉 “경건치 않은 자들(ungodly)”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롬 3:23).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방법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았는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지역교회에 회원으로 가입했는지 여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

것이 복음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무엇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어디에 가입해라”, “얼마를 바쳐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항상 경건치 않은 상태로 있게 될 뿐입니다. 항상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남게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믿는 순간 의롭게 됩니다.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며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시고 주님과 한 영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같지 않은 자, 즉 경건치 않은 자가 하나님 같은 자, 즉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에게 없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 하나님과 같은 사람, 즉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순간 불경건한 자가 즉시 하나님과 같은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불법을 다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의 정도를 정해놓고 어느 정도 선을 넘는 것만 처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도소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욕을 하는 것보다 살인하는 게 훨씬 더 큰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단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

리가 특히 더 나쁜 죄라고 생각하는 죄들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크든 작든, 많이 나쁘든 조그만 나쁘든 상관없이,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든 불법과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짓지 않았고 어떤 짓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한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어느 정도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노숙자쉼터에 있는 사람보다는 자신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그녀와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리석다고 욕을 하는 것도 지옥에 던져질 만큼 큰 죄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가깝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군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다면 자신의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따

라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 대속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또 다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주십니다. 아무런 행위도 없이, 선한 행위도 전혀 없이 단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종교나 교회출석이나 인간의 업적이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예로 등장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당신은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작은 다윗이 작은 돌멩이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전쟁터로 갔을 때 홀로 왕궁에 남아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의도치 않게 우연히 보고 지나쳤다면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여자가 목욕하는 걸 주시했습니다.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미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범한 죄를 현실에서도 범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와서 그녀를 더럽혔습니다. 이것은 심하게 악취가 나는

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완전히 타락해 버린 우리 사회에서도 지탄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건 상관없이 모두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인 그녀의 남편을 불러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합니다. 마치 그녀가 임신한 게 남편으로 인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간음죄에 거짓말과 속임수까지 더한 것입니다. 이것은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하인 여인의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만 편하게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한 사람을 보고 회개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충성스럽고 고귀한 부하를 보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는 이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간음한 죄에 거짓말한 죄를 더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술 취하게 하는 죄를 더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술에 취해 자신이 아내와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성스러운 부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선한 사람을 보고 회개하지 않고 더욱 사악한 계락을 꾸몄습니다. 그는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가장 치열한 전선에 이 남자를 투입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투가 치열할 때 이 남자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라고 합니다. 결국 신실한 우리야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고, 거짓 증언을 했고, 다른 사람을 술 취하게 했고, 살인교사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대언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따라서 그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도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황소와 염소와 어린양의 피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희생물들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보시고 자신의 손에 있는 주홍같이 붉은 피를 제거해 달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망쳐버린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정죄 받은 혼을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처분이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는 다윗의 죄보

다 훨씬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입니다. 당신이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만큼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다윗이 지은 것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은 적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당신이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죄를 지은 적이 있고 그 죄를 자신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은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윗과 당신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늘에서 간음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살인자를 보셨습니다. 가장 충실한 부하를 술 취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자 즉시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을 믿자 즉시 자신의 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업적으로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7-8절)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

구원받고 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면 일단 구원받고 나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바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구원자를 생각하면서 이제 구원은 확실하니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독자 중에는 아무도 몰랐으면 하고 생각하는 일을 한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과거에 한 것이 절대 발각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 발각되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전히 기억하시며 심판 날에 설명하도록 요구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정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믿는 순간 즉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만일 당신이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게 된다고 증언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방법이 전혀 없으며 다른 무엇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나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자신의 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관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까? 모든 영광이 그분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제13강 아브라함의 믿음

4장 9절-5장 2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구약성도들이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으며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는 하늘나라에 가기에 충분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

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 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었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롬 4:9-12)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관계를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하는 육체적인 표적입니다. 할례 자체가 관계를 맺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맺어진 관계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할례로 인해 관계가 나아지거나 개선되는 게 아니라, 이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드러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세상에 보여주는 표적이 아닙니다. 할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내적 증거입니다. 물론 누군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행위입니다.

할례와 관련해서 우리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교리이고 다른 하나는 바른 교리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바르게 나눠 구분하지 못하는 교회에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물침례는 할례를 대체하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침례가 할례를 계승한다고 가르칩니다. 게다가 할례의 의미가 그것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침례도 그것

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표이며, 따라서 가능하면 어린 나이에 침례를 주어 그것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창세기나 로마서를 기록된 그대로 읽어보면 어디에서도 물침례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표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할례를 행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기 위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그것을 통해 그 아기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입니다.

할례나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신구약성경 어디에서도 할례나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사람(갓난 아기)을 물에 담갔다 빼내거나 혹은 이마에 물을 찍는 행위를 통해 구원한다는 것은 믿음과 은혜를 통한 구원이 아닌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방법이라면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물을 뿌려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은 것과 할례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해도 그가 죽어서 낙원에 가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물침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을 때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봉인하기 위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위에 새로운 체계와 질서를 가진 세상과 정부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것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새로운 세상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단 하나도 없을 때 이미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속박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 약속을 받지 않고 믿음의 의를 통해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14-15절)

만일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상속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은 무엇을 이룹니까? 진노를 이룹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36에서도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께 의롭다 함을 받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과 함께 앞으로 다가 올 세상의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16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며 모두 그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 위에 세우실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 이것을 상속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시다. 이삭과 야곱도 믿음을 통해 약속을 받았습시다. 요셉과 그의 자녀들도 믿음을 통해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시다. 모세와 아론도 믿음을 통해 약속을 받았습시다.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시다. 율법은 그 다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을 받습시다.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방법으로 된 것입니다. 모두 믿음을 통해 상속자가 되었습시다. 왜냐하면 모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행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게 될 사람은 없

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17절)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살리다(quickeneth)” 라는 말의 의미는 두 번 다시 죽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단지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 부활한 후에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인 불 호수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이것을 저에게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과 같으며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이미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고 대환난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환난에 대해 묘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도 전에 그분의 왕국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영원에 대한 것들을 미리 기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역사책을 쓰시듯 기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관해 단순히 추측하시거

나 바라시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18절)

여기서는 아브라함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그가 믿을 마음이 없는데도 강제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도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없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그저 울부짖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해도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을 때 특정한 것을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눈물을 흘려야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반대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하는 것은 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앵무새에게 영접기도를 가르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앵무새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앵무새는 말만 따라

했을 뿐이지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건, 무엇을 믿건, 얼마나 열심히 믿건 상관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을 때 무엇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단 두 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순간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자신의 방법대로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강단 앞으로 나와서 영접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전통일 뿐입니다.

다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된 남자와 90세가 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은 말이 되

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천년 전에 유대인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2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제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독자 중에는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는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실 수

있는지, 어떻게 삼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는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록된 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찾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봐도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다 이해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는 아빠를 믿습니다. 엄마가 한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믿건 안 믿건 복음은 사실이며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믿음이나 불신이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저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백 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19절)

어떤 사람들은 금방 구원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한 후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다는 약을 먹어도 백세가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내에게 가서 뽀뽀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다. 자신이 짓고 있는 죄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만둘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도 않았습다.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바로 그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데 자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다 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97세만 되었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텐

데.” 라고 생각했을까요? “3년 전이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100세인 남자와 90세인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독자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당신도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20절)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권투선수가 다른 권투선수의 주먹을 턱에 맞고 흔들리는 것과 같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지 의심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면 이미 자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은 것처럼 그분을 통해 안전하다고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귀나 다른 사람의 말을 믿

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상이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접기도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구원받았는지 다른 곳에서 구원받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인간의 창작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요일에 구원받았는지, 정확히 몇 년 몇 월 몇 일에 구원받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영접기도를 했다는 말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가족들이 강단 앞으로 나와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인간의 전통을 따라 만든 인간의 창작물일 뿐입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제가 아무것도 더 할 게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구원을 의심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

스도의 의를 저의 계좌에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가입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 하였으니”(21절)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자신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불의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변화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술이나 담배를 끊었다거나 어떤 죄를 끊었다는 것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죄는 끊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죄는 여전히 짓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면 영원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실망하면서 혹시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신의 육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모르고 자신의 옛 본성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동안 그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확신 가운데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회개하고 금식해도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확신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현재 이루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시작하지도 않았고 이루고 있지도 않으며 끝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아예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준을 낮추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계신 분이 그분의 기준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분을 보시고 그분의 피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구원의 확신은 저의 행위로 인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인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라는 것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 하셨느니라.”

제가 왜 의롭게 된지 아십니까? 제 자신을 단 1초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23-24절)

아브라함은 100세인 자신과 90세인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느낌이 어떤지는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침례교도 천주교만큼이나 복음을 망쳐놓을 때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복음에다 자신들의 전통 50개를 더합니다. 침례교도 복음에다 자신들의 전통 50개를 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전통이 맞는지를 놓고 싸웁니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5장 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데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넘겨지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4:25)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5:1).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확신을 가질 수도 없으며 계속 흔들림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도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2절)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잠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죄들은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인간은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로마서 1장에 나온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감사를 드렸기에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모두 거짓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

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물침례를 통해 구원받는다면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침례를 베푸는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입니까? 성례를 통해 구원받는다면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성례를 행하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입니까? 특정한 교회에 회원이 되어야만 구원받는다면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무엇인가 행해서 구원받았다면 당신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영광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창녀들이 아닌 종교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상처를 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창녀들이나 세리들이나 강도들이나 살인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복음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은 이런 걸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느냐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고, 유아세례를 받았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니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닌데, 선택된 사람인데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니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채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다시 진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

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 누가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누가 영광을 받지 않아야 합니까? 저와 당신은 영광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짓 복음에 반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아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합니다.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인간에게 돌리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14강 하나님과의 관계

5장

오늘은 다시 로마서 5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 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1-2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놀라운 구원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4장에서는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5장에 나온 단어들을 한번 눈 여겨 보십시오. 화평(peace, 1절), 들어감(access, 2절), 서 있음(stand, 2절), 기뻐함(rejoice2절), 기뻐함(glory, 3절), 부끄럽게 하

지 아니함(5절).

이러한 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제어하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므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 구원하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행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하도록 하기 위해 구원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구별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던 죄들을 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살펴봤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지, 혹은 나에게 진노하지나 않으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일시적인 화평이 아닌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게 되었습니다.

니다. 주님의 기준에 맞는 인생을 살기 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며 살고 싶어 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번번히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 주신 일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은 저의 구원과 정확히 같습니다. 제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닌 것처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주님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죄를 짓거나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본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침례교인들도 이와 유사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그룹에서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거나 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마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에 빠져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 앞에 화평 가운데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선하고 바르게 산다 해도 저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화평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롭게 행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죄를 지으면 바르지 못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구원 전이든 구원 후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닌 것처럼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고 구원받은 후에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요구로 인해 그의 생활에 변화가 왔을지는 모르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가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탕진할 때도 그의 생활이 변했을지 몰라도 그와 아

버지의 관계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돼지우리 안에 있을 때에도 그의 처지는 변했지만 그와 아버지의 관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는 자신의 인생만 망쳤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망친 것도 아니고 형의 인생을 망친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종들의 인생을 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망친 유일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돼지우리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 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죄는 아버지의 마음이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쁨만을 잃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죄에게 내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를 통해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기쁘지 않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기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도 기쁘지 않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기쁘지 않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무엇이 변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것이지 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죄인이 가진 유일한 희망은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행위를 통해서도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구원문제에 관해서는 자기 의를 버리지만 그 후의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 의를 주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짓는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선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과 좀 더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다른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들보다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입니까? 과연 얼마나 의로운 행위를 했기에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과 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난 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게 아닙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도 역시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거나 선행을 더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의 희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행이 아니라 이것이 저의 마음에 화평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야지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실 거라고 아이들을 겁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말을 이

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아이들에게 날마다 해야 하는 회개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협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으며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게 되었다고 믿고 자는 게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후에도 자신의 죄를 모두 기억하거나 제거하거나 하나씩 나열하며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관계를 끊어버리지는 않으실지 걱정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게 낫습니다.

건전한 교리가 죄에 대한 변명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건전한 교리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한 결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구원받은 남자가 출장을 갑니다. 그는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간음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먼 곳으로 출장을 가셔도 아내에게 신실한 남편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간음하면 안 된다는 교리를 아는 게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가 아내를 사랑하면 간음하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간음을 하고 나서 회개기도를 하면서 제발 들키지 않게 해 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교리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대부

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선행이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아마 이 구절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4-5절)

영적 성장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성장의 결과는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성장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성장의 결과는 언젠가 모든 고난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성장의 결과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 마음에 넓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십대에는 때로 책망과 경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의 행동을 움직이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이 자신에게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죄와 비판과 위협으로 인해 바른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 입증됩니다. 사랑을 하면 명령을 지키는 행위가 따라옵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6-7절) 이것이 바로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을 위해 대신 총에 맞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군인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대신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고귀한 행동이며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어떤 논리가 없습니다. 군인이 자신의 동료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8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십일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팔을 부러뜨리겠다고

위협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현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하겠다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위협으로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협을 들은 사람도 십일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병원신세를 전혀 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언젠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지만 직장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협이 전혀 사실이 아닌 이유는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쳐다보실 만한 합당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분도 저와 관계를 맺고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를 가만 두지 않으실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9-10

질)

구원받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만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피로 씻겼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분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 되었고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었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과 관계가 나빠질 수 있을까요?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더 이상 저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친절을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악의 상태일 때(죄인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저의 최악의 상태는 제가 구원받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가 어떤 상태에 있건, 무엇을 하건, 무엇을 하지 않건 상관없이 저는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와 관계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아들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고 유지시켜 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안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으로 화답하

는 것입니다.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11절)

여기서는 속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근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단지 하나님과 어떤 평화협정만을 맺은 게 아닙니다. 휴전선언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끝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한 것입니다. 서로 다투던 상대방이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났을 때, 그는 단지 전쟁을 끝낸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처럼 남과 북이 화해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그의 제안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단순한 종전만을 원한 게 아니라 완전한 화합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과 싸움을 멈추기만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전쟁이 끝나기만을 바라신 게 아니라 아예 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이유이며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를 때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대적했습니다. 서로 간에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화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로 용서하고 끝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은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싸움이 있기 전의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의 관계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기 전의 관계로 우리를 돌려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뿌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도 우리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육신대로 뿌렸을 때 육신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과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원수가 아니며 당신을 멸하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인생에 덧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끝났고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을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단 한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화가 나셨는지 궁금해 합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분명히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며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뿌린 대로 거두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가 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면 우리는

영원히 불 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고작 고난 정도를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 호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화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모든 싸움과 다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과 안 좋은 일들이 있어나는 이유는 당신의 구원이 취소되었거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둬들이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더 이상 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짓값을 치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짓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12절) 사람들은 계속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뿌린 일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13-15절)

사람들은 선물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선물이 공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물을 받았

지만 언젠가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준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도 값을 치를 필요가 없었고 받고 나서 나중에도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믿는 자는 값없이 죄를 용서받습니다. 나중에 값을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값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값을 치를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균림하였을진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균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16-19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이 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 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물은 “예정된”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말입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이 망쳐버린 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죄를 짓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구원자를 찾으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도 당신의 구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다 보니 구원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원자를 요청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20절)

이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도 진리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신이 지은 죄보다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해도 은혜가 덮지 못할 정도로 큰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요 주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넘치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

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21절)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구원받기 전의 관계와 구원받은 이후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단 한번도 인간의 선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무엇을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5장 전체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거나 하지 않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화평이 당신의 혼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확신과 소망이 당신의 인생을 주관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때보다 주님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신이 그것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전혀 감동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두려움과 의무감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 받았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무엇도 이것을 깨지 못하고 무효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15강 죄로부터 해방

6장

로마서 5장을 잠깐 복습해 보고 로마서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다섯 번에 걸쳐 “더욱더(much more)”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9절)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10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15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17절)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20절) 5장에서 나오는 다섯 번의 “더욱더”는 6장에서 논의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행위도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눈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위한 변호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앞선 세 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러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지어도 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1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는가? 우리가 큰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면 더 큰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2절에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2절)

질문이 무엇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였습니다.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였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은혜로우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것은 성령님의 선언임과 동시에 죄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를 지어도 지옥에 가거나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계속 죄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 죄 가운데 거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답하시고 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라고 되물으십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해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부터 구원받도록 모든 값을 다 치러 주셨다면, 나는 왜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까? 왜 다시 불의 가운데로 돌아가 그 안에 거해야 합니까? 예레미야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짓말을 신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구출 받았나이다, 하려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렘 7:8-11)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영적 간음을 하고 가증한 짓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자신

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회중도 늘어가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커지고 사회 활동도 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격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것을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망치는 끔찍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내가 있기 때문에 아내를 마음대로 때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운전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함부로 다루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구원자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들을 소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자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한 물건도 소중하게 다룰진대 구원자께서 주신 구원은 더욱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은 구원자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3-4절)

본문 어디에서도 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은 어떤 예

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묻히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구원받기 전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믿는 순간 당신의 옛 삶을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구원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4절 뒤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구원받기 이전의 옛 생활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 구원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5절)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죽은 아담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의 죄인처럼 살지 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6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죄의 몸을 멸하게 됩니다. 왜 죄의 몸을 멸하는 걸까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당신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기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장소가 아닙니다.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참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박물관에 구경할 게 많을지 몰라도 매일 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지겨워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길이 황금으로 되어있고 저택이 있다 해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곧 모든 게 지루해지고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어린양이 그곳의 빛이 될 것이고 모든 찬양과 영광을 어린양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도 저택이나 진주 문이나 황금 길을 칭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칭송할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죽어서 어딘가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당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이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합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당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당한 관계를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7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죽은 자입니까?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 침례가 아닙니다. 4절에서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묻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우리가 땅 속에 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죽은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죽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전적으로 자원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은 모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지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따라서 죄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습니다. 죄는 제가 가기 싫은 곳에 억지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제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옛 삶은 끝났고 새 삶은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는 매우 작은 일부분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것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옥으로부터는 구원해 주셨지만 마약중독과 알코올중독과 담배중독과 욕하는 것과 포르노 중독과 다른 사람을 헐담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게으름으로부터는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놓는 순간 다시는 영원히 그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죄를 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9절)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까?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났습니까? 그분과 함께 승리했습니까?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은 믿지만 승리했다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지 못하는 것인지 믿기 싫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믿기 싫은 경우일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 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10절)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것,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사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놓고는 왜 자신의 인생

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는지 의아해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꾸고 목사를 바꾸고 성경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아내를 바꿔봅니다. 하지만 정작 바뀌어야 할 것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바꾼다 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11절)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저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신을 죄에게는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설교만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반만을 설교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곳을 가야 합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읽지 말아야 할 것을 읽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읽어야 할 것을 읽어야 합니다.

죄를 그만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죄를 그만두기만 하

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집트를 떠났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술을 그만 마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헐담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해야 합니다.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야 합니다. 잘못된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두 가지를 사실로 여겨야 합니다.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섬기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12절)

제가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아세요?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허락하면 죄는 당신을 통치할 것입니다. 당신이 허락하면 그리스도는 당신을 통치할 것입니다. 당신이 허락하면 의가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허락하면 불의가 당신을 막을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설교단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심리학은 사람들이 죄의 희생양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내 잘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

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나 자신의 잘못인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자식의 잘못도 아니고, 교회의 잘못도 아닙니다. 아무도 강제로 내가 죄를 짓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마귀도 당신이 강제로 죄를 짓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죄의 길을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당신을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기도 하면서는 더러운 책을 볼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는 술에 취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동시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가 당신의 죽을 몸을 다스리게 할 것입니까? 당신 안의 왕좌를 누구에게 내어 주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겠습니까? 죄에게 내어 주겠습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13절)

우리는 대부분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두 다 앞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강제로 성경을 읽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당신의 눈을 어디에 두건 그건 당신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두 눈을 사용해서 TV를 볼 수도 있고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TV를 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기준이 너무 넓습니다. 좁혀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바른 것을 봐야 합니다.

당신은 잘못된 것들을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은 당신의 의지에 반해서 잘못된 것들을 억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안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마귀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의지에 반해서 억지로 성경을 읽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눈은 당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듣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을 듣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을 높이는 것이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듣고자 하십니까? 아무도 당신이 강제로 무엇인가를 들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듣느냐는 당신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자 하십니까? 아무도 당신을 강제로 교회에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교회에 와서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당신을 술집으로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오, 내 차가 자동으로 술집으로 가고 있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술집 주차장에 도착해서는, “내 다리가 자동으로 술집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발이 술집을 향해 걸어 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 그것도 당신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강제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으십니다. 단지 당신이 자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엄청난 투쟁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셨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짓지 않을 자유만 얻은 게 아니

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자유도 얻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자유가 모두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있는 만큼 책임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무엇에 제 자신을 내어 드리는 지는 모두 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인지, 죄를 위해 살 것인지, 모두 저의 결정에 달려 있고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모두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제가 하나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 앞에 놓인 선택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冠)을 받으리라.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만나니”(약 1:12-14)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험을 견뎌내는지 아십니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시험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남편이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당신을 유혹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내를 사랑하면 상대가 어떤 유혹을 해도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내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시험을 쉽게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죄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시험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묻는 것입니다.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외부의 무엇인가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15절)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해서는 언제나 죄와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이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

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여김”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죄의 종으로 내어 드린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15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제가 죄에게 저의 발과 손과 눈과 귀와 생각을 내어주면 죄가 저를 주관하게 됩니다. 제가 죄에게 통제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일단 죄에게 통제권을 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죄에게 나에 대한 권한을 주면 그때는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아예 죄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경계를 넘으면 통제하기 힘들어 집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잔 마시게 되면 더 이상 통제하기 힘들어 집니다. 왜냐하면 죄에게 자신을 내어 준 순간 죄가 나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술이든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멈추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면 그때부터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마약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어느 정도 마약을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면 결코 거기서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마약에게(죄에게) 넘겨주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죄에게 자신을 넘겨주는 그 순간부터 죄가 당신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알코올중독자가 된 사람 중에 처음부터 그렇게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임신한 어린 학생들 중에 처음부터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처음에 죄에게 통제권을 내어준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순종의 증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저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기 싫다고 생각하거나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며 의에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당신을 통제하시며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줘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고 가정을 보살펴야 합니다. 물론 당신 자신의 힘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을 포기하고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린다면, 그분이 당신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죄에게 자신을 내어 주었을 때 일어난 일과 정확히 반대방향으로 똑같은 일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당신은 자신이 그만 둘 수 있다고 생각한 곳에서 그만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준다면 당신은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자신을 내

어지기 전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엄청난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였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17절)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겉모습만 따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만두든지 분노하게 됩니다. 목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바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으면 합니다. 저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동기로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동기로 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임무는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같아도 마음에서부터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임무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모두 우리의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18-19절)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 무엇인가를 사랑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아마 대부분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시 디모데전서 1:12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당신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구원받기도 전에 바울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마귀는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귀를 위해서라면 세상 끝이라도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는 정확히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이나 죄나 세상에게 헌신되어 있었다면, 그 마음 그대

로 주님께 헌신하면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았듯이, 죄를 위해 살았듯이, 세상을 위해 살았듯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면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이전에 자신을 위해 살았듯이 이제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 마음을 다해서 섬기던 것을 이제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동일하게 마음을 다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모든 프로 축구 팀의 선수 명단과 성적을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프로 야구팀의 선수와 성적을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포츠에 헌신한 사람도 있고 가수나 영화배우에 헌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가수가 언제 데뷔를 했고 무슨 노래를 불렀고 가족 사항은 어떻게 하는 것을 모두 암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다고 하면서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간증입니다. 당신이 시간과 돈과 마음을 쓰는 것은 당신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간증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힘과 능력과 마음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누구에게 드릴 것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사용할 것입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20-21절)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 추구했던 것들은 당신에게 참된 유익과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구원받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과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대로 세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도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22절)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중간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받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게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23절)**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육신의 죽음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좋은 간증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받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당신이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미래도 사라지고 기회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당신은 아마 누군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시간에 담배를 피우러 가거나 술을 마시러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다른 죄를 지으러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자주 그러듯이 빈둥거리며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을 의의 도구로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

일 그가 죄에게 자신을 내어 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신은 아마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의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가져오십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다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내어 드린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의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즐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자신이 받은 구원을 즐기게 되면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섬기려 할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오직 주님께 내어드린 인생만이 생명이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께 당신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께 한번 기회를 드려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16강 율법으로부터 자유

7장

오늘은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율법으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 자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실행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배교한 시대에는 로마서 7장의 내용을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로마서 7장이 가르치는 교리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만일 설교자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운 기준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진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에서 성결과 순수함을 잃게 되면 수많은 성경의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교회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게 되면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을 통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가정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는 그대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이해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얘기했는데 누군가 그 얘기를 다른 식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내가 말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말하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는 욥의 부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의 부인은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 왜냐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보다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대로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은 인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법은 당신을 지배했습니다. 당신이 이 하나님의 법과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에 매여 있으며 죽으면 언제든 그 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2절)

여기서는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예화입니다. 당신은 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과 결혼한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자가 남편이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혼인 관계를 묶어주는 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주님 앞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혼인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남편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姦婦)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

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3절)

이것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여자가 A라는 남자와 결혼했다가 A를 떠나 B와 결혼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남편은 여전히 A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간음을 행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법적인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죽음만이 남편과 아내를 합법적으로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결혼과 이혼과 재혼을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4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십시오. 제가 법에 매어있는 한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법에 매어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는 옛 혼인 관계를 끝내고 새 혼인 관계를 시작할 방법이 없습니다. 옛 혼인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죽은 자로 인정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법에 매어있던 저를 죽은 자로 인정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율법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저와 하나님의 법 사이에 있던 옛 혼인 관계를 청산해 주었고 따라서 저는 새로운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침례를 받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물침례는 죽음이 아닙니다.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혼인 관계에 들어서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 관계는 반드시 죽음으로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골 2:14)

율법은 아직도 진리입니다. 하지만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은 아직도 의롭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은 아직도 죄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인해 저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남편이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새 남편과 관계를 맺기 원하지만 옛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하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 남편이 죽었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미 죽었는데도 땅에 묻지 않은 한 남자에 관한 기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밤에는 죽은 아내의 몸을 침대에 누였다가 아침이 되면 식탁 앞에 앉히고는 아침 식

사를 차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도 읽어주고 차에 태워서 드라이브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아내를 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끝난 관계를 청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옛 혼인관계로부터 자유로웠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남편을 위해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커피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죄에 매어있던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위해 아침을 먹고 죄를 위해 운전을 하고 죄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왜 옛 남편을 땅에 묻지 않느냐고 할 것입니다. 왜 이미 끝난 옛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옛 관계는 끝났습니다. 죽음이 그 관계를 끝장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를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지배하에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율법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하면 율법주의를 조장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고 무엇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7:4에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

하여 죽게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혼인 관계를 끝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려 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입니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짓기 전에 대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새로운 남편으로 받아들여 그분과 새 혼인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에 관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한 남자의 배우자로서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생산해 내야 합니다.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와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5절)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 안에 있다가 성령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육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옛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죄가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죄가 우리의 동기를 주관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인도하고 조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삶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6절)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의로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 이유는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당신의 옛 남편은 당신을 죽기까지 때리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주고 있는 새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옛 남편을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7절)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율법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지는 않을 뿐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선하기는 하지만 인간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그 안에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 교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8-9절)

이것은 각 개인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니 죄가 되살아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도적인 게 아니라 본성적인(자연적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것도 의도적인 게 아니라 본성적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도 의도적인 게 아니라 본성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범할 때가 옵니다. 죄의 샅은 사망입니다. 모든 죄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모든 죄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마음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두 살 때나 세 살 때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장하고 나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것은 곧 죄가 됩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의로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따라서 율법이 직접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구원받기 전의 인간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10-11절)

당신을 죽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이 아닙니다. 죄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이는 게 아니라 죄가 죽입니다. 하나

님의 말씀은 죽이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설교를 들으면 화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지한 채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12-13절)

다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당신은 동성연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성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용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거짓말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욕하고 저주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한 생각과 행하는 악한 행동들을 악하다고 제대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죄에 빠진 것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이 아닌 설교자들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설교자들이 성경을 펴서 죄를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죄인 줄도 모르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만들고 집이나 다리나 비행기를 만들 정도로 똑똑합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며 성경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없다면 예쁘게 태어나는 우리 아기들이 죄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경이 없다면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를 이 세상과 타협한 설교자로 바꾸어 강단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린 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믿어야지만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무엇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원하며 그렇게 해 주는 설교자를 찾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 올라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거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14절)

14절부터 25절까지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I)”입니다. 14절에서 1번, 15절에서 6번, 16절에서 3번, 17절에서 1번, 18절에서 2번, 19절에서 4번, 20절에서 3번, 21절에서 2번, 22절에서 1번, 23절에서 1번, 24절에서 1번, 25절에서 2번, me까지 합하면 횟수는 훨씬 늘어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SIN)의 한 가운데는 내(I)가 있습니다. 모든 죄의 한 가운데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제외하고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I)이 한 가운데 있어야 죄(SIN)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도, 무슨 일어서건 자신을 한 가운데 두면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교회의 한 가운데 당신 자신을 두면 바로 죄가 등장하게 됩니다. 교제의 한 가운데 자신을 두면 죄가 등장합니다. 어디에서건 자신을 가장 중요한 자리, 정 중앙에 두면 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을 때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15절)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자 중에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바르게 판단을 하면서 자신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내 자신은 그 일을 좀 행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른 일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화를 내지 않아야 할 때 화를 낸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은 적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이것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게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게 바른 일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내가 정 중양을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16절)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지적이 바르고 사실이 기 때문에 율법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내가 동의를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곳에는 야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날 TV와 학교 교육과 썬사미 스트리트(미국의 어린이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단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그들의 교육 목표입니다. 인간이 무슨 짓을 하건 대단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이랍니다. 인간이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나 대단하다면 왜 그렇게 많은 범죄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자전거를 훔치는 것일까요?

현대 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목도하는 대로 비참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아이

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17-21절)

21절에서 말하는 “한 법(a law)”은 앞에서 말하던 “그 법(the law)”이 아닙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22-23절)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육신은 당신의 혼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죄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의 육신은 항상 죄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육신이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은 단 한번도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당신의 육신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육신이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옛 생활보다 새 남편을 더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칠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전에는 아무도 억지로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 14:15)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육신 안에 있을 때 모든 게 망가져버렸습니다. 가정 생활을 망치고, 기쁨을 망쳐버리고, 성경 읽기를 망치고 교회 생활을 망쳐버렸습니다. 제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하면 문제를 더 엉망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 보려고 하면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질 뿐이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건전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죄를 경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도록 격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억지로 사랑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에 대해 가르치면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칠 수는 있지만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각 개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비방하고 헐뜯을 것인지는 그 사람에게 달린 일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23절을 보겠습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생각이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가게 놔두면, 결국 당신의 생각은 당신을 사로잡아 죄에게로 끌고 갈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 악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놔두면 그 끝은 언제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고후 10:3-5)

잘 들어보세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오를 때, 저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아 죄에게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을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생각을 사로잡

아 주님께 감으로 인해 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전쟁이 없는 것처럼 게으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정욕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점령당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영적 전쟁을 합니까? 생각을 더 진행시키지 않고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이것을 가져 왔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바로 전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단순합니다.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누구에게로 가져 가느냐에 따라 죄에게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제가 아내에게 생각을 두면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아내에게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생각을 두면, 저의 생각 속에 항상 그분을 최우선 순위에 두면 결코 어떤 죄에게로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고 생각이 향해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디로, 누구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원하고 생각이 향해 있는 대상이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급할 때만 가끔씩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분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죄에게 사로잡혀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죄에 대해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죄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죄가 처음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갔다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건 간에 죄가 생각났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 간다면 결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생각이든 적절하지 않은 것이 머릿속에 등장하면 그것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승리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24절)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육신이 바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25절)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만을 생각했을 때에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승리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놓고는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모든 죄(SIN)의 중앙에는 자신(I)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바른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17강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이 구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꼽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바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꼭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알거니와”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을 사랑하고 모토로 삼는 많은 사람들은 문맥과 상관없이 이 구절 하나만 떼어다가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이는 슬픈 일입니다.

먼저 이 구절의 문맥을 살펴봄으로 이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런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썩음의 속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2절도 보십시오.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제는 “전체 창조물이…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고 “산고”를 치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도 보겠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26절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문맥의 분위기를 보면 뭔가 이 세상에서 번창하고 잘 되어 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로마서 8장의 본문은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정

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땅은 저주 아래 있고, 우리가 속한 사회도 저주 아래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몸도 저주 아래 있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악함 속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미혹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가장 확실한 뉴스를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을 이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도 선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도 선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의 기록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잘못되었고 저기도 잘못되었고 여기도 문제이고 저기도 문제이고 모든 것이 선을 이루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과 아픔과 모든 종류의 고난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음이 있고 저기에는 산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의 기록자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의 기록자는 신음과 고통과 산고와 씩음을 이야기하다가 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헛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헛된 욕망에 차서 신기루를 쫓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쾌락을 찾

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이생에서의 삶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나이 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나이 듭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몸도 연약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도 연약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직장 생활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직장 생활에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직장 상사에게 잘못을 지적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직장 상사에게 잘못을 지적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불쾌한 날을 보낼 때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불쾌한 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차이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차이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차이점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해고되고 병들고 나쁜 일이 닥쳐 와도 이 모든 일들이 지나면 선을 이루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편과 아내가 죽은 아기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남편과 아내가 죽은 아기의 장례식을 치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둘 다 신음하고 있고 마음이 무겁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쪽 가정은 소망이 있고 다른 쪽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한쪽 가정에는 위로가 있고 다른 쪽 가정에

는 위로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암으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 아내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남편이 암으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 아내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 다 신음하고 있고 마음이 무겁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이 보이니까? 한쪽은 소망이 있고 다른 쪽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로마서 8:28은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8:28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변할 새로운 때가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칠흑같이 어둡지만 아침이 되면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27-30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증표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빌립보 성도들, 당신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몰려오고 실패하게 되면 옅은 미소를 띄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하, 너 하나님을 믿는다며? 걸핏하면 주

님 어찌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 같더니 뭐 제대로 안 되나 보네? 난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지. 항상 성정이 어찌고 하더니 꼴이 말이 아니구나. 나는 네가 전능자를 믿는다고 해서 뭐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별 거 없구나.’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당신을 조롱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주눅 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실패와 고난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내 앞에 어떠한 고난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보는 대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확신 가운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처럼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모든 고난에도 주님께서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보다는 고난을 이겨내는 간증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돌아가고 있을 때에는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눈부시게 비칠 때에는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이 험통할 때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간증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4:8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끝으로 형**

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런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꼼꼼이 생각하라.”

왜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진실하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의롭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이든지 사랑스런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미움으로 가득찬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꼼꼼이 생각”하십시오. 선한 것들을 꼼꼼히 생각하십시오.

이제 다시 로마서 8:28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뒤에는 선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것들을 따라가면 결국 선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단계를 지날 때에는 그러한 약속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각 단계를 지날 때에는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과 조롱당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창세기 3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선과 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

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창 2:17)는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선과 악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른 것과 잘못된 것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악은 잘못 행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악과 잘못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악은 잘못된 행위의 결과입니다. 선은 바른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28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르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행위의 결과와 열매로 선한 것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르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이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에도,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바른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상태로 남아 있다면 일이 잘못되고 있을 때에도 결과와 열매는 선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고”(마 5:40)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 행하고, 세상이 잘못 행해도 당신은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과는 6:33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5:39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사람들이 당신을 악하게 대하고 이 세상이 당신을 악하게 대해도 당신은 바르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 바로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신사답게 대해주고 선의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 앞에 펼쳐진 인생길이 장미빛일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인생길은 결코 장미빛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앞에 어떤 방해꾼이 나타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당신은 바르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바른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셋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세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가사를 담은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40-42이 첫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

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음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4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들의 결과는 지옥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선이 아닙니다.

이제 둘째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19-21 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

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복음서를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첫째 가는 큰 계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마 22:37-38)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서서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마 22:39)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주님께 큰 명령이 무엇이냐고 하는 한가지 질문만 했습니다(마 22:36).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문맥은 바로 마태복음 22장의 문맥과 정확히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교회에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어느 누구와도 교제를 나누지 않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기 바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형제와 아무런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교회에도 가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만일 혼자만 신앙 생활을 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로마서 8:28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다른 구원받은 사람과 형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와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 형제를 향해 쏠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과 요한일서 4장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기는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도 나누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다른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그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가 너무 육신적이어서 그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따분해서 교회에 오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성령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주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싫은 것이고 다른 형제와 교제를 나누기 싫은 것이며 다른 형제를 사

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째 부분인 사랑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따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가 사랑이 없고, 예배가 지루해도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면 그러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다 나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고, 다른 형제들이 다 형편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악하고 열악하고 나빠도 성령 충만하여 바르게 행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다른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제 셋째 체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것도 해야하고 저것도 해야하고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 않나요? 어휴, 그런 것들을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어휴, 저것도 해야 하나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저것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교회에 가야 하나?” 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합니

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요한일서 5:1-3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뿐만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강제로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며,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 8:28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가야할 인생의 길은 항상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일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엉망진창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목적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본문에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주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독자 중에 현재 직면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그 목적을 찾아 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다음 절인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지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히 5:8)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사 53:3)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셨고 오해를 받으셨으며 거절당하셨고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

나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바르게 사셨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주님은 피곤함과 배고픔을 느끼셨고 사람들에게 얼굴도 맞으셨으며 친족들로부터 조롱도 당하셨고 결국 죽음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온전히 담당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로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한 대사가 되기 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바람은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온전해지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행위와 갈망을 포함한 우리의 전 인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같아지는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런 거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런 고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7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신비를 우리가 알도록 하셨습니다.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총명한 때(이것은 영원을 의미합니다)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큰 그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서 너무 큰 문제가 있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총명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엡 1:10-12)

저에게는 앞으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라간다면 상급과 왕관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천사들과 그룹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 주님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를 드릴 것이고, 구원받은 무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어느 날, 제가 천년왕국의 백성들 앞에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저의 어깨를 끌어안으시며 천년왕국의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이리 오너라 아들이아, 내 백성들에게 너를 소개해 주마. 백성들이여 들으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한 때는 잃어버린 자였으나 구원을 받았고 죄 가운데 있었으나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주님 이번에는 제가 주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천년왕국 백성들이여 들으라. 여기 계신 이분께서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요 모든 위험과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내신 분이시라.” 그러면 그곳에 모인 천년왕국 백성들은 모두 머리를 숙여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저의 인생에 주님께서 해 주신 일로 인하여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성경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이 시작되어 수십만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은혜로 저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저를 위해 예비해 주신 영원에서의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으로 인해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을 겪었는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계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달력을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시간표에 의하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엄청나게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셋째 목적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 제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요한일서 3:5-8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저의 간증을 망치려고 일을 벌일 때마다 제가 주님께 저 자신을 내어 드려 마귀를 물리친다면 그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한 것입니다. 마귀가 저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일을 벌일 때마다, 제가 주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자신을 내어 드려 나는 바르게 행할 것이고 주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마음먹는다면 이로써 마귀의 일들을 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 8:28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모든 것들이 인생에서의 안락과 편안함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이 협력하여 선(이것은 결과이고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을 이루느니라.”

이제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인생에 닥칠 일들로 인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 닥치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느라 수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수많은 시간을 낭비했으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바로잡고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느라 수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바로잡으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여기 내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바로잡아 온전히 나를 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혹시 로마서 8:28을 아직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적용은 정확히 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르게 적용하

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제18강 생명의 성령의 법

8장

우리는 로마서 6장, 7장, 8장, 그리고 9장, 10장, 11장을 공부하면서 문맥을 살펴볼 것입니다. 한 구절만 떼어서 인용하면 문맥과 상관없는 내용을 끼집어 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6장을 해석할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구절이건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로마서 6장을 복습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대속을 통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선택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을 육신에게 내어줌으로,

육신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더 깊은 죄에 빠지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육신과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으며 옛 관계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마귀도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를 통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등장하는 “나(I)”가 바로 모든 문제의 주범입니다. 모든 죄(SIN)의 중심에는 내(I)가 있습니다. 어디에서건, 어떤 일에서건 나를 중심에 두면 죄가 등장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던 구원받지 못했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되고 결국 죄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며,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죄에게 자신을 내어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된 희망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문맥에서 떼어 놓고 보면 많은 구절들이 일시적인 것들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저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인용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정죄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는데 인용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38-39절)

8장 1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8장 끝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문맥은 누군가를 헐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갖고 복된 소망 속에 살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습니다. 저는 정죄 받지 않고 떨어져나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3장과 4장과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육신대로 살면서 승리커녕 평생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구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접기도만 하다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항상 의심하다가 “매번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해도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육신과 죄에 대해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을 통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육신에 자신을 내어 주어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게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로마서 8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로마서 8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8장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

신 것에 대한 결론이며, 로마서 전체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정죄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당신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겁니다(요 3:36).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 3:18)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시적인 상태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당신이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문맥을 따른 해석입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에는 8개의 법이 나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저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상위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구원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옛 법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위 법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 법은

“네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므로 그 죄값이 치러졌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범죄하는 혼은 죽을 것이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속하여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을 믿었습니까? 당신이 그분을 믿었다면 구속 받았으며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의 소유물이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법,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당신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당신을 막고 상처를 주고 방해를 하지만 당신의 생명을 취해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미 정죄를 받았지만 그 위에 또 정죄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개인적인 구원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구원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3절)

성경은 예수님이 “죄 많은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고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지 않고 “죄로 인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죄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가 저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정죄 하십니다. 구원받고 나서 저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속사람의 위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는 육신 안에 있었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위치가 바뀌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 안에 있었다면 죄가 저를 정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죄하십니다.

제가 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을 하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있는 위치로 인해 안전합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4절) 이것은 하나님께 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역시 일시적인 상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위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을 지키셨습니까? 그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도 밖이나 다른 곳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그

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당신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나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5-6절)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읽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왜 혼란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을 따라 걷지만 생각으로는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둘로 찢어버리는 일입니다. 자신만 둘로 찢는 게 아니라 가정도 둘로 찢고 교회도 둘로 찢고 인생도 둘로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귀가 한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생각한 자기 자신이 한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자는 한 방향으로 당신을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같은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생각은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당신을 둘로 찢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약 1:8)**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영적인 생각을 한다면, 생명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로 나의 생각도 가기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나의 마음이 가고자 하는 길이 같다면 모든 갈등은 사라지고 평안함만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과 즐겁게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게 바로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과 성경적인 설교와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찬양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인도해주시는 성령님과 자신의 생각이 모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대립과 투쟁이 아닌 참된 평안과 조화를 만들어 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7절)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하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다툼만을 일으킬 뿐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강제로 영적인 삶을 살게 할 수도 없고, 강제로 헌금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강제로 복음을 전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강제로 교회에 오게 할 수도 없고 기도회에 나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규칙이나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들어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정직하게 살도록 하는 법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활동을 즐기도록 하는 법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법은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동시에 아무런 기쁨이나 평안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죄들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모든 일과 주신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원받았지만 비참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8절)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더 이상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말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영터리로 하면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육신 안에 있든지 아니면 성령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둘 중 하나에만 속합니다.

8절에서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로마서 8장 1절이 일시적인 상태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영원한 위치에 대한 진술인지 아시겠습니까? 4절도 왜 일시적인 상태에 대한 게 아니라 영원한 위치에 대한 진술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히 11:6).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9절)

우리는 1절이 일시적인 상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위치에 관한 말씀이라고 확증했습니다. 4절도 일시적인 상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고 확증했습니다. 8절도 일시적인 상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님의 사람입니까?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구원받아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님의 소유물이며 그분의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4절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

라 걷는 우리 안에서…” 8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성령님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성령 안에 있으면 저는 성령을 따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으면 모두 성령 안에 있으며 성령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착지는 성령님께서 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성령을 따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성령 안에 있다고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행위보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느낌이나 행위가 아닌 성경에 사실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10절)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까?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일 5:7).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안에 있으면 영육간에 건강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직 육신 가운데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육체적인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 되시느니라.” 누구의 의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당신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육체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죄로 인해 죽는다 해도 당신은 성령님을 통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11절)

당신 안에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이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영께서 당신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리다(quicken)”의 의미를 아십니까?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요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당신을 살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게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

합니다. 저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도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벧전 1:9, 약 1:21, 히 10:39). 당신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고후 5:8). 사람들은 당신의 죽은 몸을 땅에 묻을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죽은 몸을 다시 죽지 않도록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게 살게 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으면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죽으면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제 몸은 다시는 죽지 않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빛지지 아니하였느니라.”(12절)

당신은 몸에게 무엇을 빚졌습니까? 아무 빛도 지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님께 무엇을 빚졌습니까? 모든 것을 빚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몸 안에 있는 당신은 당신을 방해하는 몸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살면 지옥에 간다는 험박이 아닙니다. 문맥을 잘 보십시오. 당신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죽음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언젠가 죽게 될 것을 위해 전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원

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이 죽을 몸과 죄와 육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전혀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을 때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죽은 사람의 몸에 감아놓는 것으로 온 몸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생명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셔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었을 때 그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전혀 생명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몸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위협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리를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14-15절)

만일 1절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위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상태에 대한 것이며,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도 정죄 받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4절도 일시적인 상태에 대한 말씀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로마서 8장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아버지다.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해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다시 태어난 영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화답하여 주님을 위해 살

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기쁨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16절)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믿는 자들의 영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육체의 감각을 통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성령님을 통해 주신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의 마음이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대해 말씀하실 때 당신의 마음은 그것이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고 화답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말씀에 마음이 화답한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무슬림은 복음의 말씀에 화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교도들도 복음의 말씀에 화답하지 못합니다. 그들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복음의 말씀에 화답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분들은 구원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나니라.”(17절)

성경은 “고난을 많이 당하면”, 혹은 “충분한 고난을 당하면”이라고 말
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체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리고 그 육체는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로 인
해 고통 당하는 육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에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 성경을 왜
곡합니다. 성도들을 위협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
과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고 위협합니다. 성경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당하고 투옥되어야만 상속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
경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
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
하시거나 벌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
입니다. 당신이 고난을 받건 받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
버지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을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은 우리를 위
협하거나 겁주기 위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의 눈과 귀와 코와 치아와
팔과 다리와 허리가 약해져도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
입니다. 이것은 정말 복된 소망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다.”(18절)

고난과 구원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현재 받고 있는 고난과 앞으로 참여하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당신은 그 고난 가운데 빠져서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량하게 시간만 보내다 주님께 갈 수도 있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오기 전에 마라톤의 마지막 구간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은사주의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거짓 교리를 미워할 뿐입니다. 왜 제가 그들의 거짓 교리를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야 하는 순간에 그분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화가 났거나 당신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실 때 만큼이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작아지지도 않았습니다. 18절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19-20절)

노아의 시대에 있던 홍수로 죽은 동물들은 자진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로 인해 죽은 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인간을 대신해 희생물로 드러진 것도 그들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인간의 음식과 의복을 위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되었는데 자진해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모든 창조물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을 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21-23절)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정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몸으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몸으로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구속 받았지만 당신의 몸은 아직 구속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당신의 혼이지 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몸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혼의 구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둘이 관련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을 위협하여 자신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24-25절)

여기서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을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는 것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희망은 확실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 몸을 보지는 못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26-27절)

만일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제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제가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할 때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기도도 제대로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눌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온 베드로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가지 말라고 했지만 주님께서서는 간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성령님께서서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을 통해 자신이 우리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로도 주님과 관계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해서 깨지는 관계가 아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몰라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것도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걷는지, 고난을 당하는지,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정죄함이 없습니다. 잘못을 해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실패를 해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28절)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잘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29절)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정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누구도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예정되었다는 말입니까? 본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끝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예정된 길로 집어 넣으셨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예정된 것입니다. 구원받도록 예정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예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길의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30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할 일을 과거형으로 기록하셨습니다. 당신이 수백만년 후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31절)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의 기

록 목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시려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32절)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은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받았고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33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이사야서 4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선택 받은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 안에 있으면 아무도 당신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오,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34절)

신명기 19장에서는 두 세 증인의 입이 아니면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당신을 대적하여 정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1에 의하면 증인으로 참석할 유일한 분은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정죄할 수 없고 정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번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

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35절)

성경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 놓으리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는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분께서는 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36-39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사망은 죽음 이후의 모든 일들을 포함합니다. 장래 있을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앞으로 내가 할 모든 일들, 앞으로 내가 범하게 될 모든 죄들을 포함합니다. 어떤 창조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버리지 않으시겠지만 스스로 구원을 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창조물이라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창조물이라면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로마서 8장에 없는 것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는 약속이 없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에서 문맥에 상관없이 몇 구절을 뽑아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영원한 위치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을 통해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무슨 일을 당하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엇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으며 성령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제19강 개인과 민족

9장

오늘은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성경의 어떤 장보다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칼빈주의자들은 로마서 9장을 영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9장을 자신들의 교리를 위한 안식처로 여깁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 인간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4장과 5장을 통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살펴보았습니다. 6장, 7장, 8장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는 신약성경의 구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옛 언약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계획을 포기하셨는지,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문자적인 게 아니라 그저 상징적인 것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들에게 하신 약속도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칼빈주의자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불행한 점은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다루시는 것과 개인적으로 다루시는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구절이 민족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의 차이, 그리고 민족과 개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서둘러서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문맥에서 떼어내서 한데 모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문맥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1-4a절)

로마서 9장의 문맥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임

니다. 뒷 부분도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30-31절) 로마서 9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같은 장 마지막 절인 21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로마서 10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25절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총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25-26a절) 로마서 1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다음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율법과 상관없이 은혜와 믿음을 통해 개인들을 구원하신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과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전의 약속을 모두 폐기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하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깨지도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실행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세 장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실 때, 또 앞으로 다루게 될 때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각각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문맥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개의 장에서 구절들을 읽고 해석할 때 이러한 문맥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세 장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 구절들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칼빈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후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8을 보겠습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 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복음과 선택은 완전히 분리된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받고도 복음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칼빈주의자들 중에 선택 받은 사람도 복음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 칼빈주의자들은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11장의 문맥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선택받았으면서도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

만 민족적으로 약속의 땅과 상속 재산과 축복을 받기로 선택 받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일정 기간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문맥을 잘 살펴본다면, 칼빈주의자들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공격할 때 당신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11장 28절은 가장 확실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택은 복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 사이에 맺은 국가적인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게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1-2절)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부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3절)

우리는 대부분 바울과 같은 복음전도자나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큰 근심과 슬픔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담을 우리 마음에도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부담과 마음이 바울의 인생을 인도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그의 인생길과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4절)

우리는 로마서 5장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의롭게 되고 구속 받으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예전에 하나님에 의해 입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사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9장의 문맥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 선택 받은 것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들” 하나님께서는 중국인들과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인들과 언약을 맺으신 적도 없습니다. 인디언이나 백인들과 언약을 맺으신 적도 없습니다. 극동아시아인과 언약을 맺으신 적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로 별개의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서는 다른 어떤 민족도 받았던 적이 없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선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예로 “율법을 주심”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도 율법 아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유대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김” 이 세상에 당신의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당신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당신의 거룩한 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당신의 제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 의하면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증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그들에게는…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로마서 9장의 시점에서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보면 문맥을 보다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약속을 폐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을 통해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구약성경의 약속을 무효로 만든 게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분명하게 아직도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5절)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누가 아기 예수님을 양육했습니까?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 양육했습니다. 누가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을 목격했습니까? 누가 그분이 공짜로 주시는 점심을 얻어먹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까?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누구와 특별

한 관계를 맺으셨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6-13절)

문맥을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복음에 대해 단 한 마디라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마디라도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언약들, 약속들, 율법,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특별한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종과 아내를 통해 아이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다. 두 아이의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삭을 통해 태어난 자만 언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의 자녀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누군가의 행위를 따른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온 선택은 개인이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선택은 언약들, 약속들, 그리고 율법을 주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로마서 9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에서는 지옥으로 보내실 것을 결정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9장은 그런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걸쳐 개인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14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선택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가장 먼저 생각했던 존재가 바로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위해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바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바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면 누구도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처럼 형편없는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형편없지 않은 민족도 있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훌륭한 민족이 따로 있기는 한가요?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세상에 이처럼 형편없는 민족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사를 공부해보니 모든 민족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이 어느 국가의 역사나, 어느 민족에 대해 공부하던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타락한 인간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흠을 베풀 자에게 공흠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공흠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15-17절)

칼빈주의자들은 17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지옥에 보내시기로, 그리고 모세는 하늘나라에 보내기로 예정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

만 문맥은 전혀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민족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언약은 땅에서 평안하게 거하는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파라오는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었습니까? 17절을 잘 보십시오. “바로 내가 이것과 같은 목적을 위해(Even for this same purpose)” 어떤 목적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어디에 있었습니다. 어디를 갔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집트를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같은 목적으로 모세와 파라오를 선택하셨습니다.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파라오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하여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와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의 문맥입니다.

그렇다면 칼빈은 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성경을 믿지 않는 로마 가톨릭 사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아닌 칼빈주의를 진리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칼빈주의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구절만 인용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성경을 문맥에서 끄집어 내어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해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선택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바

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려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출애굽기에 기록된 열 가지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파라오가 완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마술사들이나 그들의 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강하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파라오가 완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그리고 이 세상 종교는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파라오가 계속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유월절 어린양과 그 피의 능력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흠 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자신의 권능을 보이기에 파라오보다 더 좋은 그릇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나 하늘나라에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능을 보인다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파라오와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사실이 중요합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테러국가의 지도자나 김정일도 모두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 나쁜 대통령이나 독재자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생각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타락한 국회의원을 선택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것은 개인의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보냈는지 아십니까? 루즈벨트나 처칠이 그들을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목적을 위해 누군가를 선택하십니다. 이슬람은 500년에 한번씩 유럽을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1500년 전에는 모하메드가, 1000년 전에는 살라딘이, 그리고 500년 전에도 이슬람은 유럽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전하게 하기 위해 개신교나 천주교를 통해 이슬람 세력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와 허락하심으로 인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계시록에 기록된 것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민족적인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것이 우리 개인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민족적으로는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일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누군가를 선택하십니다.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박하게 할 자를 친히 강박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18-19절)

이것은 마치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맥은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면 성경은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 23:37)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개인들에게 구원받기 위해 나아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사 55:1) 예수님께서서는 잔치를 준비하시고 원하는 사람은 참여하라고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성령님을 거역했다고 지적했습니다(행 7:51).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왕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왕이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지만 민족은 그렇지 못합니다. 민족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민족에 속한 개인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구원받을 수도 있고 거절하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의 문맥입니다.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20-21절)

이 구절 역시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개인의 구원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인용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18장을 보겠습니다.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하시기에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 위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훼손되매 이에 그가 다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되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은 대

로 그것을 만들더라.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같이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하리라고 말할 때에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또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때에 만일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리라고 말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렘 18:1-10)

성경이 토기장이 이야기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명백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민족과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존귀에 이르는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에 이르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을 거절함으로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속한 국가나 민족이 그렇게 되도록 할 수는 없지만 당신 개인이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안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도시의 거주민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도 그

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개인들을 멸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훔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니느웨에서 설교한지 15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니느웨에 관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구원과 멸망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민족과 왕국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의 선택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시대의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류는 지금 저주 아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류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류에 속한 개인이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그 개인을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개인은 구원받지만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대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은 그가 원하는 대로 구원해 주시지만 민족적인 심판은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개인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 민족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시지만, 심판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진리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며 가나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메시

야를 거부하자, 그 개인들은 약속의 기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약속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해 하신 자신의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족과 개인에 관한 말씀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 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함과 같으니라.”(22-26절)

이스라엘은 미래가 예정된 민족입니다. 이방인도 미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가 되자 미래가 예정된 한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교회가 되도록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속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미래가 예정된 다른 민족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예정된 미래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에 예정된 미래가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아 영적으로 출생했다면 교회에 예정된 미래가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 유대인, 이방인, 이 세 민족은 각기 예정된 미래

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의 문맥이고 이것은 성경의 어디와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모순을 일으키면서 교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27-28절)

이것은 대환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결국 대환난 때에는 적은 수의 남은 자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는 결국 약속의 땅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개인에 관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니라, 함과 같으니라.”(29절)

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무엇과 같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이집트 같다고 하십니다. 대언자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의 자매인 소돔과 같다고 했습니다. 소돔이 유대인들의 자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소돔은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멸망했는데 이스라엘은 왜 멸망하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는 언약을 맺으셨지만 소돔과는 언약을 맺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돔은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돔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롯은 소돔

에 있었지만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멸망하는 민족에 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 민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택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민족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성경은 당신이 결코 선택받았다고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된 것은 민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지 개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나?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30-33절)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계로 인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은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민족적으로 약속의 땅에 평화롭게 거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개인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개인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개인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언약도 없고, 제단

도 없고, 제사장도 없지만 개인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12개의 이방인 국가들은 유대인들 주위에 거하게 됩니다. 대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오고 환란 끝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의 국가를 머리 국가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유대인들에게 올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개인의 운명은 바꿀 수 있지만 민족의 운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9장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해석만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고레스를 기억하십니까? 고레스는 이방인 왕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 외국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저는 고레스가 하늘나라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자유롭게 하리라는 사실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에게는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의 운명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민족은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

만 개인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계속, 계속, 계속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시오. 로마서 9장을 통해 저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0강 로마서 보충 설명

오늘은 로마서 강해를 나가지 않고 잠시 보충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슬람교에는 모하메드가 믿는 사람 안에 있고 믿는 사람이 모하메드 안에 있다는 교리는 없습니다. 불교에도 부처가 믿는 사람 안에 있고 동시에 믿는 사람이 부처 안에 있다는 교리는 없습니다. 천주교에도 마리아가 믿는 사람 안에 있고 믿는 사람이 마리아 안에 있다는 교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교리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영적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외면

이 아닌 내면에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공부를 통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로마서에 나오는 8가지 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로마서에 나온 “모든(all)”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 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 그리스도와 함께(with Christ)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with Christ)” 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보시고, 하나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당신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6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과 저의 죄값을 치러주셨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

신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나 하면, 당신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에 대한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매를 맞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동안 지옥에 가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들은 모두 같보리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인정해 주셨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받아야 할 벌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불해야 할 빚값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골 2:12)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인정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으며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났다고 인정해줍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저의 몸은 아직 구속 받지 못했습니다. 저의 몸은 아직도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죽으면 저의 몸은 땅 속에 묻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는 자로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 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땅 속에 묻히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땅 속에 묻혔었기 때문입 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 부활의 날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 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묻혔고 일으켜졌기 때문 입니다. 저의 혼은 살아있습니다. 저의 혼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 의 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의 몸은 땅 속에 묻혀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다나 강물에 뿌려질지 도 모릅니다. 상어 뱃속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몸이 이 세상에 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 세 상에 있는 동안 당신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 폐가 마지막 숨을 내설 때, 저는 이 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덤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 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활의 날을 기다릴 필 요도 없습니다. 이미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금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 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엡 2:4-5)

여기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은 영어로는 “quicken” 라고 하는데 이 말 의 의미는 “다시 죽지 않도록 살린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활했습니

다. 하지만 그는 죽었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었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죽었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묻히시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quicken). 그분은 다시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났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실 수 없는 것처럼 죽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단지 죽음으로부터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묘자리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한 행위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후에 자신의 몸이 어디에 묻힐지를 봐두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어디를 묘자리로 봐두던 상관없이 당신은 그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누리며 살아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그의 몸을 땅 속에 묻게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보다 더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땅 속으로 묻히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땅 속에 묻히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몸일 뿐입니

다. 당신이 이 낡은 몸을 벗어버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이사 가는 것일 뿐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져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3:1-3)

셋째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고 마귀는 저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생명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생명은 셋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저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그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저의 생명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현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지금 당신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더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지금 구원받은 것이나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나 똑같은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면 안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더 안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하늘나라에

있건 이 세상에 있건 상관없이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더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건 이 세상에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똑같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아직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것과 같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셋째 하늘에 그분과 함께 앉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 그리스도 안에(in Christ)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in Christ)”이라는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롬 3: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의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자신의 영광에 이르는 완벽한 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러한 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

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고전 1:2)

저는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합니다. 따라서 제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는 거룩해 졌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히 7:26). 그런데 저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구별(성별)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이 항상 그분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보다 더 구별되고 거룩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별 된 삶을 사는지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하건 상관없이 저는 구별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셨을 때 저는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구별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는 문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 저의 몸도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즉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제도와 시스템에 속하지 않게 되었고 이 세상 자체에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언젠가 제 몸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엡 1:3)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중 정말 중요한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달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중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받았습니니다. 완전히 배교해 버린 기독교는 하루 종일 무엇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물질적인 복을 구합니다. 육신적인 축복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능력과 거룩함과 진리와 빛과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용서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힘과 담대함과 용기는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창고는 모두 열려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원하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창고로 들어가서 쇼핑 카트에 끌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값이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

두 당신의 것입니다.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을 물질적인 축복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성경을 잘못 적용해 놓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하늘에 있는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또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언제든지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모두 주셨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을 사용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영적인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빌 1: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이라는 것은 그분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열매들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가**

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골 2:8-10)

이것은 에베소서와 비슷한 말씀이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살후 1:10-12)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완벽해졌고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로마서에 나오는 8개의 법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6은 인간의 숫자입니

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로마서는 신약성경에서 6번째 책입니다. “로마서(Romans)”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6개의 철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어로 보면 로마서 6장 6절 6번째 단어는 인간(man)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구원받은 인간이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1) 모세의 율법(the law of Moses)

로마서에는 8개의 법(law)이 나옵니다. 예를 들기 위해 로마서 2:12을 보겠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19도 같은 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12도 같은 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성경에서 법(law)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law)”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자연법(natural law)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롬 2:14-15)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 만든 법 중에는 “자연법(natural law)”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의 법(law of natur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이 자연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양심의 증언을 따르는 것입니다.

(3) 믿음의 법(the law of faith)

로마서 3:27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는 “믿음의 법(the law of faith)”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도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무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롬 4:3-5)

믿음의 법은 어느 시대나 사람을 막론하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사람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필요한데 인간 자신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라고 인정하실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못했고 자연법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법에 의해 저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법은 모세의 율법이나 자연법보다 상위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모세의 율법과 자연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의의 법(the law of righteousness)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나?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롬 9:31-32)

성경에 의하면 의의 법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른 방법으로 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에게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법도 어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어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의 법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체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마 19:16).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어느 명령이니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의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5-6) 죄의 법(the law of sin)과 생각의 법(the law of mind)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롬 7:16) 여기서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7:21-23)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3가지 법이 나옵니다. 먼저 16절에서 본 것처럼 모세의 율법이 나옵니다. 만일 제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저의 양심(자연법)이 저를 정죄할 것입니다. 제가 의의 법을 따르고자 한다면, 즉 율법에서 한 두 가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려고 한다면 저는 결국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제가 생각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제가 모세의 율법이나 자연법이나 의의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당신이 선을 행하여 구원받아야겠다고 생각해도 결국 그 생각은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결국 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죄를 버리려고 하지만 결국 항상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연습을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싸워 사로잡아 가는 죄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죄의 법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7) 하나님의 법(the law of God)

로마서 7:22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5절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받은 새 사람이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8) 생명의 성령의 법(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의 육신은 계속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롬 8:1-2)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 죄와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양심이 완전히 확인 되기 전까지는 “자연법”, 즉 영심에 따르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한 일을 하면 숨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의의 법”입니다. “생각의 법”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하지만 바르게 하려고 생각할 때마다 결국 “죄의 법”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와 주심으로 다른 어떤 법을 지키지 못해도 결코 정죄 받지 않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법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믿음의 법을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4. 모든(all)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나온 “모든(all)”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가?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all)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롬 3:9) 23절도 보겠습니다. “모든(all)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9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23절).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all)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롬 8:32)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받은 모든 사람도 정말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선택 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all)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2-1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신 동일하신 주님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그분은 당신의 주님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낮이 오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고 해서 낮이 오지 않는 게 아니듯 말입니다. 누가 믿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님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한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불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all)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롬 15:33)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

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1강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10장

오늘은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이해하기 매우 쉬운 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주시고 축복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자 하는 저희 마음에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문맥이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세 장은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납니다. 이 세 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유대인들과 현재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구원이 율법이 아닌 은혜로 받는 것이라면,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국(물리적인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영적인

왕국)을 다루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모두 무효가 된 것인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거나 그 약속의 대상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교회가 들림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 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의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 보내기로 결정하니라.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행 15:1-5)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은 “믿는 자”보다는 “바리새인”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우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보다 “침례교회” 혹은 “독립침례교회”를 더 내세운다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 속했는지, 혹은 어느 그룹에 속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믿는 자들”보다 “바리새인”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교단이나 교회보

다 “믿는 자” 라는 정체성을 첫째 자리에 두는 사람들과 만나면 다름을 일으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많은 논쟁이 있는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 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6-9절)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술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전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며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서로 완전히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메지 못하던 멩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10-11절) 계속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매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 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

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13-17절)

16절에서 말하는 “이 일들 뒤에(after this)”란 어떤 일들 후를 말하는 것 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고,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this)”이란, 복음을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벗어나 교회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 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말씀을 율법 아래 있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교회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완성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셨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 왕국이 아니고, 하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은 그 대상에게 정확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기록된 이유는, 로마에 있던 사람들도 유대에 있던 사람들처럼 교회와 유대인에 대해 혼란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속한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 무슬림들을 죽인 이유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입니다. 개신교인들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낸 이유도 교회와 유대인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선택을 받은 백성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평이하게 기록되었는데 그것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은 이방인들도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실 것이며, 지상에 속한 유대인들은 지상에 남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모든 일이 기록된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9:31-33)

하나님께서 지상에 속한 백성에게 지상에 속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는 땅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는 그들이 특정한 지역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으로 인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상에 속한 언약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선두주자인 침례자 요한이 등장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에 대해 소개했지만 그들은 거부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자임을 보여주셨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물리적인 왕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6-8)

베드로는 예수님과 삼 년 반이나 함께 있었지만,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말고 왕국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에 걸려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언약과 거룩한 도시와 성전과 제단과 모세의 율법과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

들의 혼의 구원을 위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인 구원 못지 않게 개인적인 구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1절) 유대인들은 언약과 약속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2절)

이 말씀은 신실하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불쌍한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또 그들 못지 않게 열심히 물몬교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는 모든 영적 소경들에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몬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열심은 있으나 구원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3절)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칭하다고 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지성이나 이성 없다고 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다(ignorant)”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아십니까? “무시하다(ignore)”는 말에서 왔습니다. 유대인

들은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구원자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폭풍이 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삼 년 반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감히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매일의 삶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구원자에 대해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자를 알 수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에게 구원자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구원자를 원하지 않았고 구원자에 대해 무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자에 대해 무지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종교활동을 하는지 말하고 얼마나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 전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의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 자신이 어떤 종교활동을 했는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3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활동과 선행과 악행을 하지 않음을 내세우는 것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내세우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행위와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이러한 진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자랑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여쭙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질문한 그대로 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질문을 한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채 근심하며 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종교인들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이외에는 무엇을 한다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도 없고, 반드시 영접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도 없으며,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한다는 말도 없고, 구원받는 순간 특정한 느낌이 들어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가 자신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곳에 가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을 겁니다(엡 2:6).

복음과 성경적인 용어들을 잘 알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용어를 전혀 모르고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죽으면 하늘나라로 갑니까? 무슨 근거로 하늘나라로 갑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에 간다고 믿지 않는다면 속고 있는 것이며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4절)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오직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맞교환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침례나 세례나 교회 출석이나 선행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고 영접기도를 하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고 영접기도를 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강대상 앞으로 나아오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고 강대상 앞으로 나아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기준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을 믿습니까? 언제 처음 믿었는지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당신이 지금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믿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정확히 언제 믿고 구원받았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님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깊은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님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5-8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믿고 강대상 앞으로 나아와 무릎을 꿇고 영접기도를 하고 술 담배를 끊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구원받은 것은 죄를 끊거나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 저의 죄로 인해 죽으신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

을 받으리니” 오직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대상 앞으로 나아가고 무릎 꿇고 영접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강대상 앞으로 나아가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을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무릎을 꿇거나 영접기도를 하는 데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구원초청을 하기도 전에 고넬료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10절)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간증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것은 구원간증이 아닙니다. 술을 끊었다는 것도 구원간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술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때리지 않는다는 것도 구원간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내를 때리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아예 처음부터 아내를 때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11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지가 가장 중요 합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인터넷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든, 어느 목사가 무엇이라고 하든, 어느 책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든 상관없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항상 옳은 것이고 진리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당신이 성경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지 않으면 당신은 여러 가지 교리에 밀려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의로 나아간다면 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제가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나아가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사실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저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12절)

잠깐 여기서 로마서 3:22-23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당신이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절차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13절) 구원은 매우 단순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마음으로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이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하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하다고 해서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복음을 믿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지능이 높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

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삼일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복음을 이해는 하지만 믿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쉽습니다. 복음은 그 정도로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즉 우리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분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높임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이유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자신도 영광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와 구원 자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 하나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는 것도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 하나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도 구원받았다는 증거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누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증거를 누가 필요로 합니까? 당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군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실까요? 주님께서 누군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간의 증거를 필요로 하실까요? 우리는 증거가 필요하지만 주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

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14-15절)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혹은 거절하는가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도 거리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리설교나 복음전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줘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찾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엄청난 결과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지난 2천년 동안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팔소리가 울릴 때까지 신실한 사람들은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과 세상이 말하는 아름답

다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16절)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기록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0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의 의미를 놓고 논쟁을 벌입니다.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자신의 용어로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 6장에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요 6:28-29)

복음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17절) 과거에 비해 현대에는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원인을 분석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복

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와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과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비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변개된 번역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심리학 이론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철학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쇼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거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횟수가 과거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아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18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멍청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무지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무지한 이유는 복음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

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나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 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19-21절)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누가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됩니다. 그런데 누가 또 복음 전도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이번에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전도자와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유대인인 그가 왜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스테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은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믿는 이방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갈라디아와 로마에서 끊임없이 핍박했습니다.

로마서 10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지가 아닌 불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거부한 그들의 불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를 그만 신뢰하고, 자신들의 영광을 그만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들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무엇인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교일수도 있고 자신일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밤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다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믿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다면 그 무엇을 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믿고 영접기도를 했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영접기도를 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믿고 교회에 다녔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고 교회에 다녔다면 교회에 다니기 전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고 침례를 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며 그저 물에 한번 젖은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강대상 앞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영접기도를 하는 것도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흘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믿

음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거부하든지, 믿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옵니다. 몇 명을 구원했는지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았다면 당신의 성공에 축복이 더해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보너스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믿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전하고 전하고 전하고 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며 단순한 진리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만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를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2강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답변

11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읽은 독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구원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셨으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에 속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효가 된 것인가? 약속의 대상이 변경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 실패하셨는가? 라는 의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문맥입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롬 9:3-4)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롬 9:31)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롬 10:1)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롬 10:21)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롬 11:1)

이 세 장은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1:28을 통해 선택과 구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 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 받는 자들이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희”는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롬 1:6). 이스라엘은 복음의 원수가 되었으며 이것으로 인해 이방인들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선택은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선택은 국가적인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택과 복음은 서로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다. 한 민족이 복음에 관하여는 원수이지만 동시에 선

택에 관하여는 사랑 받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의 세 장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민족적으로 선택 받았다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죽으면 자동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주신 언약 어디에서도 죽으면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지상에서 영토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거할 수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침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었고 복음전도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으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로마서의 독자들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취소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언약을 깨시지도 않습니다. 약속을 어기시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들은 언젠가는 돌아

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어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노라, 하나니”(1-4절)

본문에서 의미하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을 통해 2가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자신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배교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버리실 이유가 없으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버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끔찍한 배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림받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르게 믿고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위해 일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직 7,000명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배교했고 온 백성은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민족 중에는 그들의 영적 상태와는 관계없이 아직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5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AD 70년경에, 바빌론인들은 그보다 100년 전에, 갈대아인들은 그보다 수백 년 전에,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은 수천 년 전에, 중세에는 유럽인들이, 모하메드 시대에는 아랍인들이, 십자군 전쟁과 스페인의 종교재판 시절에는 천주교가, 2차대전 당시에는 히틀러와 스탈린이,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유대 민족은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이 율법대로 살기 때문이 아닌 것도 확실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탁월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중동에서도 힘이 없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중동의 모든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여 약속의 땅에 거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건재한 것입니다. 지난 5천년 동안 마귀는 그 씨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남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민족들이 나옵니다. 천년 왕국 때 어느 민족이 남아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도운 민족들은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6절)

이 구절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위대한 구절입니다. 당신은 에베소서 2:8-9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는 은혜입니다. 행위를 더한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90퍼센트는 은혜고 10퍼센트는 행위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결국 은혜가 아닌 행위입니다. 행위는 은혜가 아니며 은혜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둘을 섞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들이 바알을 따르고, 아스다롯을 따르고, 몰렉을 따르고, 로마를 따르고, 지난 2천년간 메시아와 복음을 거부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처럼 그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면, 아무것도 그 언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천주교회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침례교회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미국도 이스라엘이 아니며 백인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무엇도,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민족적으로 구원받고 약속의 땅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잘못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은혜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나?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 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 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7절)

이스라엘은 무엇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왕이 없는 왕국을 원했습니다. 메시아 없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을 달라고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받았지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8절)

5절에서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서도 “이 날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한글 성경에는 이 말이 7절에 있으나 영어 킹제임스성경에는 8절에 있음). 이 두 구절은 같은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남은 자가 있다고 하고 8절에서는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약속은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로 넘어갔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눈이 멀었으나 아직도 그들에 대한 약속은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울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9-10절) 이것은 신약성도들이 해야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 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11절)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장난감을 한 아이가 가지고 놀면 다른 아이들도 모여들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자신들만이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은 시들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교회)이 와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를 갖기 시작하자 오랫동안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주님과 교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과 교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과 하나님과의 빈곤한 교제로 인해 이방인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21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종일 손을 내밀어 유대인들을 향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끝내 주님의 손을 거절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

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12절)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들은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몽고로, 자메이카로 전파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하시기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전 세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이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의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13-14절)

바울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배교하여 이방인들로 교회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던 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배교했지만 그들을 개인적으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메시아에 대해 질투를 느껴 결국 메시아에게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15절)

우리가 읽은 구절 중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잊으셨다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까?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16절)

유대인들의 첫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손들은 어떠한 야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열매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 진대”(17절)

꺾인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들 중에서 열매”입니다. 하지만 아직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뿌리는 아브라함과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가지 몇 개를 꺾으셨습니다. 왕국이 분열될 때 가지를 몇 개 꺾으셨고 갈대아로 사로잡혀 갈 때 또 가지를 몇 개 꺾으셨습니다. 두 개의 지파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도 가지를 꺾으셨습니다.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몇 개의 가지가 더 꺾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과 왕국과 통치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지들 중에서 열매를 꺾으셨지만 단 한번도 뿌리를 뽑아버리신 적은 없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다시 가지를 뺀고 싹을 틔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무에서 몇 개의 가지들을 꺾으셨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 지파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시야에서도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가지들은 잘리고 꺾이고 시들고 말라버리고 불에 타버렸지만, 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면 남겨두신 뿌리를 통해 나무가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뿌리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싹을 틔울 준비를 하며 주님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랍의 모래에 파묻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웅장한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잘린 가지에 덧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롬 4:9-12)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간주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돌아와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군대를 조직하고 무력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언약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늘로 가게 될 건데 유대인들의 땅을 차지해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교회는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무나 뿌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무나 뿌리를 대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래의 가지들과 뿌리를 향해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 받고 나무에 접붙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해서 성령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대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19-21절)

이 말씀은 개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도 이 구절을 개인에게 적용함으로 칼빈주의자들과 정확히 같은 부분에서 오류에 빠졌습니다.

문맥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중 몇 개의 가지가 꺾인 것처럼 그들도 꺾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공짜로 나눠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2절을 먼저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만 읽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22절)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거둬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 누구도 천년왕국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엄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한때는 국가를 이루며 살다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갈대아에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로마인들의 박해를 받았고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개신교로부터도 박해를 받았고 아랍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엄하신 분입니다. 잘 행하

면 칭찬을 받고 잘못 행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만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하심에 대해 선포하는 설교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롯과 두 딸을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불에 타 죽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늘나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울며 이를 값이 있는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모두 전해야 합니다.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23절) 누구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을 은혜로 맞아주십니다.

“네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을진대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24절)

에베소서 2장과 로마서 2장에 의하면 야생 올리브나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없었습니다.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에 관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총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25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흠쳐가서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십자군이나, 종교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나,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번영하게 된다고 가르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그 대신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치겠다고 하셨지 교회를 고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지 교회에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안전을 약속하셨지 교회에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물리적인 복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누군가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영토)이 비자 사람들은 그들이 아예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고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천주교와 주요 개신교 종파에서 믿는 교리의 기초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교회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이런 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전체가 눈이 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전체가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일부가 눈이 먼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26절)

이것은 민족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개인

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는 유대인들 중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남은 자들이 메시아에게로 돌아와 깨끗해지고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미래에 그러한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성경은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 라고 부르지 “구출자” 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구원해주셨고 구속해주셨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출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디서, 누구에게로부터 구출하신다는 것일까요? 저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구출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무엇도 저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데 저를 누구로부터 구출하신다는 것입니까?

저는 구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인가로부터 구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창세기는 몇 개의 장에 걸쳐 야곱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야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자이신 로마서 11:26에는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킬 것이며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 “야곱”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온 “야곱”이 아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모두 믿음 안에 있을 때 민족적인 구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야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민족적인 구출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신 분이 창세기도 기록하게 하셨기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27절)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하시는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만일 이 부분이 “우리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었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언약이 유대인에게 달린 것이었다면 성취될 가능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5-6절의 의미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은혜이고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27절은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교회는 구약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 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28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구절은 복음과 선택이 전혀 관계없는 개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받아들인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에 있어서는 원수지만 선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 자손의 행위는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배교한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수천 년을 참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보신다고 해서 언약을 폐기하실 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실패하는 것을 보시고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제가 50년 동안 실패했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29절)

하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유대인들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십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30-32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이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모두 믿지 않는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통해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칼빈주의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휼을 베푸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기회조차 받지 못한 채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공휼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구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교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공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공휼을 받은 것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33절)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들림 받고 나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수억의 군대가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둘러싸서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총 공격을 감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흰 말을 타고 우주를 가로질러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34절)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누가 감히 주님의 생각을 완전히 알아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자신이 주님의 조언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조언자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려 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야 한다고 가르치려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극도로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35절) 이 말씀은 12장 1절과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이미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이루건, 성취하건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11장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36절)

신약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개인들을 다루시며 구원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도 개인적으로 다루시고 이방인도 개인적으로 다루십니다.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을 모아 교회를 만드십니다. 교회가 완성되면 데리고 가실 것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민족적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을 구하고 민족들의 머리로 삼기 위해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운 민족은 양으로 분류되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왕국에서

보존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기록된 구절들은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모두 조화를 이루며 성경의 다른 부분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장에 기록된 구절들을 빼내어 문맥과 상관없이 해석하면 성경에 기록된 다른 구절들과 모순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23강 합당한 섬김

12장 1절-2절

본문은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롬 12:1-2) 이 구절들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가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순종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

습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계시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과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한 투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용서해 주심과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의롭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게 해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고 주님의 통제에 따르기만 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죄와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우리 자신이 왕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

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 값없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로마서 12장에 이르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주신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간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을 힘입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베풀어주시고 나서 한가지 간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성경은 간청을 받는 대상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성경은 지금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 주신 일을 근거로 당신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주님께서서는 지금 우리 각 사람, 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간청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강제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중고등학생들 중에는 부모님 때문에 강제적으로 교회에 온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무도 당신을 교회에 강제로 끌고 오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도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아무도 무엇인가를 억지로 시키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 때문에 강제로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도 언젠

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즐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가 원하지 않아도, 어느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간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사람들은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여기서 “드리라”는 말은 영어로 “present”입니다. Present는 동사로는 “주다”라는 뜻이지만 명사로는 “선물”입니다. 선물(gift)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도 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니 아무도 주님께 제대로 된 선물을 드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생일을 기념한다고 하면서도 아무도 주님께 제대로 된 선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일파티에 초대했는데 아무도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민망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 선물을 드리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서 선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 돈을 내려거나 무엇을 갖다 바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소유한 모든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드리라” 주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몸을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저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부터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몸입니다.

“너희 몸을” 성경은 각자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형제는 왜 헌신하지 않았는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왜 그 모양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건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국가를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를 주님께 바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바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바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당신이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그 누구의 삶도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의 힘도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의 은사도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의 시간도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나 해야 하는 일은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제가 한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당신에게 지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가진 삶의 모든 기회와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만드신 분이기에 때문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신이 무엇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성공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당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역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하십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 봉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하십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하십니다. 누군가 기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아십니다. 독자 중에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것도 아십니다. 낙담을 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것도 아십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그것도 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그만하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원하십니다. 자신은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그만하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원하십니다. 자신은 부족하다는 생각은 그만하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부족한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젊었더라면’, 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지금 그대로의 당신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겼건 얼마를 가졌건 얼마나 배웠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살아있는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고대 이교도들의 종교가 나옵니다. 아기들을 불 속에 던지게 한 몰렉을 섬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대 남미와 북미와 세계 곳곳에서는 젊은 처녀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물들은 제사가 끝나면 죽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서는 살아 있는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신을 섬기기 위해 자해를 해야만 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자해하거나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죽이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종교와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

숨을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고 계십니다.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저는 이 구절에서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고 헌금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제대로 즐길 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게 된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인생은 살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죽어 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기 전에는 살아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리기 전에는 살아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참된 생명을 누리고 참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참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도 참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인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며, 죽어 가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삶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 드리면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구원받았으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시간 낭비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받았으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 게 시간 낭비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받았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시간 낭비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받았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게 시간 낭비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받았으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망쳐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관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신을 주관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살아 있는 희생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 있을 때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살아 있는 희생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서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몸을 주님께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희생을 원하시는데 바로 살아있는 희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지금부터 25년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서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주

님을 위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우리는 희생물(sacrifice)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압니다. 희생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황소나 양을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한번 희생물로 드리면 다시 그것을 집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한 시간이나 하루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을 때만 잠깐 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어하던 고삐를 주님의 손으로 넘기라는 것입니다. 희생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당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주님이 결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회에 나올지 말지를 주님이 결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지 말지를 주님이 결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할지 말지를 주님이 결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가를 어떻게 보낼지를 주님이 결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주님이 결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을 신뢰합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요 당신을 만드신 분이요 당신을 구원하신 분이요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헐박하신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자신이 신뢰할 만한 존재하는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똑똑합니까? 누가 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인생을 잘 알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인생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내어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힘과 능력과 재능과 시간과 은사를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내 몸을 거룩한 상태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의 몸은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자매의 몸은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몸을 거룩한 상태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도 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걸맞은”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국가에 맞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당신의 “거룩”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각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믿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우리의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우

리는 우리만의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함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희생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이 정도 내어 드렸으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내어드리는 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TV의 거룩함의 기준이 있고 자유주의자들의 거룩함의 기준이 있고 근본주의자들의 거룩함의 기준이 있고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다 다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지만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만을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칭찬을 즐깁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형제님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저의 섬김이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술을 몇 잔까지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욕은 몇 번까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얼마나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더러운 잡지는 몇 권까지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까요? 성경은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세상 음악을 듣는 것은 몇 분까지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당신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수입의 10%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service라고 합니다. 예배가 섬김이라

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찬송 좀 부르고 지금처럼 지루한 설교 좀 듣고 돈 좀 내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 섬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놓고 그것을 섬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만이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버리고 자신을 주님께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합당한 섬김” 성경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한 섬김(reasonable service)”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리라고 요구하신다고 해서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요구이겠습니까? 주님의 요구가 지나친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과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합당하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어떤 사람은 “와! 그건 너무 광신적이네요.”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너무 극 단적이지 않나요?” 하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합당한 섬김**”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극단적이고 미친 짓일지 모르 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합당한 섬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롬 12:2)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 각합니다. 이 세상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 적당히 믿어야 한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는 없 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하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도 구원받은 사람 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아 새롭게 시작한 인생을 옛 마음을 가지고 옛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옛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다른 누군가에게 내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것은 위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 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 제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당신을 놔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 생각을 바꾸지는 말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좋은데 생각을 바꾸지는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좋은데 생각을 바꾸지는 말라고 합니다. 신앙을 갖는 것은 좋은데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광신자들처럼 되지는 말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구원받기 전까지는 구원받는다든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제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아무리 들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당신을 드려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방법은 당신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적 기독교에는 체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경

이 사실이고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해도 성경적 기독교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저에게는 살아계신 구원자가 계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기 전에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 받아야 합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합당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섬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진정 미친 짓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만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앞에서도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겠습니까? 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않으셨고 우리를 대속해 주지도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지도 않으셨고 영원한 생명 같은 것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은 미친 짓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보다 더 한 것을 드린다 할지

라도 그것은 미친 짓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합당한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롬 12:1-2)

저는 구원받고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구원받기 전에 사귀던 모든 친구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앞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살 것이고 우리가 전에 즐기던 것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신들을 버리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고 그들은 여전히 저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살던 대로 살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저는 그녀에게 23년 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전에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한 번도 그녀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자신이 구원받았으며 목사와 결혼했고 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제가 예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집에 다시 찾아가서 제가 예전에 전한 것과 같은 복음을 전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을 포기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일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 저는 잃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길이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저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미친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 주신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고 있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앞으로 주실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제24강 영적 성장을 위해

12장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는 매우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인간이 죄인인 이유를 다루고 있으며, 4장부터 5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6장부터 8장까지 옛 사람과 새 사람의 투쟁, 즉 두 본성을 다루고 있으며,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로마서의 마지막 다섯 장을 통해 머리로만 아는 것보다는 실천하며 사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자신이 받은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로마서 12:1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드리는 것은 합당한 섬김입니다. 2천년 전에만 합당했던 섬김이 아니라 지금도 합당한 섬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2절)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뜻에는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다는 세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합당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내어드리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과 동화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변화를 받은 상태입니까? 당신은 세상과 딱 맞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상태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생각을 맞추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이 구원받고 나서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면 당신이 무엇을 섬겨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이 성경대로 살지만 않는다면 교회에 가든 어디에 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공개적으로 믿음을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않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났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구원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이 조용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이 친절한 기독교인이 되기만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서 당신이 아니라면 결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 원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이 술도 좀 마시고 욕도 좀 하고 영화도 보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일치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로 들어와도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차이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어떻게 원수들을 대하고 나를 박해하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누군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 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봉인하신 것도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뜻은 하나님께 받아들 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이 세상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날에 이방 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것입 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대로 즐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생이 아닌 세상이 받아들일 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일부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삶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이 아 닌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을 향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 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3절)

바울은 지금 율법적으로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

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은 율법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죄는 육신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게 지어서라기 보다는 그의 내면에 있는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충분히 높임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맞는 지위를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좌 위로 자신의 자리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죄였으며 그의 타락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심지어 주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높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높이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이 흐려지는 것처럼 교만에 취해도 정신이 흐려집니다. 자기 의에 중독되면 맑은 정신을 잃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걷지 못 하고 생각해야 하는 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바르지 못한 것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저는 제가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걷지 말아야 할 길을 걷게 됩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로 가고, 주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고 교만으로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저 형제처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3에 의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세상이나 부처나 다윈이나 자신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같은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주게 하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지 않고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많은 믿음을 주셨고 자신에게는 주지 않으셨다.’ 고 하면서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나에게도 많은 믿음을 주셨다면 나도 저렇게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선교사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당신과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도 당신과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뒤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뒤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데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까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데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그럴 기회가 없었거나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엄청난 분량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믿음을 바른 곳에 두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적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작은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믿음을 주님의 말씀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과 지식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면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 안에서 강력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당신은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엇인가가 되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한 것이고,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4절)

손은 발이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은 귀가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5절)

확실한 사실은 손과 발은 같은 것이 아니며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눈과 귀는 같은 것이 아니며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당신은 네 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두 발과 두 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네 발을 가지고 있으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음식을 먹는 데는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네 눈을 가지지 않고 두 눈과 두 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6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각자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같지만 선물(은사)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분량의 믿음과 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동일하게 들어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은사)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각자 다른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

람들은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은사)를 평생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고 또 어떤 선물은 받지 못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을 부러워하며 평생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매우 잘 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당신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은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받지 못한,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은 그만 생각하고, 당신이 받은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하는 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길입니다.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7절)

여기서 말하는 “사역(ministry)”이라는 말은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섬긴다(wait)”는 말은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일하는 사람이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8절)

성경은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주고 광고하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함

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A라는 선물을 주셨다면, 그 A라는 선물을 사용하는 데 바쁘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B라는 선물을 주셨다면, B라는 선물을 사용하는 데 바쁘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은 아름다운 걸 봅니다. 발은 좀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손은 악수를 하려고 합니다. 귀는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몸 전체가 귀를 통해 음악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팔이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귀는 하루 종일 팔이 되기를 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귀일 뿐입니다. 팔은 항상 팔입니다. 코가 되고 싶다고 해서 코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대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가르치는 능력을 주시거나,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거나, 권면하는 능력을 주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이 받은 선물대로 주님과 주님의 몸을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을 자신에게도 주시기도 바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받은 선물로 섬기십시오.

당신이 교회를 인도하는 위치에 서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받은 선물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인도자가 할 일입니다.

8절의 목록의 맨 끝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른 일이지만 하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대로 일하되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즐거운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와 다투거나 그들을 향해 쓴 뿌리를 갖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즐겁게 섬기기에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상황에 두셨다면 그것은 정말 저에게 딱 맞는 상황일 것입니다. 저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다면 그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 제가 하려는 일을 넘보려고 한다면 결국 제가 아닌 그들이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선물대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되 즐거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9절)

형제 자매들을 동일하게 대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미워하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2절을 말을 바꿔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몹시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당신이 세상을 몹시 싫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르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싫어해야 합니다. 싫어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대단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를 미워하십니다. 아무것도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동성연애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살인을 미워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미워해야 합니다. 강간을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모든 것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단지 의견만을 가지고 있거나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당신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합니다. 그저 “복음적” 이거나 “보수적” 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은 토하여 낼 정도로 싫어하십니다(계 3:15-16).

당신은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십니까? 저는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우리는 그저 ‘저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악한 것을 몹시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함께 하거나 지지하지 말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가끔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그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10절)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정(passion)은 보이는 것으로 인한, 보이는 것에 대한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이것은 관능적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예쁜 여자를 보고 처음에는 불타올

랐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마음이 바로 열정입니다.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응원할 때 주로 생기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애정(affection)은 매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이들, 부모님을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애정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해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적은 상관없이, 좋은 차를 타건 고물 차를 타건 상관없이, 교육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상관없이, 직업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나이가 많은 어리든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랑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그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누군가가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변화된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인간관계로 인한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서로 먼저 존중하고 형제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

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관계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는 게 바로 문제의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거나 먼저 존중하지 않고 형제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에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지 않으셨다면 결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최악의 상태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별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전혀 알지 못했던 위대한 사랑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형제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첫째 자리에 두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벗어나려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실행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천년왕국이나 대환난에 관한 교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는 것이 단단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을 소화시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11-14절)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진, 나를 어떻게 대하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상처 입지 않게 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올라.”(15절)

당신은 항상 즐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슬프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항상 슬프거나 반대로 항상 즐겁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다시 밀려 갑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누군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분위기를 깨지 말고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는 것을 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옫의 친구들처럼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함께 슬피 울어주시시오. 슬피 우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함께 우십시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사람과 함께 슬피 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만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16절)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다른 사람을 돕겠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다. 나를 위해 교회에 가지 않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17절)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복수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한 대로 갚아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 주신 것처럼 은혜로 대해 주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은혜로 갚아주십시오. 누군가 아무리 당신에게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영원히 누릴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서로 속이고 속는 이 세상에 동화

되지 말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바른 일을 행하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18절)

저는 성령님께서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그래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능하지 않은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최선을 다해 화평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겁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화평하게 지낼 수 없다면 당신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이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가능하다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신은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화평하게 지내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당신은 최선을 다해 화평하게 지내려고 한다면 당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19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매듭지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근심 걱정을 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거짓말과 거짓 고소와 헛소문과 험담을 바로 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털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하

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면서 자신이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므로 네 원수가 주리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쏜을 쌓으리라.”(20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의 원수가 당신도 그들과 같은 자라고 생각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레스터 롤로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책임은 없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책임은 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말했는데 나도 그에게 악하게 말한다면 악하게 말하는 두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없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는데 나도 그에게 욕으로 갚아 주었다면 두 명의 욕쟁이만 있을 뿐 그리스도인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속였기에 나도 그를 속인다면 두 명의 사기꾼만 있고 그리스도인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속이느라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해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 받은 상처는 하나님께서 모두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 세상

이 하는 방식대로 똑 같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잠언 25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네 원수가 주리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주께서 네게 보답해 주시리라.”(잠 25:21-22)

이제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21절)

악에게 지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성령님께서서는 당신이 변화되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이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음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 유익을 얻고 축복을 받았습시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신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분의 인생과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25강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의 권력

13장 1절-5절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어쩌면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아담 이후로 모든 왕과 황제와 권력자와 국회의원과 시장과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권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선생님과 목사와 경찰관의 권위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권력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누군가 지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은 권위에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

면 사람들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악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권력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권력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만, 혹은 내 취향에 맞게 정책을 펴나갈 때만 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혼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권력자에게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진실을 담고 있는 동영상을 보지 못한 모든 혼은…”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팩트를 정리한 그 글을 읽지 못한 모든 혼은…”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롬 13:1)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당신은 투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란 좋은 대학을 나온 두 명의 백만장자 정치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공약을 하고 어떤 입장에 서기 때문에 표를 준다고 하지만 모든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큼니다. 권력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선한 동기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 중 누가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

남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정치인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네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2-3 절)

3절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 치리자들에게 권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불법인 이유는 권력자들이 그 일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권력자들이 그 일을 불법으로 규정하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위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력자들이 있고 그 위에는 그들보다 더 권력이 큰 자들이 있으며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네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4-5절)

여기서 멈춰서 잠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당신이 보내게 될 24시간동안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수없이 죽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8시간 일을 합니다. 6-7시간 잠을 잡니다. 1-2시간 식사를 합니다. 출퇴근을 하느라 1-2시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6-7시간 남습니다.

당신에게는 죽어가는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주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눌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다 하고 나서 프리메이슨에 관한 것이나 세계 정부를 움직이는 세력에 관한 것을 알아내고 알리는 것에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고 나서 정부의 비리나 정치인들의 비리, 혹은 소위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유엔이나 공산주의나 빨갱이나 혹은 수구세력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며 그분을 섬기고 있다면 당신이 하지 않아도 될 다른 일들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제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느라 그런 일들을 하며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천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외국의 지배를 받는 국가에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악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단 한번도, 단 한 마디도 어떻게 정부를 바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황제나 정치인이나 군인들의 비리를 바로 잡는 일에 관하여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으

셨습니다. 누군가 세금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도 그것을 지불하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데 모든 관심을 두셨습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그것을 하는 데만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바꿀 수 없고, 정권을 바꿀 수도 없으며, 정책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일에 저의 시간과 힘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치계, 의료계, 법조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와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고자 평생을 보낸다 해도 당신이 죽고 난 이후에도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굵은 것은 그대로 굵은 대로 있고 부패한 것은 그대로 부패한 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신경 쓰느라 인생을 다 허비하고 결국 하늘나라에는 아무도 데려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일 당신도 복음을 전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저런 일을 하느라 시간을 쓰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과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부패한 유대의 정치계는 부패한 로마제국과 더불어 사도 바울과 복음전도자들을 감옥에 가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디모데후서를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나쁜 정부와 나쁜 종교가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일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큰 그림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아 어떤 정책을 펴느냐는 작은 그림입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행 12:1) 이것은 분명 선한 일은 아닙니다. 권력을 바르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2절) 이것도 선한 일이 아닙니다.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3절) 이것도 역시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넷씩인 네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4절) 이것도 역시 선한 일이 아닙니다.

3절에서는 그때가 유대인들의 명절 중 하나인 무교절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스터는 이방인들의 명절입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헤롯은 이방 종교의 명절인 이스터가 지난 뒤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5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도 선한 일이 아닙니다. 악한 권력자였던 헤롯은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 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벧전 2:11-17)

베드로가 살던 시대의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쁜 권력자를 좋은 권력자로 만들기 위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세상에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자유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유롭다는 것은 누구에게 무슨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정치인을 비판하는 데 당신의 시간을 사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비판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그 왕국의 백성이라면 당신은 일시적으로 머물 국가가 아닌 당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하면 그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중요

하지도 않은 말을 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게 귀를 막아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행위는 당신의 간증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증언을 듣지 않게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정부나 정치인들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당신만큼이나 부패했고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정부나 정당이나 정치인들과 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아는 사람들 중 당신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지게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에게 당신의 정치적 견해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정치적 견해와 확신에 관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실 만한 문제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왕이 존경 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허락하신 일이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와 싸우느라 악한 싸움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겠습니다

다.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야가 그의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매 그 때에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곁에 서 있던 자들이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바, 너는 네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행 23:1-5)

하나님께서서는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니엘 같은 훌륭한 치리자만 비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형편없는 치리자라 할지라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야는 부패한 종교의 부패한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잘못된 종교의 부패한 제사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불필요한 싸움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을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느냐? 하매 그 때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재판받을 것이니이다. 각하께서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잘못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죽을 짓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터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 일들 중에서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하니”(행 25:9-11)

이것은 로마서 13장을 그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국가의 법을 위반했으며 그 국가에서 정한 법대로 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자신이 죽을 짓을 했다면 죽겠다고 말할 것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는 곳의 법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았습니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7편을 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의 기름에 잠겨 있으며 자기들의 입으로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우리가 걷는 곳에서 이제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땅을 향해 몸을 숙인 채 눈을 고정하되 자기의 먹이를 탐내는 사자같이, 은밀한 곳에서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같이 그리하였나이다.”(시 17:8-12)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는 “빅 브라더”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곳곳에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정부는 누가 법을 어기지 않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명화된 국가에서는 어디서도 정부를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물질문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 주여, 일어나사 그를 좌절시키시고 던져 버리소서.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13절)

본문의 문맥은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악한 자들이 “주의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또 주의 손이 된 사람들과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자기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어린 아기들에게 물려주나이다.”(14절)

이번에는 사악한 자들이 “주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을 통치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칼로, 때로는 자신의 손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여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칼과 손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삼천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천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주셨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음식 문제로 다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악한 정부와 사악한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그들이 중동과 유럽과 아시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핍박 받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원하지 않았고 죽임 당하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에 들린 칼인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말씀

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그림입니다.

말세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적그리스도와 세계 단일 정부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악한 자들과 사악한 정부를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책자를 뿌리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야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을 통해 등장하리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앞으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세계 단일 정부가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두렵지도 않고 그들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데 저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날 것이고 지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일은 바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들은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릴 때 사라져 버릴 일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통치하든, 누가 정권을 잡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작은 일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비리를 캐고 알리느라고 시간과 힘과 전력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사악한 일을 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빼앗겨 가장 중요한 일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바로 잡을 수도 없고, 법조계를 바로잡을 수도 없고, 대통

령을 바로 잡을 수도 없고, 의회를 바로잡을 수도 없고, 유엔을 바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으면 적그리스도는 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음모론을 다루는 책들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모론 자체가 음모론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도대체 그러한 것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음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음모론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소중한 시간을 음모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디모테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딤후 2:1-2)

저는 이 세상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권력자가 저를 핍박한다면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도망갈 곳이 더 이상 없다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할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교회를 건드리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설교자들과 복음전도자들을 감옥에 가두지 말게 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

로 신약 성도들이 간구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도록 정부가 내버려 두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에 관여해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척결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느라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정치적인 견해를 바꾸는 것은 저의 임무가 아닙니다. 저의 임무는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단 2:19-21)

권력자에게 권력을 준 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권력자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왕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일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왕국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치나 다른 문제에 관한 것들은 이 일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하찮은 것입니다. 오백 년 후에는 지금 누가 정권을 잡았는지 누가 상관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왕국에 참여한다면 오백 년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는 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여당 지지자나 야당 지지자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열성적으로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분을 전하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 좋은 간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찮은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망치지 않기 바랍니다.

제26강 그리스도인의 간증

13장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의 문맥으로 연결되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롬 13:1-2)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하나님의 정죄가 아닌 권력자들의 정죄를 의미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네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네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

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3-7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간증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정부에 대해 싸우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법에 복종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는 명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이나,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권력자에게 복종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권력자에게 불복종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권력자의 처벌은 피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3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만일 당신이 위와 같은 경우 권력자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처럼 징벌을 받게 됩니다. 바빌론에서도 세 명의 유대인 청년이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권력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부당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권력자는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징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권력자들을 막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감옥에 가게 되거나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거나 매를 맞게 될 수 밖에 없다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수용하십시오. 돈이 아닌 하

나님을 위해 감옥에 가고 용광로에 던져지고 매를 맞으십시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 정부에 대항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권력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8절)

문맥은 계속해서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금 문제도 포함됩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빚을 지는 것입니다.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주어야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게 빚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권력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근본주의자이며 독립침례교회에 속해있고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 즉 인간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게 영적인 표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자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무관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의 입을 열어 빌라도와 헤롯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 자리에서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려 세상에 오셨기 때

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구청직원이나 경찰관이나 공무원들과 논쟁을 하며 싸울 때 그들의 권력을 무시한다면, 그들에게 전도지를 주었을 때 그들이 전도지를 읽어볼 것인지를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공무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합니다.

두려워 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부정을 행하고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았든 그렇지 않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든 어떤 빛도 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빛지지 말고 누구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싫어하는 구절은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잠깐 사랑에 대한 짧은 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어에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charity”와 “love”입니다. 성경에서는 “charity”를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지체들 간

의 관계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로서 서로 사랑(charity)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charity”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love”는 이것과 다르게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사용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love)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내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love)해야 합니다. 아내가 구원받지 않았더라도 성경은 아내를 사랑(love)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가 구원받았든 그렇지 않은 상관없이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love)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love)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요 3:16).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love)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롬 5:8).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력을 잡은 자들을 사랑(love)해야 합니다. 세금을 걷는 자들을 사랑(love)해야 하고 존경할 자를 사랑(love)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love)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롬 5:5).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저는 직장 상사를 사랑할 수 있고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친척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먼 곳에 있는 이상한 풍습을

가진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신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love)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천원, 몇 만 원,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와 다툼을 벌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love)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최고 임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눅 10:30-31) 31절에서 “마침”이라고 한 것이 영어로는 “by ch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멈추지 않은 이유가 이미 누군가 털어가서 더 이상 털어갈 게 없어서라고 합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32-33절)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입니다.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순수한 혈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저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던 혼혈인이 멈춰 서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입니다.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

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공흠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34-37절)

사마리아인은 이웃 사랑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문제에 빠진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큰 명령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이웃이 누구 인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주님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강제 짐스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권력을 가진 자들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를 싫어합니다. 또한 세금을 받아 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권력자와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들, 즉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의 돈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과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거나 당신과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첫째 방법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견해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와 완전히 일치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어떻게 나눠서 보고 계실까요?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로 나눠서 보지 않으십니다. “빨갱이”와 “수구꼴통”으로 나누지도 않으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지도 않으십니다.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로 나누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나누시는 기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이 기준 외에 다른 모든 기준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 비하면 다른 모든 기준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정치적인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수진영을 지지하면 진보진영에서는 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진보진영을 지지하면 보수진영은 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보수주의자고, 누가 진보주의자인가가 아닙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누가 그분을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도 제가 말한 것에 동의한다면 당신의 정치적인 견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조차 거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복음으로 인해 실족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유가 저의 정치적인 견해 때문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로마서 13장으로 돌아가서 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 수많은 현대 번역본들이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은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변개자들은 이 부분

이 양심에 걸렸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제거해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저에게는 다른 명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일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돈을 훔쳐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명령들을 듣는다 해도 다 어기고 말 것입니다.

사랑에는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가장 큰 동기를 제공합니다. 만일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의 아내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의 재산을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명령은 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인생에 부어주신 것처럼 저도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10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속에 있고 저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저의 모든 인간관계를 통제하고 지배한다면 저는 모든 명령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완전히 지배한다면 저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11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몸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저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받았지만 저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저의 이름을 부르실 때 저의 몸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주님께서 오실 때가 일년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매일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보다 지금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잠에서 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침대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저의 인생에 큰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도 큰 도전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오신다면, 저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만일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무엇이 저를 잠자고 있는 상태로 만든 것일까요?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지 못하게 저를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암송하기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날도 있을 것

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좋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좋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좋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그날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무엇인가가 제가 깨어있지 않고 자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고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느라고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통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매일 매일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항상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곧 오신다는 알람이 울리기를 원합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12절)

이 말씀과 관련해서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엡 5:7-10)

사람들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려고 할 뿐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깨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이야 지옥에 가건 말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영원을 어디서 보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으니 자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영적으로 자는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어디서 영원을 보내려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11-12절) 어떤 일에 대해서는 단순히 행동으로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말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엡 6:10-13) 여기서는 우리가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14-18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편한 것만을 찾는 타락한 기독교인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즐기는 것에 대해 당신이 책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분간 신문 읽을 시간은 있어도 성경을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알람시계를 귀 옆에 가져다 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정치인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사님도 그 사람을 지지합니까?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지지합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정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신문 좀 읽고, 뉴스도 좀 들

으면서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뉴스는 저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저에게 유익을 주는 얘기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뉴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이 뉴스를 가장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어제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시대를 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달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태양을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아침이 되면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13절)

로마서 13장의 문맥은 무엇입니까? 높은 권력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전한다는 사람이 진실하게 살지 못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중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진리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삶이 진실하지 않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제가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맛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지 않고 주인 몰래 도망쳐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식사를 한 자리를 치우는 종업원을 위해 자리에 전도지를 두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업원이 제가 먹은 자리를 치우다가 전도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읽을까요? 만일 전도지를 읽는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든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것이 세금이든 물건값이든 상관하지 말고 지불하십시오.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정당하게 지불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방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속한 사람들은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부패한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불경건한 정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타락한 인간은 정부가 없으면 완전히 무질서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쁜 정부든 좋은 정부든, 기독교 정부든 무슬림 정부든, 누군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고 범죄에 대해서는 벌을 줘야지만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정부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무정부 상태에 대해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아마 카트리나 이후의 뉴올리언즈 같을 것입니다. 정부가 없으면 완전한 무질서와 혼돈만이 존재합니다. 나쁜 정부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기 위해서는 첫잔을 마셔야 합니다. 술에 취하는 방법은 먼저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입니다. 술은 모든 범죄의 지름길입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아내를 때리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합니다. 술에 취해 교

통사고를 냅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죄를 짓기 전에 술을 마십니다. 만일 술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술을 마시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에베소서 5:18의 정확한 번역은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 마시지 말라”입니다. -역주).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14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이 세상 정부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금을 걷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당신은 주님께서 그들을 대하셨던 대로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에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으로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기회를 주기 때문이며,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깨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할리우드 영화나 세상 음악으로는 깨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이나 정부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는 있습니다.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당신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몰아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더욱 가까워져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27강 균형 잡힌 삶

14장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영역 중 하나는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년 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참아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14장을 가르치면, 킹제임스성경을 믿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배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을 들어 우리의 몸을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면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가 광신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12장이 있고 14장도 있습니다. 두 장 모두 로마서라는 한 권의 책에 속해 있습니다. 한 장에서는 우리의 전 인생과 우리 존재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는 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 그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 성경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 이 두 장은 모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영적 성장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생각한 대로 따라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당신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관심을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성령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배교자라고 단정해 버리거나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로마서 14:1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롬 14:1)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 라는 말을 보면서 이것이 자기에 대한 이

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적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구원받은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면, 당신도 그들만큼이나 잘못되었고 믿음이 약한 자인 것입니다. 당신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서로 다른 점에 있어서 누가 옳은 입장을 취하고 있든 상관없이 당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성경에서 9000개를 저와 동일하게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너 개의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책과 설교를 거부하고 저를 배격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군가 자기처럼 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와 교제를 단절하는 게 아니라 계속 교제를 나누며 그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자기처럼 성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합니다.

누군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증거이며 따라서 나는 그와 교제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당신을 대하셨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결코 아무런 교제도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어려운 교리 논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구원받은 지 더 오래되었고 영적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미성숙함과 어리석음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보다 더 많은 간증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승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보다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그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지 일주일 된 사람이 일년 된 사람 만큼 성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지 일년 된 사람이 십 년 된 사람 만큼 성경을 알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지 삼 년 된 사람이 삼십 년 된 사람처럼 하나님과 나눈 깊은 교제와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은 덜 성장한 사람을 받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2절)

문맥은 계속해서 각 사람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5:11). 주님께서서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5:17-20).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

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3절)

킹제임스성경과 전천년주의와 환난전후거와 성경의 근본적인 사항들을 믿고 구령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아침에 구원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옷장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옷이 있습니다. 책장에도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CD에도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냉장고에도 술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에도 합당하지 않은 단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고 더 거룩하고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여자가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옷들은 세상적인 옷들뿐이고 집에 있는 성경은 번개된 성경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전에 그녀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녀를 받아주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녀를 받아주지 못한다면 그녀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어디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어떻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지역교회로 받아주기 위해서 영적 기준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 영적 수준을 높이고 나서야 훌륭한 지역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수준을 낮추지 않고서도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처음 교회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친절하게 반겨줬습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과 하는 말과 가는 장소를 알았다면 그들도 당신을 받아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받고 처음으로 교회에 갔을 때 당신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누군가도 당신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에 정착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자들처럼 영적인 기준을 낮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만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만 교제를 나누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는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4절)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놀라운 계시일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당신의 인생의 끝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금 바로 심판하고 싶어합니다. 당신이 저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저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난하거나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도우십시오. 당신이 저를 섬기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저에게 본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고 해서 저를 함부로 심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5절)

누군가 우리 교회에 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방문한 사람들이 갑자기 왜 우리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모이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요일 예배는 짐승의 표다” 라는 책자를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우리교회에서 더 이상 환영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요일에 만나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요일에 직장을 나가 일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휴일이었다면 우리는 월요일에 만나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매일 만나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는 교회도 있습니다. 모든 날과 모든 요일이 주님께 경배하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특정한 날에만 주님께 경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과 다투거나 논쟁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쫓아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날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6절)

모든 사람이 모든 부분에 대해 옳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 잘못된 것처럼 당신도 또 다른 부분에 대해 잘못되었습니다. 자신은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왜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를 세우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고 아무런 교제도 나누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7절)

아무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받은 선물(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당신은 지식과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를 섬겨야 합니다. 저도 제가 받은 지식과 은사와 재능으로 당신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의 대상에서 누구를 제외시켜야 하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포함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를 제외시켜야 하는지 고민하지 말고 누구를 포함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세 명과만 교제를 나누기 위해 교회에 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워주고, 섬길지 생각해

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낭비된 인생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지만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까, 저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저 교회는 나를 제대로 섬겨줄 수 있을까?”는 생각만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고 섬길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독립적으로 혼자 살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8절)

우리가 보기에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이상 그들은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잘못된 부분은 언젠가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그가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흠도, 점도 없는 사람과 교제하려면 오직 하나님하고만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에 속한 지체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몸 자체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9절)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주

님은 단 한 분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10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른 형제를 판단합니까? 아마 그는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 형제를 판단만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가서 가르치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으시고, 지역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판단과 정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처음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험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에 대해 험담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저의 인생에서 잘못된 것들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피하거나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이지만 저를 비판하기만 하거나 저에 대해 험담이나 하고 돌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셨고 가르쳐주셨고 섬겨주셨고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간음을 사랑하고 음행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함정입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우리가 죄를 용납하고 사랑하도록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는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비판과 정죄만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하지만 동시에 죄를 지은 형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가 잘못에서 빠져 나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형제 자매와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자신이 왜 그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지 않는 성경적인 정당한 이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성적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흠치거나 술 취하는 자이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와도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머리 모양이 이상하다거나 다른 색으로 염색했다고 해서 그와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친구의 수를 더 줄이려고 합니까?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정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전혀 교제를 나누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 성경적인 정당한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이유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

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저의 행동과 말은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행동하고 말한 것들에 대해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바,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하리라.”(11-12절)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한 일이 아닌 당신이 한 일에 대해 회계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잘나 보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13절)

우리는 자신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거침과 방해가 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지 말고 도와야 합니다. 무너뜨리지 말고 세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동의하는 사람과만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교제를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게 되니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그러나 만일 네 음식물로 인해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네가 사랑으로 걸지 아니하니 네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14-15절)

구약성경에 나온 음식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 사람에게 돼지고기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경의 음식 규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색소폰을 연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색소폰과 뱀(serpent)의 철자가 동일하게 s로 시작하기 때문에 마귀적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샌드위치도 s로 시작하만 마귀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적인 근거와는 별도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색소폰을 연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누군가와 다투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와서 누구 누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을 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록 음악이 괜찮은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직도 귀걸이와 코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팔에는 아직도 문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사람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자로 초청받아서 다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 마침 젊은 청년 하나도 방문했습니다. 그는 긴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가슴이 다 보이는 소매도 없는 커다란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의 목사는 초청받은 목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방금 저 청년을 보셨습니까? 저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무엇이라고 말하긴요, 만나서 반갑다고 하세요. 우리 교회에 방문해 줘서 정말 기쁘다고 하십시오. 저렇게 입고 교회에 오지 않는 수백만의 청년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 청년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저런 청년들을 계속 보내주신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하지 않으세요?”

겉모습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그 사람을 당신의 교회로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변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머리와 옷차림도 단정해질 것입니다. 머리카락 옷차림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러한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그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머리카락 옷차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바른 사람만 교회에 온다면 교회는 텅 비고 말 것입니다. 아무도 모든 면에서 바른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면서 잘못된 점을 하나씩 바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쫓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비판과 정죄와 다툼으로 누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16-17절)

의는 있지만 화평은 없을 수 있습니다. 바른 일을 하면서도 기쁨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화평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만 한다면 당신에게는 모든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을 싫어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어서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

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 구절 몇 개 안다고 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의로우면서 동시에 화평과 기쁨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악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18-22절)

문맥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저에게는 당신을 세워주고 가르치고 당신에게 복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저를 세워주고 가르치고 저에게 복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똑같은 인내와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만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23절)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주님

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당신처럼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과거에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특히 저와 입장이 다르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에 대해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해주는 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세상적이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면서 사랑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킹제임스성경을 믿으면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기는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만 하면서 다른 누구와도 교제를 나누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좁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 둘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타협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바르게 살아라.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는 가능하면 끊지 말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눠라. 당신에게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중 누구

도 당신보다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당신만큼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다른 형제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28강 강한 그리스도인

15장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투지 않아도 될 주제를 놓고 형제들과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15장의 문맥은 14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

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롬 14:1-2,5,10,17,20,22) 로마서 14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바른 길을 걷고 성령님을 따라 영적 생활을 하되 다른 형제들에게 거침이 되거나 상처를 주거나 방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중에서는 자신들이 너무나도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은 자들과는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면 결코 영적으로 강한 게 아닙니다.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교리를 믿지 않으면 배교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 타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어느 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와 교제를 나누시지만 비진리와 타협하신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비해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저를 도우시고 저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당신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관여하여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함께 즐기고 수다를 떨 친구가 많다는 게 아니라, 돕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약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모든 사람을 멀리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건, 누구를 만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술집에 간다 해도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몸을 파는 여자에게도 그녀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한참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섬기며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믿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안 좋은 집에 살고, 안 좋은 차를 타고, 성경 지식도 우리보다 한참 아래인, 우리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게 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교제를 나누는 게 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영광의 주님께서 나병 환자와 주정뱅이와 바리새인과 위선자들과 죄인들을 섬기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는 게 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시는 게 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만일 제가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누구와도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구를 피하느냐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아닙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누구와도 교제를 나누며 그를 섬길 수 있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며 위로 올려다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2절)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세워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번 주에 당신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의 유익이 아닌 전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저를 구원하심으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로 인해 어떤 유익을 얻으십니까? 얻으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아닌 저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대속 사역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의 찬양사역은 제가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시는 것도 아니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아니며 더 위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주님께서서는 조금도 변함없이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제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님의 위대함에 조금이라도 더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강한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강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한 일이 모두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가족이나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만 한 것이라면 당신은 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강함이나 약함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14장에 의하면 약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자아중심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15장에 의하면 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타인중심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과 약함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기록된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3절)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은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서는 고난을 당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의아하게 여깁니다. 우리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예수님께서서 하셨으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위해 산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은 약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4절) 8절을 살펴볼 때 4절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5절)

만일 당신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면 당신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안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도 그들은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당신을 비난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안위의 하나님입니다. 안위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자신이 괜찮다고 느끼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육신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령님의 통제에 따를 때 당신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모든 기쁨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안위를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 때 자신을 섬기며 살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안위를 주시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도 자신을 위해 살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러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이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려놓으라는 설교를 들으면 설교자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단 한번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6-7절)

5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로마서 14장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약한 형제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한 형제가 범하는 죄를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 술을 마시는 형제가 있으면 술 마시는 것을 허용하며 함께 술을 마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술, 마약, 포르노, 거짓말, 도둑질 등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모든 교제를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색의 셔츠를 입어야

하는지, 부츠를 신으면 안 되는지, 머리 색은 어떤 색이어야 하는지를 놓고 싸우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교제를 위해 성경의 진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포기하면서 나누는 교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누는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제를 위해 성경의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동성연애자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성연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성연애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일 수는 없습니다.

교제를 위해 성경의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형제들과 교제를 단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그와는 교제를 단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당신과 교제를 단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용납함으로 주님과 교제를 단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창문을 장식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믿는다면 그것으로 창문을 장식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으로 장식하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한다면 장식하십시오.

시오. 저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 당신과 교제를 단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러한 것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된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저는 교제를 단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마음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자들의 목적일 뿐입니다. 한 입을 갖게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하게 하는 것도 인본주의자들의 목적일 뿐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채 땅에 평화가 임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돌아가야 땅 위에 평화가 임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은 생각하고 땅에 평화만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을 갖게 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처녀탄생을 하셨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 마음과 한 입을 위해 이러한 차이를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타협하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태어난 게 아니라 음행을 통해 태어났다는 주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한 입을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7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고 그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것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것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일까요? 그저 교제만 나누면 되는 것일까요? 그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시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누구를 받아주십니까? 누구를 용서해 주십니까?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회로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주님께로 돌아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온 것처럼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힌두교도 믿고 불

교도 믿고 이슬람교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들 수 없습니다. 힌두교를 버리고 이슬람을 버리고 불교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슷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한 손에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서 다른 손을 내밀고서는 받아달라고 합니다.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를 떠나지 않은 채 아버지께 자신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이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줘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5절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며,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4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4절)

구약성경이 신약성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신비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에는 복음에 관한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이 구약성경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고전 15:3-4). 여기서 말하는 성경 기록은 구약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사도 바울

이 선포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도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읽던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딤후 3:15).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을 배웠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의미하는 성경은 구약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성경에도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의 문맥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눅 24:25-26)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며 영광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27절)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성경공부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을 포함한 전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돌아와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 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8-9절)

구약성경에도 복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단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복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복음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 말씀하시는 구약성경을 인용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며”(10절) 이것은 신명기 32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이다, 하시고”(11절) 이것은 시편 117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12절) 이것은 이사야서 11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13절)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관해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갑자기 복음을 만들어 내셔서 사도 바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근원지가 아닙니다. 만일 그가 복음의 근원지라면 그가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약성경 구절들은 다 무엇이겠습니까?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14

절)

저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완벽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의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함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지식이 옵니다. 만일 당신이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선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훈계하지 마십시오. 선함이 없이 지식만으로 다른 사람을 훈계하면 그것은 훈계가 아니라 그저 비판만 될 뿐입니다. 선함이 없는 채 다른 사람을 훈계하려 들면, 그의 잘못만 찾아내려 하고 결국 다툼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지식이 와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훈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선함이 전혀 없다면 아무도 당신의 지식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함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식을 쌓으면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돕고 섬기고 세워주고 유익을 끼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함과 지식은 모두 필요합니다. 다만 먼저 선함을 갖추고 나서 지식을 갖추야 다른 사람을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15-16절) 여기에는 같은 구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17-18절)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이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유일한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19-20절)

이미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많은 지역에서 자신이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라 해도 자신이 믿는 것과 단 하나라도 다르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 옆에 새로 교회를 세워야 직성이 풀리는가 봅니다. 이 세상은 넓습니다. 교회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많습니다.

“오직 이것은 기록된바, 그에 대하여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깨달음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21-22절)

교만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에게 가장 크게 대적하는 죄입니다. 교만은 자신에 대해 자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증과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관해 다른 형제들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 누구를 증언하느냐로 인해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신을 자랑하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지만 하

나눔께서 누군가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듣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귄다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 줄 것을 바라노라.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23-25절) 바울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곳에 가서 체포됩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26절) 교회는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돌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빛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27절) 복음을 전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에게 물질로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28-29절)

아무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은 없습니다. 자신의 비용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일을 위해 돈을 쓰기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전도

자일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먼 지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러 먼 지역으로 가고 누군가는 그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전도자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보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하고 누군가는 집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일에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모든 일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30절)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즉 여기서도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필요할 때 서로 기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 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31절) 이것은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사역을 받아들이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32-33절)

로마서 15장을 통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주고 싶은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쓰시기 바랍니다. 또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로 함께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선물(은사)과 재능을 주셨을 것입니다. 당

신이 그것으로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령님의 선물과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데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썼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선물과 같은 재능과 같은 기회를 가지고도 20년 후에 서로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선물과 재능과 기회를 주시고 당신이 자유롭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영원한 가치가 있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낭비해 버리시겠습니까? 당신이 받은 모두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곳에 써버리고 낭비해 버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당신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29강 하나님을 모욕 함

15장 1절-3절

로마서 16장으로 가기 전에 15장에서 한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The reproaches of them)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롬 15:1-3)

우리는 여기서 모욕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시 69:9)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인간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

하셨습니다. 모욕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자마자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수십억의 타락한 인간들로부터 모욕과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화가 나거나 실망하거나 분노하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결국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좀 더 점잖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왜 당장 전쟁을 멈추지 않으시냐고 묻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좀 더 점잖기는 하지만 모두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다면 왜 어린 아이들이 병이 들니까?” “만약 의로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왜 사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겁니까?” 라는 식의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들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생긴 일인데도 인간은 자신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저질러놓은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구유에 뉘었던 작은 아이는 아무런 죄도 지은 적이 없는 채로 성장하여 인류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구원자이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시며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에게 인간이 어떤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비방과 모욕을 퍼붓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죽이라”고 소리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시저 외에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외쳤고 예수님보다 바라바라는 강도를 원한다고 외쳤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5장에서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퍼부은 모든 모욕이 예수 그리스도를 덮쳤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모욕을 자신이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비난과 비판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평과 비난이 전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십자가를 통해 입증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든 불만의 원인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불행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도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모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행을 초래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

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저주와 질문과 의심과 비판과 비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통해 입증해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게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야말로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망가졌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 병에 걸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 죽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 지옥에 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든 모욕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욕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비난과 비평과 거짓 고소를 담당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으며 인간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

을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해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미움과 증오도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이 망가진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과거에는 한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전에는 실패하면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잘못되면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고침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나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침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은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회가 분열되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

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국가 간에 분쟁이 있는 이유도 누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든 개인 간의 분쟁이든 모든 분쟁의 원인은 인간의 욕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누군가 인생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자신의 잘못입니다. 누군가 지금 지옥에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바른 선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 호수에 던져지는 혼들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할 수 없고 그분께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 문제를 만들어낸 분이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짓값을 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영

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하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옥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가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하메드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십시오. 부처가 당신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공자가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십시오. 당신의 죄값이 모두 치러지게 하기 위해 교황이나 침례교 목사가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를 비난 할 수 있고 목사를 비난할 수도 있고 종교를 비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비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의 죽음이나 불행도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지옥에 가는 이유도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욕하는 것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프리포즈를 했다면 그 여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남자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프리포즈를 거절하며 뺨을 때림으로 조롱할 수도 있고 다른 남자의 프리포즈를 받아들임으로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

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비난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하지 않아도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신 일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두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보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건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하건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거부하고 미워하든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난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천 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

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시 22:1) 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별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a reproach of men) 백성의 멸시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6-8절)

이것은 갈보리를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주님을 모욕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인간의 모욕과 조롱을 참으시면서 십자가 위에 계셨는지에 관해 로마서 15장은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든 모욕과 멸시를 참으시면서 십자가 위에 계셨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옥으로부터 자신의 혼을 스스로 건져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분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약한 자들인 당신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견뎌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수치를 견뎌 내신지 아십니까? 당신과 저를 위해 십자가의 수치를 견뎌 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마 11:28)고 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죄와 당신의 이웃의 죄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모욕과 수치를 견뎌내신 것은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당신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였습니다.

시편 109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가롯 유다의 배반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그를 덮는 옷 같고 계속해서 그가 띠는 띠 같게 하소서. 이것이 내 대적들과 내 혼을 비방하는 자들이 주께 받는 보응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오 하나님 곧 주여,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 행하소서. 주의 긍휼이 선하시오니 주께서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내 마음은 내 속에서 상처를 입었나이다. 나는 기우는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또 메뚜기같이 위아래로 까블려지고 내 무릎은 금식으로 인해 쇠약하며 내 살은 기름기가 없나이다. 나는 또 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사오니(a reproach unto them) 그들이 나를 보고 자기 머리를 흔들었나이다. 오 주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도우소서. 오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께서 곧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이 저주할지라도 주께서는 복을 주소서. 그들이 일어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되 주의 종은 기뻐하게 하소서.”(시 109:19-28)

예수님께서서는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금식하시고 시름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왜 침 뱉음을 당하셨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 때문이었다 해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인간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해 주신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그분을 향해 돌아서야 합니다. 그분을 비난하지 말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종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보려고 오시지도 않았습니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지은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증해 보여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 하는 자였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인간의 불행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분

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구원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고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따뜻하고 좋은 날씨를 보면 대자연의 어머니가 준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태풍이 불어 많은 것을 파괴시키면 대자연의 어머니가 아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그분께 돌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인간의 불행에 대한 원인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불행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잘 아셨지만 인간을 위해 모든 책임을 지고 죽어주셨습니다. 자신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값을 인간을 위해 치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하나님이지여, 강한 우리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맙시다. 저는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지여, 저도 당신을 떠나 당신과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 일에 동의하고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독자 중에는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비극이 닥쳤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매우 분명한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불행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번도 당신에게 해로운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고 당신의 친구이며 당신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모욕하지 말고 그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인생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30강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16장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알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요 21:25)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다면 성경의 분량은 백과사전보다 더 많고 심지어 대학 도서관이나 이 세상이라도 다 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려면 이 세상이라도 다 담지 못할 책을 기록하실 수도 있었습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권으로 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장에 걸쳐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열거된 장을 성경에 넣느니 차라리 창조에 관한 장을 몇 개 더 넣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열거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장막을 치고 거하고, 어디서 장막을 치고 거했다는 다소 무의미해 보이는 설명을 하는 장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차라리 천사나 마귀의 기원에 관해 설명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에 관해 계시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이름만 열거하고 있는 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장막을 어디에 치고 어디로 갔더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가 하는 일과 가는 곳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 관해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제가 화요일 저녁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로마서 16장을 흥

미 있게 만듭니다.

로마서 16장 전체는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씩 이름을 거명하며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어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어서 감사하고 함께 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장 전체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대해 감사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사역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돕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영감으로 성경을 주신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중 우리의 자매 뵈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1-2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매인 뵈베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뵈베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벽돌로 만든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뵈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런 자매가 있는 교회는 큰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런 자매는 집사나 목사 못지 않게 교회에 큰 축복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창조주에 관한 교리, 인간의 타락에 관한 교리, 구속과 칭의에 관한 교리, 새 본성과 옛 본성, 즉 두 본성에 관한 교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교리를 다루는 로마서라는 위대한 책에서 뵈베라는 교회를 섬기는 자매에 관해 다루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한 자매의 이야기는 다른 모든 교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 실행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3-4절)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저의 성경 공부 강의를 듣고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있었다면 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저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로마서 16장에 예언에 관한 진리를 기록해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난제들을 풀어 해설해 주는 내용을 기록해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두지 않으시고 서로 돕고 감사하며 인사를 나누는 것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구원받아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전도지를 주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성경을 선물해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른 성경을 소개해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른 교회를 알려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도와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5절)

성경은 에베네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마을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속한 지역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국가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 사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나쁜 영향만 끼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된 교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책을 볼 수 있게 되어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신앙의 자유를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의 용기와 신념과 안목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아가야지역의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베네도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아직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인사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 때, 에베네도는 문을 활짝 열며, “예수님, 아가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제 인생에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한 사람입니다.

모든 교회에는 처음으로 더해진 성도가 있습니다. 모든 부흥에는 처음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처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면 첫 사람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사람이 전도지를 받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전도지를 받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첫 사람이 전도지를 받아서 읽으면 다른 사람들도 전도지를 받아서 읽을 확률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따라서 아가야에서 첫 열매인 에베네도는 그만큼 의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6절) 마리아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운영위원도 아니었습니다. 건축위원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를 하거나 물을 떠 주는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서는 그녀에게 인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아담 이전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거나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도록 간극진리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도운 한 여자에게 인사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성경공부 시간에 배운 것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장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든 크든 무엇이라도 주님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헌금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등 그 어떤 일이건 간에, 얼마나 작은 일이건 간에 주님께서서는 그것으로 인해 고마워하시며 그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하십니다.

신약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꾸짖으시는 모습도 나오지만 그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이 되시고 별레가

되시고 죄가 되실 만큼 겸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주님을 위해 한 모든 일이 상 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물을 한 잔 떠준 작은 일도 모두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구원자께서는 신사적인 분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 수 고한 모든 사람들,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 을 표시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그룹들과 영적 존재들과 그리 스도의 몸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고마움 을 표시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는 날이 될 것 입니다.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 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 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 에 있었느니라.”(7절)

이 구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그가 전했던 동일 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처 음으로 복음을 받았으며, 처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최고의 농구선수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다면 그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건전한 교리로 인해 주목 받 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실함과 꾸준함으로 인해 주목 받았을지도 모르겠

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한 담대함으로 주목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 이들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로하고 본을 보여 주기 위해 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인사하라.”(8절)

당신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깃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9-12절)

사도 바울에게 교회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를 늘려 자신의 영적 야망을 채우려는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교회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설교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역이나 일이 아닌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일이 아닌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약간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

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13절)

당신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고 싶었습니까? 만일 어머니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면 어머니를 가장 먼저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어머니가 지옥에 가는 게 아마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머니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마와 바드로바와 허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울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14-16절)

성경은 계속해서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바른 성경과 진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사역을 할 필요도 없고 혼자 주님을 섬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저는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모일 수 있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교제를 나눌 형제 자매로 인해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문안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교리만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서로 감사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도 교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는 대환난이나 천년왕국에 관한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만큼 인사와 감사에 관한 교리도 배워야 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17절)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인사하고 안부를 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당신이 배운 것에 역행하게 하거든 당신은 그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욕하고 때리고 골탕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신사적으로 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열시키는 자들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단지 당신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리에 역행한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혼내 주거나 때리거나 폭행하지 말고 그저 피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18절)

믿음에 있어서는 순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한 말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선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를 피해야 합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주님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게 목적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내용보다는 방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좋은 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드럽게 말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좋은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

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들리는 단어, 즉 지옥이나 심판이나 죄라는 단어로 인해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19절)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간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우리 교회에 관한 좋은 간증이 퍼져나갔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순진해져야 합니다. 성경이 술을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면 우리는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술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순진해야 합니다. 마약을 하지 말라는 교육일지라도 마약에 대해 계속 교육하다 보면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의 교육이요 예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성교육은 필요하겠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성교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약과 성에 관한 가장 좋은 교육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마약과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악에 대해 순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는 죄를 경험하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선한 것은 자세하게 많이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른 것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오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 공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단 교리나 비진리에 많은 시간을 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20절)

사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마귀를 상하게 한다거나 내쫓으러 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사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마 16:23)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을 자신의 뒤에 두심으로 자신과 베드로 사이에서 치워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을 물리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장인 미가엘도 사탄을 비난하지 않고 그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유 1:9) 라고만 했습니다. 천사장인 미가엘도 마귀를 꾸짖지 않았다면 우리도 마귀를 꾸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행전에서는 마귀를 꾸짖으려다가 오히려 공격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마귀는 그에게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행 19:15)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4장에서는 악하게 행

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불태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재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21절)

저는 동역자(workfellow)라는 말이 좋습니다. 저는 동역자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의 친족 중 세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22절)
더디오는 편지를 받아쓴 사람입니다. 일종의 비서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또 형제 구아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23절)

가이오는 온 교회를 접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가이오는 선교사가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바울과 가이오 중 누가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까? 둘 다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할 바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한 가이오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실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당신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 징계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서는 선한 일에 대해 상을 주실 것입니다.

도시의 재무관도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형제”인 구아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복음 사역을 할 때, 저는 노인 분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한 분은 90세가 넘는 은퇴한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다른 분은 70세가 넘는 은퇴한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다른 분은 50세가 넘는 은

사주의교회 장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장로나 목사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다. 박사나 다른 직업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다. 우리는 서로 형제라고 불렀습다. 그때 저는 구원받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가 부르던 똑같은 호칭(형제)으로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독립침례교회 내에도 천주교적인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호칭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매라는 호칭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24-25절)

하나님께서서는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제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굳게 세우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도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26-27절)

문맥은 계속해서 25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은 구약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신약성경에만 나온 진리가 아니라 구약성경에도 나온 진리인 것입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형제들에 대한 감사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섬기고 섬기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속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 욕을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감사하고 그에게 감사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30분, 40분 일찍 나와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남아서 교회를 청소해 주시는 분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저를 사랑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 나와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욕하거나 험담하는 게 아니라 고마워하고 서로의 존재로 인해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고마워하시며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로마서를 통해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더 기쁘게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A decorative border with a repeating floral pattern surrounds the central text.

부 록

부록1: 가장 중요한 질문

글 Dennis Costella, Matt Costella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막 8:36)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삶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오래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막 8:36-37) 당신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영원을 보내게 될지 알고 있습니까?

인생은 의문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반드시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인식하건 그렇지 못하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으며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감정을 신뢰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교회나 종교를 믿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나 사후세계나 영적인 것에 관해 다른 누군가의 말을 믿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붙들고 살고 있을 겁니다.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다음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가 전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까지 보낸 시간 중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와 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들”(엡 2:3)**이었으며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엡 2:1)**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실제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롬 3:10)**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우리는 모두 완벽한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현재 상태 그대로 당장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 9:27)**

또한 성경은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27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죄로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어린양의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주님의 거룩하신 면전에 설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면, 그는 어디서 영원을 보내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0:15은 이 문제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지옥은 영원한 고통만이 있는 실존 장소입니다. 성경은 불 호수에서 영원히 고통 당하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롬 6:23)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죽음 이후에는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삶을 통해 죄를 지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은 죄보다 많은 선을 행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악행보다는 선행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종교적인 행위들(침례나 세례, 고해성사, 주의 만찬 등)을 하면 죄 문제와 그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생각은 모두 착각일 뿐이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결코 피하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딤후 3:5)

사실 우리는 아무런 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사 64:6)

우리가 정직하고 선한 행실을 하며 종교적이고 영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살면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지만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우리 자신의 내

면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없앨 수도 없으며 온전히 거룩한 의로 우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죄와 그 형벌로부터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롬 5:6) 잠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힘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고 있고 희망이 전혀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혜에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로마서 5:8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

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5-6)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벧전 2:24)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롬 4:25)

짚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위에 두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와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광의 주님 위에 놓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요 19:30) 라고 울부짚으셨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선물에 우리가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놀라운 해결책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선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일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야만 그분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원하면 자신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죄인이 치러야 할 값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그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될

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행 10:43) 이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죄를 모두 용서 받고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음의 약속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 5:24)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 1:12)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롬 5:1-2)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에 2:8-9)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

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행 16:31)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 3:16-18)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롬 4:5)

즉각적인 기회

독자여,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를 모두 용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당신 자신의 의로는 정죄만 당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당신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고후 5:21).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로마서 3:26)

아무도 자신이 구원받았거나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11-13은, 믿는 사람은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과 자신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다음의 사실들도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증보하심을 보전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히 7:25)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요 10:28)

성경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 4:30)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봉인되었으므로 영원히 안전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일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머리로만 받아

들이지 말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머리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를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해 주셨다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다음의 사실을 믿으십시오.

첫째,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을 통해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

선행이나 성사나 종교의식이나 교회 출석이나 도덕이나 침례나 세례나 영성 체험이나 다른 무엇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죽으면 끝이라는 어리석은 생각도 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같보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 해 주신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이러한 초청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행 20:21)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

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이거나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자신의 죄 가운데 완전히 버림받았으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성경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는 모두 용서받고 씻음 받으며 성령님께서는 당신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축복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으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계 22:17)

부록2: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이 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글을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관련 성경 구절을 반드시 찾아서 읽어보시고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11에 묘사된 사람들 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사 6:3, 57:1, 벰전 1:15, 계 4:8).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악 된 것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계십니다(사 59:2, 시 24:3-4, 사 6:3-5). 성경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온전히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14:6, 딤후전 2:3-6).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다(시 14:1-3, 롬 3:10-18, 23, 사 53:6, 시

51:5, 왕상 8:46). 당신의 마음도 악하고 사악합니다(렘 17:9-10, 막 7:20-23, 마 7:11). 그러므로 당신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롬 3:19). 그래서 현재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상태이며 그분의 진노가 당신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살 후 1:8-9, 마 25:41, 46, 막 9:42-48, 계 20:11-15, 21:8).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포함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요 3:17, 마 1:21-23, 눅 19:10, 딤후 1:15). 영원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1:1, 사 7:14, 9:6, 미 5:2, 딤후 2:13)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는데(요 1:3, 골 1:13-16)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당신을 대신해서, 저와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저와 당신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사 53장, 롬 5:6-8, 고전 15:3, 고후 5:21, 갈 1:4, 벧전 2:24, 3:18, 요일 2:2, 3:16, 4:10).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저를 대신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일에 만족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고전 15:4-20, 롬 4:25). 또한 이 부활로 인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주장하신 것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롬 1:4).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알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책임입니다(행 16:30-31, 요 3:16, 18, 36).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서(요 6:35-37)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요 1:12, 롬 6:23).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1. 주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행 4:12, 요 10:9, 14:6).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2.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살전 4:14, 고전 15:3-4, 롬 10:9).
3.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히 7:25, 사 59:1, 마 19:24-26).
4.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요 6:37, 딤후전 2:4).
5.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요 3:16).

당신은 다음의 것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1. 당신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사 64:6, 엡 2:9, 딤후 3:5).
2.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롬 3:20, 갈 2:16, 약 2:10).
3.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엡 2:8-9, 행 16:31).

당신은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엡 2:4-9, 딤후 3:4-7).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그분으로 인해, 그분이 하신 일과 하신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는 것 외에 무엇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딤후 1:2, 히 6:18),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히 13:8),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다음의 말씀들을 통해 기쁨 가운데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28, 요한복음 1:12, 3:16, 3:18, 3:36, 5:24, 6:35, 6:37, 6:47, 10:9, 11:25, 사도행전 10:43, 로마서 10:9, 10:13, 요한일서 5:11-12

구원받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은혜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벧후 3:18).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을 해야 합니다.

1.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마 28:19-20, 행 10:48, 2:38),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간증의 의미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고후 5:14-17, 롬 6:3-11, 갈 2:20).
2.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합니다(벧전 2:2, 마 4:4, 시 119:97).
3.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히 4:16, 살전 5:17, 눅 18:1).
4.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신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행 2:42, 히 10:25).
5. 매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생각으로 짓는 죄나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분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요일 1:8-2:2, 요일 1:9, 시 51:3-6, 시 32:3-6, 잠 28:13).
6.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시 107:2, 마 10:32, 롬 10:9-10).
7. 행실과 입술과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행 1:8, 사 43:10-12). 당신이 사는 방식과 인생과 말을 통해 사람들

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빌 2:15-16, 골 3:17, 벧전 3:15, 골 4:5-6).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문서사역 후원 안내

“그러나 진리의 성경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 (단 10:21a) 천사가 다니엘에게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처럼 도서출판 진리의성경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책들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근거하면서 킹제임스성경을 전혀 비평하지 않는 책들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책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전제로 저술한 책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는 전제로 만든 책들을 출간하고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성도들을 세워주는 건전한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도서 구매가 어려운 교회와 개인에게 무상으로 도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문서사역 후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무상으로 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진리의성경을 통해 사업이 아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금전적인 이윤보다는 구원받은 혼과 영적 성장이 남기를 원합니다. 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당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대표
이우진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국민은행 384702-04-212299 이우진(문서사역)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http://cafe.naver.com/bbckjb>)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게시판을 참고 하십시오.
- 후원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후원금액을 문자(010-2322-1611)나 메일(kjv74@hanmail.net 또는 kjv74@naver.com)로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해당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원저자 : James W. Knox**

제임스 닉스 목사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닉스 목사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 주의 딜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를 보급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 지금까지 600만 개의 도서와 테이프 자료들을 전 세계에 보급해 왔습니다. 그는 30여 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문서사역과 테이프 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http://www.jameswknnox.org>

*** 편역자 : 이우진**

이우진 목사는 1974년 4월 26일 서울에서 태어나 줄곧 여의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펜사콜라성경신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균관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1990년 7월 중순 호주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1994년부터 문서사역을, 그리고 1997년부터 교회와 신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우진 목사는 펜사콜라성경신학원과 킹제임스성경신학원에서 10여년에 걸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월간 강단의거성과 도서출판 킹제임스에서 편집장으로, 그리고 진리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으며, 40여 권의 책을 번역하거나 저술했습니다. 그는 2007년에 도서출판 진리의성경을, 그리고 2014년에 분당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http://cafe.naver.com/bbckjb>

